

2021 남원시 가야역사 학술 토론회  
“남원 가야유적의 역사적 성격”

- 주 최 : 전라북도 · 남원시
- 주 관 : 전북사학회 · 전라문화연구소
- 발표일시 : 2021년 11월 5일(금) 오후 13시 ~
- 발표장소 : 남원시립도서관 4층 지리산 소극장  
유튜브(youtube)

2021. 11. 05.

전 북 사 학 회  
JEONBUK SAHAK  
The Jeonbuk Historical Journal

2021 남원시 가야역사 학술토론회  
 “남원 가야유적의 역사적 성격”

# 목 차

- 주 최 : 전라북도·남원시
- 주 관 : 전북사학회 · 전라문화연구소
- 발표일시 : 2021년 11월 5일(금) 오후 13시 ~
- 발표장소 : 남원시립도서관4층 지리산소극장/ 유튜브

■ 발표순서

13:00~13:20	<b>접 수</b>	
13:20~13:40	<b>개회식</b> (개회사 및 환영사)	사회: 김병남
13:40~14:00	<b>장내 정리</b>	
<b>주제 발표</b>		
14:00~14:15	<b>제 1주제</b> 임나와 기문국에 대한 몇 가지 의문-최근 제기된 견해에 대한 검토	이도학 (한국전통문화대학교)
14:15~14:30	<b>제 2주제</b> 고고자료로 본 전북 동부 가야문화	곽장근 (군산대학교)
14:30~14:45	<b>제 3주제</b> 가야와 임나일본부: ‘임나=가야설’과 호남가야(임나)	이덕일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14:45~15:00	<b>제 4주제</b> 기문가야, 학문적으로 성립 가능한 개념인가?	박찬화 (대한사랑)
15:00~15:10	장내 정리 및 휴식	
15:10~17:00	<b>쟁점토론(남원지역 가야문화유산과 관련한 쟁점사항)</b> - 세계유산 신청 가야고분군의 역사성격 - 문헌자료에 나타난 기문과 남원 - 고고학으로 본 남원지역의 가야문화 - 임나의 위치와 식민사학문제	좌장 : 조법중

발표문

- 임나와 기문국에 대한 몇 가지 의문:최근 제기된 견해에 대한 검토 .....6쪽  
 발표자 : 이도학(한국전통문화대학교)
- 고고자료로 본 전북 동부 가야문화 .....28쪽  
 발표자 : 곽장근(군산대학교)
- 가야와 임나일본부: ‘임나=가야설’ 과 호남가야(임나) .....58쪽  
 발표자 : 이덕일(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
- 기문가야, 학문적으로 성립 가능한 개념인가? .....84쪽  
 발표자 : 박찬화(대한사랑)

쟁점토론

- 세계유산 신청 가야고분군의 역사성격
- 문헌자료에 나타난 기문과 남원
- 고고학으로 본 남원지역의 가야문화
- 임나의 위치와 식민사학문제

# 임나와 기문국에 대한 몇 가지 의문

## -최근 제기된 견해에 대한 검토-

이도학(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

### <목 차>

---

1. 머리말
  2. 史料에 보이는 任那의 용례
    - 1) 한국과 중국 사료에 보이는 任那
    - 2) 『일본서기』에 보이는 任那 기록
  3. 기문국의 임나 소재 與否
  4. 임나 = 가야, 임나일본부설 인정하는 것인가?
  5. 일본 사료 속의 ‘上己汶’과 「양직공도」 ‘上巴文’의 동일 여부
    - 1) ‘上己汶’ 표기에 대한 對校
    - 2) 「양직공도」의 사료적 성격과 종류
    - 3) 「양직공도」百濟國使 관련 釋文 분석
    - 4) 「양직공도」백제 결의 소국들
  6. 基汶河유역의 己汶 소재 與否
  7. 맺음말
- 

## 1. 머리말

삼국시대를 배경으로 己汶國이라는 소국의 존재가 확인된다. 우선 『일본서기』에서 己汶國이 등장하고 있다. 기문국은 상기문·중기문·하기문의 3기문을 가리키는 지역 이름이자 소국 이름이었다. 이러한 3기문의 존재는 그 밖의 복수의 일본 문헌에서 확인되었다. 『삼국사기』에서는 진흥왕대를 배경으로 가야의 소국으로 上奇物과 下奇物이 등장하고 있다. 비록 漢字는 다르지만 己汶과 奇物 간의 연관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양자 간에는 가야라는 공통점과 音相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문국의 소재지에 대해서는 소국 명의 연원이 되는 기문이, 하천 이름에서 연유했다는 데서 접근하였다. 기문국을 기문하라는 하천과 연관된 소국으로 지목하였던 것이다. 이와 관련한 기문하를 낙동강으로 지목한 초기 연구에서는 기문국을 영남 지역으로 비정하여 왔었다. 이후 중국 자료인 「양직공도」에 등장하는 ‘上巳文’을 ‘上己文’의 誤記로 단정하였고, 게다가 「百濟旁小國」 즉 ‘백제 곁의 소국’으로 등장한 사실을 주목했다. 이렇게 보면 상기문은 백제의 남부나 동부 지역에 소재한 것이 된다. 대략 521년을 하한으로 지목하는 「양직공도」의 기록인 만큼, 기문국은 백제 영향권 내의 소국이 되는 것이다. 문제는 ‘上巳文’을 ‘上己文’의 誤記로 단정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면 논의는 달라지게 된다. 본 발표에서는 이 점에 대한 검증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기문국의 소속을 확인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기문국을 임나 소국의 일원으로 규정하는 견해도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임나 문제에 대한 논의에 앞서 가장 기본적인 사실 자체인, 기문국의 배후를 검증하는 작업을 하고자 했다. 이러한 작업 결과를 토대로 기문국의 위치 비정에 대한 소견을 導出하고자 하였다.

본 발표와 관련해 여러 자료 속에 등장하는 任那의 위치에 대한 범위를 피력하고자 했다. 가령 일본측 사료에 따르면 임나의 소재지를 對馬島로 지목할 수 있는 기록이 보인다. 그런 반면 일본열도나 對馬島를 제외한 공간으로 볼 수 있는 기록이 너무나 많다. 최소한 기문국 관련 삼국시대의 한국 역사에서 등장하는 임나의 소재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은 필요할 듯하였다. 그리고 任那와 加羅는 구분되는 정치체로 보이는 기록도 적지 않지만, 양자를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는 기록도 역시 적은 편은 아니다. 이로 인한 혼돈, 가령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는 의식에서 벗어나 사료가 지닌 원초적인 문제점을 인정하는 선에서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해 “최근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하여 사회 일각에서 이견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 『일본서기』에 나오는 ‘임나’는 ‘가야’가 아니며 임나는 일본의 대마도와 큐슈지역에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일본서기』에 기록된 다라국과 기문국을 사용하는 것은 임나일본부설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 한국 고대사, 고고학계에서 활동하는 많은 연구자들은 운봉고원을 중심으로 한 남원 동부지역에 있었던 가야 정치체를 ‘기문’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고 정리한 후, ‘上己汶’과 ‘上巳文’ 등으로 다양하게 표기된 정치체의 동일성 여부를 묻는 학술대회 토론문이 있었다.<sup>1)</sup> 이 글은 ‘사회 일각에서 이견’의 핵심을 잘 정리했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답변도 곁했다.

본 발표에서는 논지를 이끌어 나가는데 필요한 사료를 펼쳐놓아서 독자로 하여금 재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검증 가능하도록 하였다.

## 2. 史料에 보이는 任那의 용례

### 1) 한국과 중국 사료에 보이는 任那

任那하면 일반적으로 任那日本府說을 연상하여 심리적으로 멍청하게 된다. 任那 용어가 지닌 부정적인 의미를 읽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임나의 용례는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측 사료에서 발견할 수 있다. 한국인이 사용했다고 전해지거나 한국측과 중국측 사료에 보이는 임나의 용례는 다음과 같다.

- a-1. 「광개토태왕릉비문」: ‘任那加羅<sup>2)</sup>
- a-2. 『일본서기』(성왕이 왜에 보낸 국서): ‘任那諸國<sup>3)</sup>
- a-3. 『삼국사기』(강일의 자신 소개): 任那加良人<sup>4)</sup>
- a-4. 『일본서기』: “임나가 멸망했다. 통털어서 임나라고 말한다. 개별적으로는 加羅國·安羅國·斯二岐國·多羅國·牟麻國·古婁國·子他國·散半下國·乞浪國·稔禮國이라고 말한다. 합 해서 10國이다.”<sup>5)</sup>
- a-5. 『通典』: “(新羅) ... 遂致強盛 因襲加羅·任那諸國滅之<sup>6)</sup>
- a-6. 『翰苑』: “地總任那<sup>7)</sup>
- a-7. 『翰苑』: “지금 신라의耆老들에게 물었더니 ‘加羅와 任那는 옛적에 신라에 멸한 바 되었다. 그 故地를 지금은 아울러 나라 남쪽 700-800리에 있다’”고 말한다.<sup>8)</sup>

『한원』에는 신라의 강역과 관련해 “地總任那”라고 했다(a-6). 즉 신라의 영역을 설명하면서 “땅은 임나를 합했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한국인들이 상상하는 가야 영역 전체를 ‘임나’로 일컬었다. 그렇지만 加羅와 任那는 별개의 정치 세력이요(a-7), 임나 범위 안에 가라가 존재했다(a-1). 또 이와는 相馳되는 기록도 존재하기에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 2) 『일본서기』에 보이는 任那 기록

일본측 문헌의 임나 용례는 상당히 많다. 그 많은 용례를 모두 소개하는 것은 문제의 정리나 해결이 아니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본 발표에서는 『일본서기』에 보이는 任那 기록만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수록했다. 이 중에는 전혀 논지와 무관한 세세한 기사 몇 건은 지면 낭비에 불과하기에 삭제하였음을 밝혀둔다.

2) 李道學, 『새롭게 해석한 광개토태왕릉비문』, 서경문화사, 2020, 35쪽.  
 3) 『日本書紀』권19, 欽明 15년 12월 조. “上表曰 百濟王臣明 及在安羅諸倭臣等 任那諸國旱岐等奏 以斯羅無道 不畏天皇 與狎同心”  
 4) 『三國史記』권46, 強首傳.  
 5) 『日本書紀』권19, 欽明 23년 정월 조. “廿三年 春正月 新羅打滅任那官家[一本云 廿一年 任那滅焉 總言任那 別言加羅國·安羅國·斯二岐國·多羅國·牟麻國·古婁國·子他國·散半下國·乞浪國·稔禮國 合十國]”  
 6) 『通典』 권185, 邊防1, 新羅.  
 7) 『翰苑』 蕃夷部, 新羅.  
 8) 『翰苑』 蕃夷部, 新羅. “今訊新羅耆老云 加羅·任那 昔爲新羅所滅 其故地今並在國南七八百里”

1) 하승철, 「전북지역 가야역사의 부각과 가야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활용」에 대한 토론문, 「전북지역 연구의 회고와 새로운 지평(2)」 전라북도, 2021.10.22, 79쪽.

\* 二年冬十月壬辰朔 天皇 以新羅寇於任那 詔大伴金村大連 遣其子磐與狹手彥以助任那 是時 磐留筑紫執其國政 以備三韓狹手彥往鎮任那 加敷百濟(宣化 2傳)

\* 八月 高麗·百濟·新羅·任那 竝遣使獻 竝脩貢獻 召集秦人·漢人等 諸蕃投化者 安置國郡 編貫戶籍 秦人戶數 總七千五十三戶 以大藏掾 爲秦伴造(欽明 4傳 8傳)

\* (二年) 夏四月 安羅次早岐夷吞奚·大不孫·久取柔利加羅王首位古殿奚卒麻早岐散半奚早岐兒 多羅下早 岐夷他斯二岐早岐兒子他早岐等 與任那日本府吉備臣[坂名字]往赴百濟 俱聽詔書 百濟聖明王謂任那早岐等言 日本天皇所詔者 全以復建任那 今用何策 起建任那 蓋各盡忠 奉展聖懷 任那早岐等對曰 前再三廻 與新羅議 而無答報 所圖之旨 告更新羅 尚無所報 今宜俱遣使 往奏天皇 夫建任那者 爰在大王之世 祗承教旨 謹啟問言 然任那境接新羅 恐致卓淳等禍[等謂喙已吞·加羅 言卓淳等國 有敗亡之禍]聖 明王曰 昔我先祖速古王·貴首王之世 安羅·加羅·卓淳早岐等 初遣使相通 厚結親好 以爲子弟 冀可恒隆而今被誑新羅 使天皇忿怒 而任那憤恨 寡人之過也 我深懲悔 而遣下部中佐平麻齒·城方甲背味奴等赴加羅 會于任那日本府相盟 以後 繫念相續 圖建任那 旦夕無忘 今天皇詔稱 速建任那 由是 欲共爾曹謀計 樹立任那等國 宜善圖之 又於任那境 徵召新羅 問聽與不 乃俱遣使 奏聞天皇 恭承示教 儻如 使人未還之際 新羅候隙 侵逼任那 我當往救 不足爲憂 然善守備 謹警無忘 別汝所善 恐致卓淳等禍 非新羅自強故 所能爲也 其喙已吞 居加羅與新羅境際 而被連年攻取 任那無能救援 由是見亡 其南加羅葦爾狹小 不能守備 不知所託 由是見亡 其卓淳上下携貳 主欲自附 內應新羅 由是見亡 因斯而觀 三國之敗 良有以也 昔新羅援授於高麗 而攻擊任那與百濟 尚不尅之 新羅安獨滅任那乎 今寡人 與汝 戮力并心 翳賴天皇 任那必起 因贈物各有差 忻忻而還(欽明 2傳 4傳)

\* 秋七月 百濟遣紀臣奈率彌麻沙·中部奈率已連來奏下韓·任那之政 并上表之(欽明 2傳 7傳)

\* 冬十一月丁亥朔甲午 遣津守連 詔百濟曰 在任那之下韓百濟郡令城主 宜附日本府并持詔書 宣曰 爾履抗表 稱當建任那 十餘年矣 表奏如此 尙未成之 且夫任那者 爲兩國之棟梁 如折棟梁 詎成屋宇 朕念在茲 爾須早建 汝若早建任那河內直等[河內直已見上文]自當止退 豈足云乎 是日聖明王聞宣勅已 歷問三佐平內頭及諸臣曰 詔勅如是 當復何如三佐平等答曰 在下韓之 我郡令城主 不可出之 建國之事 宜早聽聖勅(欽明 4傳 11傳)

\* 十二月 百濟聖明王復以前詔 普示群臣曰 天皇詔勅如是 當復何如上佐平沙乞已婁·中佐平木沓麻那·下佐平木尹貴·德率鼻利莫古·德率東城道天·德率大羽昧淳·德率國難多·奈率燕比善那等 同讓曰 臣等粟性愚闇 都無智略 詔建任那 早須奉勅 今宜召任那執事·國圖早岐等 俱謀同計 抗表述志 又河內直·移那斯·麻都等 猶任安羅 任那恐難建之 故亦并表 乞移本處也聖明王曰 群臣所讓 甚稱寡人之心(欽明 4傳 12傳)

\* 二月 百濟遣地德馬武·施德高分星·施德斯那奴次酒等 使于任那 謂日本府與任那早岐等曰 我遣紀臣宰 率彌麻沙·奈率已連·物部連奈率 用奇多朝謁天皇彌麻沙等 還自日本 以詔書宣曰 汝等 宜共在彼日本府早建良國 副朕所望 爾其戒之 勿被他誑 又津守連 從日本來[百濟本記云津守連已麻乞麗而語訛不正未詳]宣詔勅 而問任那之政 故將欲共日本府·任那執事議定任那之政 奉奏天皇 遣召三廻 尙不來到 由是 不得共論圖計任那之政 奉奏天皇矣 今欲請留津守連 別以疾使 具申情狀 遣奏天皇 當以三月十日 發遣使於日本 此使便到 天皇必須問汝 汝日本府卿·任那早岐等 各宜發使 共我使人 往聽天皇所宣之詔 別謂河內直[百濟本記云河內直·移那斯·麻都而語訛未詳其正也]自昔迄今 唯聞汝惡 汝先祖等[百濟 本記云 汝先祖干陀甲背·加鐵直岐甲背 亦云那奇陀甲背·鷹奇岐彌 語訛未詳]俱懷姦爲誘說爲哥可君[百濟本記云爲哥岐彌名有非岐]專信其言 不愛國難 乖背吾心 縱肆暴虐 由是見逐 職汝之由 汝等來往任 那 恒行不善 任那日損 職汝之由 汝是雖微 譬猶小火燒焚山岳 連延村邑 由汝行惡 當敗任那 遂使海西諸國官家 不得長奉天皇之闕 今遣奏天皇 乞移汝等 還其本處 汝亦往聞 又謂日本府卿·任那早岐等曰 夫建任那之國 不假天皇之威 誰能建也 故我思欲就天皇 請將士 而助任那之國 將士之糧 我當負運 將士之數 未限若干 運糧之數 亦難自決 願居一處 俱論其善 將奏天皇 故頻遣召 汝猶不來不得議也日本府答曰任那執事不赴召者 由是吾不遣 不得往之 吾遣奏天皇 還使宣曰 朕當以印奇臣[語訛未詳]遣於新羅 以津守連 遣於百濟 汝 待聞朝辭 莫自勞往新羅百濟也 宣勅如是 會聞印奇臣使於新羅 乃遣遣問天皇所宣 詔曰 日本臣與任那執事應就新羅 聽天皇勅 而不宜就百濟聽命也 後津守連 遂 來過此 謂之曰 今余被遣於百濟者 將出在下韓之 百濟郡令城主 唯聞此說 不聞任那與日本府會於百濟聽天皇勅 故不從焉 非任那意 於是 任那早岐等曰 由使來召 便欲往參日本府卿 不肯發遣 故不住焉大 王爲建任那 觸情曉示 觀茲忻喜 難可具申(欽明 5傳 2傳)

\* 秋九月 百濟遣中部護德菩提等 使于任那 贈與財於日本府臣及諸早岐 各有差(欽明 6傳 9傳)

\* 八月辛卯朔丁酉 百濟遣上部奈率利野新羅·下部固德汶休帶山等 上表曰 去年臣等同讓 遣內臣德率次酒·任那大夫等 奏海表諸彌移居之事 伏待恩詔 如春草之仰甘雨也 今年忽聞 新羅與狛國通謀云 百濟與任那 類誦日本 意謂是乞軍兵 伐我國歟 事若實者 國之敗亡 可企踵而待 庶先日本軍兵 未發之問伐安羅 絕日本路 其謀若是 臣等聞哉 深懷危懼 即遣使輕舟 馳表以聞 伏願 天慈速遣前軍後軍 相續來救 逮于秋前 以固海表彌移居也 若遲晚者 噬臍無及矣 所遣軍衆 來到臣國 衣糧之費 臣當充給來到任那 亦復如是 若不堪給 臣必助令 無乏少 別的臣欲受天勅 來撫臣蕃 夙夜乾乾 勤修庶務 由是 海表諸蕃 皆稱其善 謂當萬歲 肅清海表 不幸云亡 深用追痛 今任那之事 誰可修治 伏願 天慈速遣其代 以鎮任那 又復海表諸國 甚乏弓馬 自古迄今 受之天皇 以禦強敵 伏願 天慈多賜弓馬(欽明 14傳 1傳)

\* 六十五年秋七月 任那國遣蘇那曷叱知令朝貢也 任那者去筑紫國 二千餘里 北阻海以在鷄林之西南(崇神 65傳)

\* (二年) 是歲 任那人蘇那曷叱智諳之 欲歸于國 蓋先皇之世來朝未還歟 故教賞蘇那曷叱智 仍齋赤絹一 百匹 賜任那王 然新羅人遮之於道而奪焉 其二國之怨 始起於是時也[一云 御間城天皇之世 額有角人 乘一船 泊于越國竒飯浦 故號其處曰角鹿也 問之曰 何國人也 對曰意富加羅國王之子 名都怒我阿羅斯 等亦名曰于斯岐阿利叱智干岐 傳聞日本國有聖皇 以歸化之 到于穴門時 其國有人 名伊都都比古 謂臣曰 吾則是國王也 除吾復無二王 故勿往他處 然臣究見其爲人 必知非王也 即更還之 不知道路 留連嶋浦 自北海廻之 經出雲國至於此間也 是時遇天皇崩 便留之 仕活日天皇逮于三年 天皇問都怒我阿羅斯等曰 欲歸汝國耶 對謫 甚望也 天皇詔阿羅斯等曰 汝不迷道必速詣之 遇先皇而仕歟 是以 改汝本國名追負御間城天皇御名 便爲汝國名 仍以赤織絹給阿羅斯等 返于本土 故號其國謂彌摩那國 其是之緣也 於是 阿羅斯等以所給赤絹 藏于己國郡府 新羅人聞之 起兵至之 皆奪其赤絹 是二國相怨之始也 一云 初都怒我阿羅斯等有國之時 黃牛負田器 將往田舍 黃牛忽失則尋 迹見之 跡留一郡家中 時有一老夫曰汝所求牛者 入於此郡家中 然郡公等曰 由牛所負物而推之 必設殺食 若其主覓至 則以物償耳 即殺食 也 若問牛直欲得何物 莫望財物 便欲得郡內祭神云爾 俄而郡公等到之曰 牛直欲得何物 對如老父之教 其所祭神 是白石也 乃以白石 授牛直 因以將來置于寢中 其神石化美麗童女 於是 阿羅斯等大歡之欲合 然阿羅斯等去他處之間 童女忽失也 阿羅斯等大驚之 問己婦曰 童女何處去矣 對曰 向東方 則尋追求 遂遠浮海以入日本國 所求童女者 詣于難波爲比賣語曾社神 且至豐國國前郡 復爲比賣語曾社神 崑 二處見祭焉(垂仁 2傳)]

\* 七年秋九月 高麗人·百濟人·任那人·新羅人 竝來朝 時命武內宿禰領諸韓人等作池 因以 名池號韓人池 (應神 7傳)

\* 三年春二月丁巳朔 阿閉臣事代銜命 出使于任那 於是 月神著人謂之曰 我祖高皇產靈 有預造造天地之功 宜以民地 奉我月神 若依請獻我 當福慶 事代由是 還京具奏 奉以歌荒槻田[歌荒槻田者 在山背國葛野郡也]壹伎縣主先祖押見宿禰侍祠(顯宗 3傳 2傳)

\* 是歲紀生磐宿禰據任那 交通高麗 將西王三韓 整備官府 自稱神聖 用任那左魯·那奇他甲背等計 殺百濟適夷爾解於爾林[爾林高麗地也]築帶山城守東道 斷運糧津 令軍削囚 百濟王大怒 遣領軍古爾解·內頭莫古解等 率衆趣于帶山攻 於是 生磐宿禰 進軍迎擊 膽氣益壯 所向皆破 以一當百 俄而兵盡力竭 知事不濟 自任那歸 由是 百濟國殺佐魯·那奇他甲背等三百餘人(顯宗 3傳)

\* 冬十二月 百濟遣使貢調 別表請任那國上叻喇下叻喇·娑陀·牟婁·四縣叻喇國守德積臣押山奏曰 此四縣近連百濟 遠隔日本 且暮易通 鷄犬難別 今賜百濟 合爲同國 固存之策 無以過此 然縱賜合國 後世猶危 況爲異場 幾年能守 大伴大連金村 具得是言 同讓而奏 迺以物部大連麤鹿火 宛宣勅使 物部大連 乃欲發向難波館 宣勅於百濟客 其妻固要曰 夫住吉大神 初以海表金銀之國 高麗·百濟·新羅·任那等 授記胎中誓田天皇 故大后息長足姬尊 與大武臣內宿禰每國初置官家 爲海表之藩屏 其來尙矣 抑有由焉縱割賜他 違本區域 締世之刺 誰離於口 大連報曰 宣勅合理 恐背天勅 其妻切諫云 稱疾莫宣 大連依諫 由是 改使而宣勅 付賜物并制旨 依表謂任那四縣大兄皇子 前有緣事 不關賜國 唯知宣勅 驚悔欲改令曰 自胎中之帝 置官家之國 輕隨蕃乞 輒爾賜乎 乃遣日鷹吉土改宣百濟客 使者答啓 父天皇 圖計使宜 勅賜既畢 子皇子 豈造帝勅 宏改而令 必是虛也 縱是實者 持杖大頭打 執與持杖小頭打痛乎 遂罷 於是 或有流言曰 大伴大連 與叻喇國守德積臣押山 受百濟之路矣(繼體 6傳)

\* 廿一年夏六月壬辰朔甲午近江毛野臣率衆六萬 欲往任那 爲復興建新羅所破南加羅喙已吞 而合任那 於是 筑紫國造磐井 陰謀叛逆 猶預經年 恐事難成 恒伺間隙 新羅知是 密行貨賂于磐井所 而勸防遏毛野 臣軍 於是 磐井掩據火豐二國 勿使修職 外邀海路 誘致高麗·百濟·新羅·任那等國年貢戰船 內造遣任那 毛野臣軍 亂語揚言曰 今爲使者 昔爲吾伴 摩肩觸肘 共器同食 安得率爾爲使 俾余自伏備前 遂戰而不 受 驕而自矜 是以 毛野臣 乃見防遏 中途淹滯 天皇詔大伴大連金村·物部大連麤鹿火 許勢大臣男人等曰 筑紫磐井反掩 有西戎之地 今誰可將者 大伴大連等僉曰 正直仁勇通於兵事 今無出於麤鹿火右 天皇曰 可(繼體 21傳)

\* 夏四月壬午朔戊子 任那王已能末多干岐來朝言己能末多者 蓋阿利斯等也]啓大伴大連金村曰 夫海表諸蕃 自胎中天皇 置內官家 不棄本土 因封其地 良有以也 今新羅 違元所賜封限 數越境以來侵 請 奏天皇 救助臣國 大伴大連 依乞奏聞(繼體 23傳)

\* (廿四年) 秋九月 任那使奏云 毛野臣 遂於久斯牟羅起造舍宅 淹留二歲[一本云三歲者 連去來歲數也] 欄聽政焉 爰以日本人與任那人類以兒息 諍訟難決 元無能判 毛野臣安置警湯曰 實者不欄 虛者必欄是以 投湯爛死者衆 又殺吾備韓子那多利·斯布利[大日本人 娶妻女所生 爲韓子也]恒惱人民 終無和解於是 天皇聞其行狀 遣人徵入 而不肯來 願以河內母樹馬飼首御符 奉詣於京而秦曰 臣未成勅旨 還入京鄉 勞往虛歸 愆惡安措 伏願 陛下 待成國命 入朝謝罪 奉使之後 更自誤曰 其謂吉土亦是皇華之使 若先吾取歸 依實案聞 吾之罪過 必應重矣 乃遣調吉土率衆于伊斯枳牟羅城於是阿利斯等知其細碎爲事不務所期 頻勸歸朝 尙不聽還 由是 悉知行迹 心生厭骨 乃遣久禮斯己母使于新羅請兵奴須久利使于百濟請兵 毛野臣聞百濟兵來 迎計背評[背評地名 亦名能備己富里也]傷死者半 百濟 則捉奴須久利柁城伽鎖 而共新羅圍城 責罵阿利斯等曰 可出毛野臣 毛野臣 嬰城自固 勢不可擒 於是 二國圖度使地 淹留 茲晦 築城而還 號曰久禮牟羅城還時觸路 拔鎖利牟羅·布那牟羅·牟離枳牟羅·阿夫羅·久知波多枳 五城(繼體 24傳)

8월
* 廿三年 春正月 新羅打滅任那官家[一本云 廿一年 任那滅焉 總言任那 別言加羅國·安羅國·斯二岐國·多羅國·卒麻國·古婁國·子他國·散半下國·乞浪國·稔禮國合十國](欽明 23년 1월)

\* 夏六月 詔曰 新羅西羌小醜 逆天無狀 違我恩義 破我官家 毒害我黎民 誅殘我郡縣 我氣長足 姬尊靈聖聰明 周行天下 勩勞群庶 養育萬民 哀新羅所窮見歸 全新羅王將戮之首 授新羅要害之地 崇新羅非次之榮 我氣長足 姬尊於新羅何薄 我百姓 於新羅何怨 而新羅 長欲強弩 凌贖任那 鉅牙鈎爪 殘虐含靈 劓肝斷趾 不厭其酷 曝骨焚屍 不謂其酷 任那族姓 百姓以還 窮刀極俎 既屠且膾 豈有率土之賓 謂爲王臣 乍食人之禾 飲人之水 孰忍聞此 而不悼心 況乎太子大臣 處跌尊之親 泣血銜怨之寄 當蕃屏之摩頂至踵之恩 世受前朝之德 身當後代之位 而不能灑膽抽腸 共誅姦逆 雪天地之痛酷 報君父之仇讐則死有恨 臣子之道不成(欽明 23년 6월)

\* 卅二年春三月戊申朔壬子 遣坂田耳子郎君 使於新羅 問任那滅由(欽明 32년 3월)

\* 夏四月戊寅朔壬辰 天皇寢疾不豫 皇太子向外不在 驛馬召到 引入臥內 執其手詔曰 朕疾甚 以後事屬汝 汝須打新羅 封建任那 更造夫婦 惟如舊日 死無恨之(欽明 32년 4월)

\* (四年) 秋八月庚戌朔 天皇詔群臣曰 朕思欲建任那 卿等何如 群臣奏言 可建任那官家皆同陛下所詔(崇峻 4년 8월)

\* 八年春二月 新羅與任那相攻 天皇欲救任那(推古 8년 2월)

\* (九年) 三月甲申朔戊子 遣大伴連嚙于高麗 遣坂本臣糠手于百濟 以詔之曰 急救任那(推古 9년 3월)

\* 秋七月新羅使人沙喙部奈末竹世士與任那使人喙部大舍智買 到于筑紫(推古 18년 7월)

\* 九月 遣使召新羅任那使人(推古 18년 9월)

\* 是歲 新羅伐任那 任那附新羅 於是 天皇將討新羅 謀及大臣 詢于群卿 田中臣對曰 不可急討 先察狀 以知道後擊之不晚也 請試遣使 觀其消息 中臣連國曰 任那是元我內官家 今新羅人伐而有之 請戒戎旅征伐新羅 以取任那 附百濟 寧非益有于新羅乎 田中臣曰 不然 百濟是多反覆之國 道路之間向許之 凡彼所請皆非之 故不可附百濟 則不果征焉 爰遣吉士磐金於新羅 遣吉士倉下於任那 令問任那之事 時新 羅國王 遣八大夫 啓新羅國事於磐金且啓任那國事於倉下因以約曰 任那小國 天皇附庸 何新羅軋有之 隨常定內官家 願無煩矣 則遣奈末智洗遲 副於吉士磐金復以任那人達率奈末遲 副於吉士倉下仍貢兩國 之調 然磐金等 未及于還 卽年 以大德境部臣雄摩侶·小德中臣連國爲大將軍 以小德河邊臣爾受 小德物部依網連乙等·小德波多臣廣庭·小德近江脚身臣飯蓋·小德平群臣宇志·小德大伴連[關名]·小德大宅臣 軍爲副將軍 率數萬衆 以征討新羅 時磐金等 共會於津 將發船以候風波 於是 船師滿海多至 兩國使人望瞻之愕然 乃還留焉 更代樞遲大舍爲任那調使而貢上 於是磐金等相謂之曰 是軍起之 旣違前期 是以任那之事 今亦不成矣 則發船而度之 唯將軍等 始到任那而議之 欲襲新羅 於是 新羅國王 聞軍多至而豫懼之請服 時將軍等 共議以上表之 天皇聽矣(推古 31년)

### 3. 기문국의 임나 소재 與否

기문국은 ‘임나의 소국’이라는 견해가 있다. 과연 기문국 즉 기문이 임나에 속해 있었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검증 결과 기문국이 임나에 속했다는 어떠한 근거도 추출할 수 없었다면, 임나를 기반으로 한 논의 전개는 더 이상 힘을 얻을 수 없다. 다음은 임나 관련 기록들이다. 과연 기문국이 임나에 속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한다.

* 임나4縣 <span> </span> : 任那國上哆唎下哆唎·婆陀·牟婁·四縣 哆唎國守德積臣押山奏曰 此四縣 <sup>9)</sup>
* 임나10國 <span> </span> : 임나가 멸망했다. 통털어서 임나라고 말한다. 개별적으로는 加羅國·安羅國·斯二岐國·多羅國·卒麻國·古婁國·子他國·散半下國·乞浪國·稔禮國이라고 말한다. 합해서 10國이다. <sup>10)</sup>

\* (백제가) 별도로 아뢰기를 “반과국이 臣의 나라 己汶의 땅을 약탈했습니다. 없드려 청하오니 天恩으로 관정하여 본국에 속하게 돌아오도록 해 주십시오”(계제 7년 6월 조).<sup>11)</sup>

위의 기사를 보면 반과국이 백제국의 땅 임나의 기문이라는 근거는 없다. 그러한 반과국이 백제와 기문국 영역을 놓고 갈등한 기사가 다음과 같이 보인다.

b-1. (백제가) 별도로 아뢰기를 “반과국이 臣의 나라 己汶의 땅을 약탈했습니다. 없드려 청하오니 天恩으로 관정하여 본국에 속하게 돌아오도록 해 주십시오”(계제 7년 6월 조). <sup>12)</sup>
---

b-2. 冬 11월 辛亥朔 을묘에 조정에서 백제의 姐彌文貴 장군, 斯羅의 汶得至, 安羅의 辛巳奚 및 貢巴委佐, 반과의 旣辰奚 및 竹汶至 등을 나란히 세우고 恩勅을 奉宣했다. 그리고 己汶·帶沙를 백제국에 내리주었다. 이 달에 반과국이 戡支를 보내 珍寶를 바치고, 己汶의 땅을 애걸하였다. 그러나 끝내 주지 않았다(계제 7년 11월 조 ).<sup>13)</sup>

b-3. 3월에 반과가 子吞·帶沙에 성을 쌓아 溝奚에 연결하였다. 烽候와 邸閣을 두어 일본에 대비했다. 또 爾列比·麻須比에 성을 쌓고, 麻且奚·推封에 연결하였다. 사졸과 무기를 모아 신라를 위협했다. 자녀를 몰아내 약탈하고, 村邑을 무자비하게 노략했다. 흉악한 기세가 가해지는 곳에 남는 게 드물었다. 대저 포악 사치하고, 괴롭히고 해치며, 침노하고 입신여기니, 배어죽인 게 너무 많아서 상제히 기제할 수가 없었다(계제 8년 3월 조).<sup>14)</sup>

b-4. 春 2월 甲戌朔 정축에 백제가 사자 文貴 장군 등이 귀국하려고 청했다. 이에 勅하여 그 아래 物部連〈關名〉을 딸려서 돌아가도록 보냈다[百濟本記에서는 物部至至連라고 한다]. 이 달[2월]에 沙都島에 이르러, 천하는바를 들으니 伴跋人이 (倭에) 원한을 품고 毒을 부리는데, 강한 것을 믿고 포악한 일을 자행한 까닭에, 物部連이 수군 500을 거느리고 곧바로 帶沙江에 들어왔다. 文貴 장군은 신라에서 돌아갔다. 夏 4월에 物部連이 帶沙江에 6일간 머물렀는데, 반과가 군대를 일으켜 가서 정벌했다. 들이닥쳐서 옷을 벗기고, 가진 물건을 강제로 빼앗고, 帷幕을 모두 불질렀다. 物部連 등은 두려워하며 달아났다. 겨우 목숨만 보존하여 汶羅羅[문모라는 섬 이름이다]에 배를 대었다(계제 9년 조).<sup>15)</sup>

- 『日本書紀』 권17, 繼體 6년 조. “冬十二月 百濟遣使眞調 別表請任那國上哆唎下哆唎·婆陀·牟婁·四縣 哆唎國守德積臣押山奏曰 此四縣 近連百濟 遠隔日本”
- 『日本書紀』 권19, 欽明 23년 정월 조. “廿三年 春正月 新羅打滅任那官家[一本云 廿一年 任那滅焉 總言任那 別言加羅國·安羅國·斯二岐國·多羅國·卒麻國·古婁國·子他國·散半下國·乞浪國·稔禮國 合十國]”
- 『日本書紀』 권17, 繼體 7년 조. “別奏云 伴跋國略奪臣國己汶之地 伏請 天恩判還本屬”
- 『日本書紀』 권17, 繼體 7년 조. “別奏云 伴跋國略奪臣國己汶之地 伏請 天恩判還本屬”
- 『日本書紀』 권17, 繼體 7년 조. “冬十一月辛亥朔乙卯 於朝廷引列百濟姐彌文貴將軍 斯羅汶得至 安羅辛巳奚及貢巴委佐 伴跋旣跋奚及竹汶至等 奉宣恩勅 以己汶帶沙賜百濟國 是月 伴跋國遣戡支 獻珍寶 乞己汶之地 而終不賜”
- 『日本書紀』 권17, 繼體 8년 조. “三月 伴跋築城於子吞帶沙 而連溝奚 置烽候邸閣 以備日本 得築城於爾列比 麻須比 而緡麻且奚·推封 聚士卒兵器以逼新羅 駭略女子剝掠村邑 凶勢加 罕有遺類 夫暴虐奢侈 惱害侵凌 誅殺尤多 不可詳載”
- 『日本書紀』 권17, 繼體 9년 조. “春二月甲戌朔丁丑 百濟使者文貴將軍等請罷 仍勅副物部連〈關名〉 遣罷歸之[百濟

b-5. 夏 5월에 백제가 前部 木菟不麻甲背를 보내 己汶에서 物部連 등을 맞이해 위로하며 인도해서 입국했다. 群臣이 각각 衣裳·斧鐵·帛布를 내어놓고, 國物을 보태 넣어서, 조정에 쌓아두고, 은근하게 위문했다. 賞과 祿이 보통보다 많았다. 秋 9월에 백제가 州利即次 장군과 그 아래인 物部連을 보내와서 己汶의 땅을 내려준 데 대해 사례했다(계체 10년 조).<sup>16)</sup>

b-6. 3월에 백제 왕이 下哆喇國守 穗積押山臣에게 말하기를 “대저 조공하는 사자들이 항상 섬의 돌출부를 피할때마다[마다 가운데 섬의 굽은 물가를 말한다. 세속에서는 美佐那라고 한다] 풍파에 고달픉니다. 이로 인하여 가지고 온 것을 적시고 모두 파괴하여 버리게 합니다. 그러니 加羅 多沙津을 臣이 조공하는 津路로 삼기를 요청합니다”고 하였다. 그러자 押山臣이 듣고 아뢰기를 청했다. 이 달 物部伊勢連父根과 吉士老 등을 보내 나무를 백제 왕에게 내렸다. 이에 가라 왕이 勅使에게 이르기를 “이 나무는 官家를 둔 이래, 臣이 조공하는 나무입니다. 어찌 쉽게 바뀌서 이웃나라에 주십니까? 원래 지역을 한정해, 봉해준 것을 어기는 것입니다”고 말하였다. 勅使 父根 등이 이로 인하여 앞에서 (다사진술) 주기가 어려워, 물러나 大島로 돌아왔다. 별도로 錄史를 보내 扶余에게 주었다. 이 때문에 가라가 신라와 결당해 일본을 원망했다(계체 23년 조).<sup>17)</sup>

위의 인용은 기문과 관련한 반과국과 백제와의 대립 관계, 나아가 왜와 신라의 개입으로 복잡해진 국제 정세를 읽을 수 있다. 위의 기사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지명이 ‘기문’이다.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기문국은 任那나 倭에 속하지 않았다. 반면 기문국은 백제와 반과국에 속한 적은 확인되었다.

#### 4. 임나 = 가야, 임나일본부설 인정하는 것인가?

임나와 가라 즉 가야를 동일시하는 것은 임나일본부설을 인정하는 견해로 받아들이는 곳도 있는 듯하다. 물론 임나=가야=임나일본부라는 등식은 아니겠지만 또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상정하는 경우도 있는 듯하다. 임나=가야를 동일시하는 게 과연 임나일본부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떠나, 임나와 가야의 동일성 여부 확인이 선결되어야 한다. 다음의 기사를 먼저 살펴 보는 게 좋겠다. 아래 인용에서 a 기사는 앞에서 인용한 바 있지만 본 논지 전개와 관련해 재인용하는 것이다.

本記云 物部至至連] 是月 到于沙都嶋 傳聞 伴跋人懷恨御毒 恃強縱虐 故物部連率舟師五百 直詣帶沙江 文貴將軍自新羅去 夏四月 物部連於帶沙江停住六日 伴跋與師往伐 逼脫衣裳劫掠所齋 盡燒帷幕 物部連等怖畏逃遁 僅存身命泊汶慕羅[汶慕羅 嶋名也]

16) 『日本書紀』 권17, 繼體 10년 조. “夏五月 百濟遣前部 木菟不麻甲背 迎勞物部連等於己汶 而引導入國 群臣各出衣裳斧鐵 帛布 助加國物 積置朝廷 慰問慰勞 賞祿優節 秋九月 百濟遣州利即次將軍 副物部連來 謝賜己汶之地”  
17) 『日本書紀』 권17, 繼體 23년 조. “春三月 百濟王謂下哆喇國守穗積押山臣曰 夫朝貢使者恒避嶋曲[謂海中嶋曲碍岸也 俗云美佐那] 每苦風波 因茲濕所齋 全壞無色 請以加羅多沙津爲臣朝貢津路 是以 押山臣爲請聞奏 是月 遣物部伊勢連父根 吉士老等 以津賜百濟王 於是 加羅王謂勅使云 此津從置官家以來 爲臣朝貢津涉 安得輒改賜隣國 違元所封限地 勅使父根等因斯難以面賜 却還大嶋 別遣錄史 果賜扶余 由是 加羅結儻新羅 生恐日本”

c-1. 426년 : 使持節都督 倭·百濟·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 七國諸軍事 安東大將軍 倭國王  
c-2. 451년 : 使持節都督 倭·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 六國諸軍事 安東將軍  
c-3. 478년 : 使持節都督 倭·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 六國諸軍事 安東大將軍 倭王<sup>18)</sup>

d. 이러한 신라는 진한·변한 24국 및 任那·加羅·慕韓의 땅에 있었다.<sup>19)</sup>

a-5. (新羅) … 遂致強盛 因襲加羅·任那諸國滅之<sup>20)</sup>

a-7. 지금 신라의 耆老들에게 물었더니 “加羅와 任那是 옛적에 신라에 멸한 바 되었다. 그 故地를 지금은 아울러 나라 남쪽 700-800리에 있다”고 말한다.<sup>21)</sup>

위에서 인용한 기사에 따르면 任那와 加羅는 분명히 구분되고 있다. 그러나 임나와 가라가 동일시 되거나 함께 표기되는 사례들이 다음 한국 관련 기록에서 보인다.

a-1. 「광개토왕릉비문」 : 任那加羅<sup>22)</sup>

a-2. 「일본서기」(성왕이 왜에 보낸 국서): 任那諸國<sup>23)</sup>

a-3. 「삼국사기」(강首의 자신 소개): 任那加良人<sup>24)</sup>

任那와 加羅를 별개의 정치체로 간주하는 기록도 있지만 포괄하는 개념으로 적시된 사례가, 그것도 한국측 사료에서 보이고 있다. 사료 속에 등장하는 任那와 加羅의 용례가 일관되지 않고 또 背馳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측 사료에 보이는 임나=加羅로 연결할 수 있는 사료에 대한 공감할 수 있는 해석이 전제되어야 할 것 같다.

#### 5. 일본 사료 속의 ‘上己汶’ 과 「양직공도」 ‘上巴文’ 의 동일 여부

##### 1) ‘上己汶’ 표기에 대한 對校

일본 사료 속의에 기록된 ‘上己汶’ 과 「양직공도」에 적힌 ‘百濟旁小國’ 의 일원인 ‘上巴文’ 의 동일 여부 문제에 대한 검증은 몹시 중요한 사안이다. 만약 양자가 동일하다면 기문국은 ‘임나의 소국’ 이 아니라 ‘백제의 소국’ 이 분명해진다. 의문의 입론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양자가 동일하지 않다면 일본 기록 속에서만 등장하는 기문국이 된다. 일본측의 논리와 사관, 그리고 허구로 가득찬 가공의 소국을 연상할 수 있다. 이

18) 『宋書』 권97, 夷蠻傳, 倭國 條.

19) 『翰苑』 蕃夷部 新羅. “此新羅有辰韓·卞韓二十四國及任那·加羅·慕韓之地也”

20) 『通典』 권185, 邊防1, 新羅.

21) 『翰苑』 蕃夷部, 新羅. “今訊新羅耆老云 加羅·任那 昔爲新羅所滅 其故地今並在國南七八百里”

22) 李道學, 『새롭게 해석한 광개토왕릉비문』, 서경문화사, 2020. 35쪽.

23) 『日本書紀』 권19, 欽明 15년 12월 조. “上表曰 百濟王臣明 及在安羅諸侯臣等 任那諸國早岐等奏 以斯羅無道 不畏天皇 與伯同心”

24) 『三國史記』 권46, 強首傳.

사안은 몹시 중요한 관계로 별도의 시각 자료를 토대로 양자의 동일 여부를 판단하게 하고자 한다.

기록을 보면 「양직공도」의 ‘上巴文’ 뿐 아니라, ‘上奇物’ (『삼국사기』)과 ‘基汶河’ (『翰苑』), 『新撰姓氏錄』의 ‘上巴汶’, 『續日本後紀』의 ‘己文’ 이 보인다. 이들 기사를 살펴보면 동일 여부를 확정하고자 한다.

e. 于勒所製十二曲 一曰下加羅都 二曰上加羅都 三曰寶伎 四曰達已 五曰思勿 六曰勿慧 七曰下奇物 八曰節子伎九曰居烈 十曰沙八兮 十一曰爾教 十二曰上奇物<sup>25)</sup>

f. 括地志曰 熊津河源出國東界 西南流 經國北百里 又西流入海 廣處三百步 其水至清 又有基汶河在 國 源出其國南山 東南流入大海 其中水族與中夏同<sup>26)</sup>

g. 임나국에서 아뢰기를 “臣의 나라 동북에는 三巴汶의 땅이 있습니다. 上巴汶·中巴汶·下巴汶입니다. 지방이 3백 리인데, 토지와 백성 또한 富饒합니다. 신라국과 더불어 서로 다투는데, 피차가 능히 다스리지 못하고 전쟁이 끊임없이 이어져서 백성들이 안심하고 살지를 못합니다. 臣은 장군에게 영을 내려 이곳을 다스리게 하여 귀국의 部가 되기를 청합니다”고 하자 …<sup>27)</sup>

h. 己未 … 右京人 左京亮 從5位上 吉田宿禰書主, 越中介 從5位下 吉田宿禰高世 등에게 興世朝臣의 성을 내려 주었다. 시조 鹽乘津은 倭人이었는데, 후에 나라의 명에 따라 三己汶에 가서 살았다. 그 땅은 마침내 백제에 예속되었다. 鹽乘津의 8세손인 달솔 吉大尙과 그의 아우 少尙 등은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 잇달아 우리 조정에 왔다. 대대로 의술을 전수하였고 아울러 문예에 통달하였다. 자손은 奈良京 田村里에 거주하였으므로 吉田連의 성을 주었다.<sup>28)</sup>

출전	국적	표기	비고
삼국사기	한국	上奇物	下奇物 존재! 上·中·下奇物
양직공도	중국	上巴文	梁代 일본 아님! 1077년 傳寫
한원	중국	基汶河	'기문'과 略 동일
일본서기	일본	己汶	
신찬성씨록	일본	上巴汶	
속일본후기	일본	三己文	三己文=上·中·下己文 / 신찬성씨록과 동일한 대상 지칭

『신찬성씨록』의 ‘巴汶’은 『續日本後紀』에 따라 ‘己文’으로 바로 잡고 있다.<sup>29)</sup> 869년에 저술된 『속일본후기』의 837년 해당 조목 三己汶은 상기문·중기문·하기문을 상징하는 게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일본 사료는 ‘上己汶’으로 표기 통일이 된다. 그리고 상기문 위치는 “三己汶에 가서 살았다. 그 땅은 마침내 백제에 예속되었다(h)”라고 했으므로 백제와 접했음을 알 수 있다. 중국 자료인 『한원』에서는 일본 문헌에서 가리키는 상기문에 해당하는 곳을 관류하는 하천으로 基汶河를 거론했다. 基汶河의 ‘基汶’은 상류에 소재한 기문을 가리키는 호칭으로 무리하지 않다. 양자 간의 연결 가능성을 상징할 수 있다.

25) 『三國史記』 권32, 樂.

26) 『翰苑』 蕃夷部 百濟. “括地志曰 熊津河源出國東界 西南流 經國北百里 又西流入海 廣處三百步 其水 至清 又有基汶河在國 源出其國南山 東南流入大海 其中水族與中夏同”

27) 『新撰姓氏錄』 左京皇別下, 吉田連. “大春日朝臣同祖 觀松彦香殖稻天皇[論孝昭] 皇子天帶彦國押人命四世孫彦國葺命之後也 昔磯城瑞籬宮御宇御間城入彦天皇御代 任那國奏曰 臣國東北有三己汶地[上己汶中己汶下己汶]地方三百里 土地人民亦富饒與新羅國相爭 彼此不能攝治兵戈相尋 民不聊生臣請將軍令治此地 卽爲貴國之部也 天皇大悅 敕群卿令奏應遣之人卿等奏曰 彦國昔命孫鹽垂津彦命 頭上有贊三岐如松樹”

28) 『續日本後紀』 권6, 仁明天皇 承化 4년 6월 己未 條. “己未 … 右京人左京亮從五位上吉田宿禰書主 越中介從五位下同姓高世等 賜姓興世朝臣 始祖鹽乘津 大倭人也 後順國命 往居三己汶地 其地遂隸百濟 鹽乘津八世孫 達率吉大尙其弟少尙等 有懷土心 相尋來朝 世傳醫術 兼通文藝 子孫家奈良京田村里 仍元賜姓吉田連”

29) 佐伯有清, 『新撰姓氏錄の研究 考證篇 第二』, 吉川弘文館, 1982, 29쪽.

『삼국사기』의 ‘上奇物’은 ‘下奇物’과 함께 등장하므로 3기문 지역을 가리킨다고 본다.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다. 더욱이 우륵의 가야금 12曲에 등장하는 지명이므로, 대가야와 연관된 지역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音似 표기나 傳寫 誤記로 인해 異記가 많이 나왔지만, 한국-중국-일본 자료에 보이는 해당 지역은 결국은 동일 지역일 가능성이 몹시 높다. 실제 「양직공도」에 등장하는 ‘叛波’를 『일본서기』에 적힌 ‘伴跛’와 동일시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일본 사료에 적힌 ‘上己汶’은 「양직공도」에 등장하는 ‘上巴文’과 동일한 대상일 가능성이 몹시 크다. 그렇지만 ‘上己汶’을 「양직공도」에 등장하는 ‘上巴文’과 별개의 세력일 가능성도 여전히 열어놓고 검증해 보고자 한다.

이렇듯 본 발표에서 아주 중요한 사료인 관계로 「양직공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련 자료를 분량이 다소 많기는 하지만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2) 「양직공도」의 사료적 성격과 종류

### (1) 「양직공도」의 제작 배경

무녕왕대와 관련해 빼 놓을 수 없는 자료가 「양직공도」이다. 「양직공도」의 ‘직공’은 貢賦 즉 貢物을 가리킨다. 『춘추좌씨전』 僖公 5년 조에 보면 “또 (虞나라의) 직공을 周王에게 바쳤다(且歸其職工於王)”고 했다. 『文選』 左思 吳都賦에서 “직공은 그 色匱를 바치는 것이다”고 하였다. 「양직공도」는 ‘梁에 공물을 바치는 그림’이라는 뜻이다.

「양직공도」는 중국 남조 양의 元帝인 蕭繹(505~554)이 帝位에 오르기 전인 荊州(湖北省 江陵)刺史로 재임할 때(526~539) 제작하였다. 그가 梁 武帝(502~549)의 재위 40년을 맞아 양에 사신을 보내 조공한 외국 사신의 모습과 관련 국가에 관한 정보를 담은 團卷이다. 양 무제 재위 40년은 541년이고, 소역의 형주자사 재임은 539년으로 끝나고 있다. 이로 볼 때 「양직공도」는 539년 어간에 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당시 중국은 남북조로 분열된 상황이었다. 이 중 漢人이 세운 정통 왕조로 자부했던 국가가 남조의 양이었다. 양의 현안은 북조 정권과의 갈등과 대립에서 대내외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는 문제였다. 더욱이 이때 북조 정권은 東魏와 西魏로 양분되어 있었다. 양으로서의 자국의 위세를 고양시킬 수 있는 절호의 국제적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이것을 놓치지 않고 양은 무제 치세의 절정기에 자국에 조공 온 술한 외국 사신들의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盛世를 과시하고자 했다. 그림으로써 양의 융창한 국력과 정통성을 대내외에 천명하고자 하였다. 「양직공도」의 제작 목적은 이 같은 배경에서 나왔던 것이다.

「양직공도」는 그림 재능이 특출한 소역이 양에 조공하러 온 외국 사신의 모습을 그려 놓은 후 각국에 대한 해설을 덧붙여 놓았다. 사신의 형상을 모두 左向側身으로 그렸다. 사신 모습의 원편에는 해서체로 標題를 적은 후 나라 이름을 필두로 지리 및 양과의 교섭과 풍속·인정 등을 기재하였다. 「양직공도」는 각국의 사신들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그린 긴 두루마리 형태의 그림책이다.



「양직공도」에는 당초 35개 나라의 사신과, 관련 국가에 관한 기록이 덧붙여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양직공도」의 밑 자료는 소역이 친교가 있던 裴子野(471~532)가 지은「方國使圖」를 기초로 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梁書』諸夷傳은 「양직공도」를 저본 삼아 서술하였다. 이렇듯 사료로서 「양직공도」의 값어치는 크다. 게다가 게재된 각국 사신의 肖像은 6세기 중국 주변 여러 나라 주민들의 용모와 복식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 이 점에서 도 「양직공도」는 매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 (2) 「양직공도」의 전송 과정

「양직공도」에 관한 서술은 중국의 여러 문헌에 나타난다. 가령 『藝文類聚』 권55에는 소역의 ‘職工圖序’가 수록되어 전한다. 『唐書』예문지에도 ‘양 원제 직공도 1권’이 기재되어 있다. 元代 이후 明·清代까지의 著錄에서는 「양직공도」를 唐의 闕立本이 그린 것으로 적었으나 오류이다. 「양직공도」는 淸初에 梁淸標가 收藏하다가 淸의 궁성에 들어 갔다. 淸의 마지막 황제 溥儀가 이것을 소장하여 만주까지 가지고 갔으나 잃어버렸다. 그러던 중 1960년에 南京博物院에서 宋代에 模寫한 「양직공도」의 殘部(13국 사신도)가 발견되었다. 「양직공도」에 적힌 각국 사신에 대한 기록은 『양서』諸夷傳과 서로 부합된다. 때로는 이보다 상세한 경우도 있다. 또 ‘元嘉’나 ‘永明’이니 하는 연호 앞에는 宋이나 齊와 같은 왕조 이름이 붙었다. 그러나 ‘普通’이나 ‘天監’ 혹은 ‘大通’과 같은 양의 연호 앞에는 모두 왕조 이름을 붙이지 않았다. 이 글이 당초 梁代에 쓰여졌음을 뜻한다. 다시 말해 현재 전하는 「양직공도」의 저본이 남조 양의 것임을 알려준다. 또 의도적으로 ‘胤’·‘玄’·‘敬’·‘弘’ 등의 글자가 쓰여져 있지 않다. 이 글자는 北宋의 황제인 趙匡胤·趙玄朗·趙敬·趙弘殷 등의 이름인 관계로 피한 것이다. 이러한 점은 남경박물관 소장 「양직공도」는 북송대에 模寫되었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 현재 전하는 「양직공도」는 宋의 熙寧 10년(1077)에 모사한 작품이다. 이것은 명주 위에 채색하였으며, 전체 크기는 가로 198Cm×세로 25Cm가 된다.

## 3) 「양직공도」백제국사 관련 釋文 분석

남경박물관 소장 「양직공도」의 백제국 사신의 모습 뒤편 즉, 그림의 왼편에는 백제의 역사와 풍속이 기록되어 있다. 이와 관련한 기록은 張安治 主編, 『中國美術全集』 회화권 1, 인민미술출판사, 1986을 저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판독했다.

百濟國使

a.百濟舊來夷 馬韓之屬 b.晉末駒麗略有遼東樂浪 亦有遼西晉平縣 c.自晉已來常修蕃貢 義熙中其王餘 腴宋元嘉中其王餘毗 齊永明中其王餘太 皆受中國官爵 梁初以太爲正東將軍 尋爲高句驪所破 普通二年其王餘隆遣使奉表云 累破高麗 d.治所城曰固麻 謂邑曰檐魯 於中國郡縣 有二十二檐魯 分子弟宗族爲之 e.旁小國有叛波·卓·多羅·前羅·斯羅·止迷·麻連·上巴文·下枕羅等附之 f.言語衣服器同高麗 行不張拱 拜不申足 以帽爲冠 襦曰復衫 袴曰禪 其言參諸夏 亦秦韓之遺俗

위의 기록은 普通 2년(521) 경까지 수집된 자료가 수록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양직공도」는 양 원제가 형주자사 재임시인 526년~539년 사이에 제작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양직공도」는 무제의 재위 40년인 541년에 맞추어 제작되었다. 그리고 백제 사신은 521년 이후에도 양에 파견된 바 있다. 가령 梁帝는 무녕왕의 사망 소식을 듣고는 524년에 조서를 내려 성왕을 책봉하였다. 물론 524년에 양국 간의 교섭 기사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백제에서 양에 무녕왕의 사망을 알렸기에 성왕의 책봉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렇다고 할 때 524년(성왕 2)과 더불어 『양서』에 기록된 534년(성왕 12)의 양국 간 교섭을 꼽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의 공주를 가리키는 ‘고마’라는 치소성에 관한 기록이 보이므로, 사비성 천도가 단행되는 538년 이전까지 양과의 교섭에 따른 정보가 수록되었다고 하겠다. 여기서 성왕대인 524년과 534년에 양과의 교섭이 있었고, 후자는 양 원제의 형주자사 재임 시기와 부합된다. 그림에도 성왕의 책봉 사실이 게재되지 않은 게 이상하지만 534년에 접촉한 백제 사신의 모습을 보고 그렸을 수 있다. 이러한 추정이 맞지 않다면 「양직공도」백제국사편은 배자아의 「방국사도」에 근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양직공도」기록은 다시금 629년~636년 어간에 요사림이 편찬한 『양서』의 밑 자료가 되었다.

그런데 위의 석문 가운데는 『양서』백제 조에 게재되지 않은 내용도 있다. a의 백제 기원에 관한 구절과 e의 백제 결의 소국에 관한 기사가 그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계기를 판독하는 과정에서 b의 요서경략 문구는 ‘백제’가 누락된 것으로 판단하여 補入하기로 했다. 이에 관한 검토는 뒤의 ‘요서경략설’에서 할 것이다. c의 ‘自晉已來’는 ‘自晉已來’로 수정하였다. ‘正東將軍’은 ‘彳’ 부가 지워진 게 아니라 잘못 적힌 것이므로 ‘征東將軍’으로 고쳤다. d의 ‘檐魯’은 『양서』의 해당 조목과 관련해서 검토한 결과 ‘檐魯’의 오자로 판단되었기에 고쳤다. 그리고 ‘於中國郡縣’은 이 구절만으로는 명료한 해석이 되지 않는다. 『양서』의 “중국에서 군현을 말하는 것과 같다(如中國之言郡縣也)”는 구절과 관련지어 볼 때 ‘如’字가 누락된 것으로 판단되어 보입했다. e의 ‘上巴文’은 『일본서기』기록과 결부지어 볼 때 ‘上巴文’의 잘못된 표기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른 『양직공도』의 새로 판독한 관련 석문은 다음과 같다. 물론 이 항목에서는 ‘上巴文’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더

라도 논지에는 변동이 없다. 왜 ‘上巳文’이 아니고 ‘上己文’이 타당한지는 발표장에서 보여드릴 시각 자료를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다.

百濟國使

a.百濟舊來夷 馬韓之屬 b.晉末駒麗略有遼東樂浪 (百濟)亦(略)有遼西晉平縣 c.自晉已來常修蕃貢 義熙中其王餘曠 宋元嘉中其王餘毗 齊永明中其王餘太 皆受中國官爵 梁初以太爲征東將軍 尋爲高句驪 所破 普通二年其王餘隆遣使奉表云 累破高麗 d.治所城曰固麻 謂邑曰 檐魯 於中國(加)郡縣 有二十二檐魯 分子弟宗族爲之 e.旁小國有叛波·卓·多羅·前羅·斯羅·止迷·麻連·上己文·下枕羅等附之 f.言語衣服 畧同高麗 行不張拱 拜不申足 以帽爲冠 襦曰複衫 袴曰裋 其言參諸夏 亦秦韓之遺俗

위에 소개한 새로운 석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부연 설명은 앞에서 하였기에 석문 자체에 대한 해석만 수록하였다.

a. 백제는 옛날의 來夷로 마한의 부리이다. b. 晉末에 고구려가 요동의 樂浪을 차지하자, (백제) 역시 요서의 晉平縣을 (차지함)이 있었다. c. 晉 이래로부터 항상 藩屏의 조공을 닦았다. 義熙(405-418) 중에 그 왕 餘曠(전지왕), 宋 元嘉(424-453) 중에는 그 왕 餘太(비유왕), 齊 永明(483-493) 중에는 그 왕 餘太(동성왕)가 모두 중국 관작을 받았다. 양 초에 太(동성왕)가 征東將軍이 되었다. 이어 서 고구려에 격파된 바 되었다. 普通 2년(521)에 그 왕 餘隆이 사신을 보내어 表를 받들어 “여러 차례 고구려를 격파했다”고 말했다. d. 治所城을 固麻라고 한다. 邑을 일컬어 檐魯라고 말한다. 중국 郡縣과 같은데 22달로가 있으며, 子弟宗族을 나누어서 이곳에 있게 했다. e. 곁에 小國으로 叛波·卓·多羅·前羅·斯羅·止迷·麻連·上己文·下枕羅 등이 있는데 백제에 부용되었다. f. 언어와 의복은 대략 고구려와 같다. 길을 때 광장을 풀지 않으며, 절할 때는 다리를 퍼지 않는다. 모자를 冠이라 하고, 저고리를 複衫, 바지를 裋이라고 한다. 그 나라 말에는 여러 시기의 중국 말이 섞여 있으니 역시 秦韓의 유풍이다.

4) 「양직공도」 백제 곁의 소국들

앞에서 석문한 「양직공도」 백제국사 원문 가운데 c는 백제와 중국 역대 왕조와의 관계를 적어 놓은 구절이다. 晋代 이래로 송과 남제, 그리고 양에 이르기까지 백제왕들이 중국의 관작을 받았음을 밝혔다. 즉 전지왕[餘曠]·비유왕[餘毘]·동성왕[餘太]·무녕왕[餘隆]이 언급되었다. 특히 보통 2년(521)에 무녕왕이 양에 여러 차례 고구려를 격파한 사실을 알렸음을 적었다. 백제의 국력이 회복되었음을 천명한 것이다. 요컨대 C에는 전지왕대부터 무녕왕대까지 백제와 남조 역대 정권과의 관계사가 수록되었다.

d는 백제의 王城이 ‘고마성’으로 일컬어졌음을 알려준다. 당시 공주 공산성 일원을 ‘곰성’ 즉 熊城으로 표기하였음을 말한다. 그리고 교통과 경제 및 군사적 요충지에 왕족을 파견하여 통치하는 담로체제에 관한 서술이 보인다. 이 구절은 백제의 지방통치 체제와 관련한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된다.

e는 백제 곁에 소재하면서 부용된 9개의 소국 명단이다. 이는 형식상 일종의 백제 위성국가를 말한다. 여기서 ‘반파’는 경상북도 고령 지역의 대가야를 가리킨다고 보는 견해가 많지만 그렇지 않다. 일단 ‘旁小國’ 명단에서 단연 주목을 끄는 대상은 반파와 사라이다. 사라는 주지하듯이 신라를 가리킨다. 문제는 논의의 중심인 叛波이다. 반파는 『일본서기』에 등장하는 伴波가 분명하지만 加羅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이와 관련해 ‘백제 곁

의 소국’으로 신라가 소개되었을 때는 어떤 기준이 있었다고 본다. 신라는 당시 백제 곁의 소국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 우선 신라는 백제와 동맹을 맺은 대등한 관계였다. 그러한 선상에서 동성왕은 신라 이찬 비지의 딸과 혼인하였다. 비록 521년에 신라는 백제 사신을 따라 양에 조공했다.<sup>30)</sup> 그렇지만 1년 전인 520년에 신라는 율령을 반포하고 공복을 제정하였다. 국가체제가 정비된 것이다. 이러한 신라는 주변의 소국들과는 위상이 현저히 달랐다. 백제 곁의 소국인 이들 제국과는 동렬에 설 수 없는 높은 위상을 지녔다. 그럼에도 ‘소국’ 반열에 든 것은 중국을 기준해서 볼 때 책봉받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신라는 565년(진흥왕 26)에 와서야 처음으로 중국의 北齊로부터 ‘使持節·東夷校尉·樂浪郡公·新羅王’에 책봉되었다.<sup>31)</sup> 바로 그 시점으로부터 무려 40여년 전에 신라 사신이 백제 사신을 따라 양에 조공한 것이다. 이 때 신라 사신의 모습은 “하는 말은 백제가 도와준 후에야 통했다”<sup>32)</sup>고 하였다. 백제 사신의 통역을 통해야만 신라 사신의 의사가 전달될 수 있었다고 한다. 신라는 381년(나물니사금 26)에 衛頭를 前秦에 보내 부견왕에게 조공한 바 있었다.<sup>33)</sup> 이 때 신라의 국호 변천을 비롯한 최소한의 기본 정보가 남겨져 『양서』에 수록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양서』는 521년 시점에서 무려 1백여 년이 지난 629년에야 편찬이 시작되었다. 신라에 대한 정보가 梁朝에 전해지지 못한 연유이다.

당시까지 신라는 중국 역대 왕조로부터 책봉된 적이 없었다. 책봉은 황제권을 위임받아 관할 지역을 통치하는 형식이었다. 그러나 신라는 책봉받은 바 없었기에, 황제로부터 위임 받은 게 없었다. 그랬기에 백제로서는 중국 왕조로부터 책봉되지 않은 신라를 자국 곁의 ‘소국’으로 취급한 것이다. ‘旁’에는 ‘의지함’의 뜻도 담겨 있다. 그러므로 ‘방소국’은 ‘백제에 의존하는 소국’ 즉 위성국이라는 의미였다. 실제 ‘附之’라고 하여 백제의 부용국임을 선언했다. 이와 관련해 삼국시대 백제와 신라의 책봉 사실을 다음과 같이 비교해 보았다.

<백제>

연대	왕/ 중국 왕조	관위
372년	근초고왕 27년, 동진	鎮東將軍·領樂浪太守
416년	전지왕 12년, 동진	使持節·都督百濟諸軍事·鎮東將軍·百濟王
425년	구이신왕 6년, 유송	使持節·都督·百濟諸軍事·鎮東大將軍·百濟王
430년	비유왕 4년, 유송	使持節·都督百濟諸軍事·鎮東將軍·百濟王
457년	개로왕 3년, 유송	鎮東大將軍
490년	동성왕 12년, 남제	鎮東大將軍·百濟王
521년	무녕왕 21년, 양	使持節·都督百濟諸軍事·寧東大將軍
524년	성왕 2년, 양	使持節·都督百濟諸軍事·綏東將軍·百濟王
570년	위덕왕 17년, 북제	使持節·侍中·車騎大將軍·帶方郡公·百濟王
571년	위덕왕 18년, 북제	使持節·都督東靑州諸軍事·東靑州刺史
581년	위덕왕 28년, 수	上開府儀同三司·帶方郡公
624년	무왕 25년, 당	遣使就冊爲帶方郡王·百濟王
641년	의자왕 1년, 당	柱國·帶方郡王·百濟王

30) 『南史』 권79, 동이전, 신라 조. “魏時曰新盧 宋時曰新羅 或曰斯羅 隨百濟奉獻方物”  
 31) 『三國史記』 권4, 진흥왕 26년 조. “春二月 北齊 武成皇帝詔 以王爲使持節·東夷校尉·樂浪郡公·新羅王”  
 32) 『梁書』 권54, 동이전, 신라 조. “語言侍百濟而後通焉”  
 33) 『三國史記』 권3, 나물니사금 26년 조. 『太平御覽』 권781, 동이전, 신라 조.

<신라>

연대	왕/ 중국 왕조	관위
562년	진흥왕 26년. 북제	使持節·東夷校尉·樂浪郡公·新羅王
594년	진평왕 16년. 수	上開府·樂浪郡公·新羅王
624년	진평왕 46년. 당	柱國·樂浪郡公·新羅王
635년	신덕왕 4년. 당	柱國·樂浪郡公·新羅王
647년	신덕왕 1년. 당	柱國·樂浪郡王
654년	태종 무열왕 1년. 당	開府儀同三司·新羅王
662년	문무왕 2년. 당	開府儀同三司·上柱國·樂浪郡王·新羅王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백제 ‘방소국’의 ‘반과’가 가라와 동일한 대상이라면 책봉된 적이 없어야 한다. 물론 백제가 의도적으로 가라를 폄칭하여 ‘반과’로 표기할 수는 있다. 만약 그렇다면 가라라는 국가를 거느린 백제의 국제적 위상은 반감되는 것이다. 가라의 존재는 양에서 인지하여 백제의 위상을 오히려 과시할 수 있는 기제였다. 당시 백제는 기실 자국과 국력이 비등한 신라 사신을 대동하여 양에 조공했다. 그럼으로써 백제는 자국의 위상을 양에 전달하고, 또 무녕왕의 관작을 상향시키는 기제로 활용하였다. 이 때 백제는 “여러 차례 고구려를 격파했다”고 호언했다. 그 결과 백제가 “다시금 강국이 되었다”는 평가를 양으로부터 받았다. 백제는 복구된 국가적 위상을 양에 보여 주고자 노력하였다. 그러한 차원에서 ‘百濟旁小國’을 등장시켰던 것 같다. 이 가운데 가장 강대한 신라의 사신을 대동함으로써 백제 자국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였다. 특히 약소국이 아닌 신라의 사신을 데리고 옴으로써 8개 소국도 그에 준하는 국가 썸으로 인식하게 하여 백제의 위상을 높이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백제는 가라를 고의로 폄칭시켜 전혀 인지할 수 없는 국호인 ‘반과’로 표기했을 가능성은 없었다고 본다. 따라서 반과는 가라 즉 대가라일 가능성은 없다.

가라는 신라보다 훨씬 이전인 479년에 가라왕 荷知가 남제로부터 ‘輔國將軍·本國王’에 책봉되었다.<sup>34)</sup> 가라는 웅진성 천도 후 백제 정정의 혼란을 틈타 백제 영향권에서 이탈하여 남제와 직접 통교한 것이다.<sup>35)</sup> 가라는 신라보다 무려 86년이나 일찍 책봉을 받았다. 중국 역대 왕조로부터 책봉된 국가를 백제가 ‘소국’으로 양에 거론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더구나 양은 남제를 계승한 국가였다. 그러한 남제로부터 가라 왕은 책봉되었다. 책봉은 백제 왕이 중국 황제에 신속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황제에 신속된 가라가 백제의 부용국으로, 그것도 중국에 공적으로 알려질 수는 없는 문제였다. 더구나 폄칭을 사용한 국호로 등장한다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요컨대 남제로부터 책봉된 가라는 중국의 신속국이 될 수는 있었다. 이러한 사례로는 왜왕 武가 유송에 ‘使持節都督倭百濟新羅任那加羅秦韓韓七國諸軍事安東大將軍倭國王’을 자칭하며 제수를 요청한 건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武는 478년에 ‘使持節都督倭新羅任那加羅秦韓韓六國諸軍事安東大將軍倭王’에 제수되었

다.<sup>36)</sup> 무가 요청한 ‘七國諸軍事’는 ‘六國諸軍事’로 바뀌었고 백제가 삭제되었다. 劉宋은 왜가 요구한 백제의 軍政權을 인정해주지 않았다는 것이다.<sup>37)</sup>

왜의 한반도 남부에 대한 영향력 행사라는 전제하에서 제기된 이러한 주장에 앞서 확인할 부분이 있다. 백제는 478년에서 각각 21년 전과 48년 전인 457년과 430년에, 이미 유송으로부터 책봉된 바 있었다. 당연히 유송으로서의 왜왕 무의 관할 국가라는 백제를 인정할 수 없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양이 가라를 백제의 소국, 즉 부용국으로 인정할 수 없었을 것이다. 실제 백제의 ‘방소국’ 가운데 국왕이 중국에 책봉된 경우는 없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가라를 반과로 폄칭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만약 그렇다면 가라가 지닌 위상을 반영할 수가 없다. 그리고 가라를 굳이 백제의 부용국으로 명시할 이유가 없게 된다. 반과는 지금의 전라북도 장수 지역을 가리킨다.<sup>38)</sup>

그리고 ‘탁’은 『일본서기』의 卓淳國으로서 경상남도 창원에 소재하였다. ‘다라’는 경상남도 함천에 소재했다. ‘진라’는 그 위치를 압록국이 소재한 경상북도 경산이나 함안의 安羅로 비정하지만 분명하지 않다. ‘사라’는 신라를 가리킨다. 이 점 『양서』 신라 조에서 “혹은 斯羅라고 한다”고 한 기사에서 당시 ‘사라’ 표기를 확인할 수 있다. ‘지미’는 『신찬성씨록』 河內國皇別 조에 보면 백제에 파견된 왜장이 ‘止美’의 吳女를 취한 기사가 있다. 지미는 곧 이 ‘지미’로 보인다. 더욱이 ‘지미’는 ‘백제 결의 소국’의 경우 폄칭된 국명을 사용한 사례와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지미’는 369년에 백제 근초고왕이 경략한 枕彌多禮의 ‘침미’와 음이 닮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미는 전라남도 해남으로 비정된다. ‘마련’은 그 소재지를 알 수 없지만 『삼국지』 변진 항에서 변한 소국의 하나인 馬延國과 음이 닮았다. 이곳을 경상남도 밀양으로 비정하기도 한다. ‘상기문’은 전라북도 임실 일대로 비정되고 있다. ‘하침라’는 전라남도 강진으로 지목하지만 명확하지 않다.

백제 결의 9개 소국이 등장하게 된 시점은 백제가 신라 사신을 데리고 양에 동반 입조한 521년의 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양서』에 최초로 신라 조가 구비될 수 있었다. 그러나 신라의 후진성이 과장되게 기록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가령 “그 나라는 작아서 스스로 사신을 보낼 수 없었다” · “문자가 없으므로 나무를 새겨 신표를 삼는다” · “의사는 백제(인)을 기다린 후에야 소통하였다”는 기사가 그것이다. 신라를 제외한 나머지 8국은 백제 사신을 따라 동반 입조한 것은 아니었다. 8국은 백제와 갈등을 빚거나 백제로부터의 이탈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로 볼 때 백제는 ‘백제 결의 소국’을 양에 통보함으로써 이들 소국에 대한 지배권을 공인받는 한편, 자국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키려 한 것으로 보인다. 역설적으로 ‘대국’ 백제의 불안한 심사가 깔려 있는 소국 명단인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백제에 부용된 적이 있는 소국들을 죄다 망라해서 전성기의 위상을 보여주었다. 그럼으로써 국가적 위상을 만회하려는 열망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백제는 521년에 사신을 양에 파견하여 “여러 차례 고구려를 격파했다”고 호언하였다. 그 결과 백제가 “다시금 강국이 되었다”는 평가를 양으로부터 받았다. 백제는 복구된 국가적 위상을 양에 보여

34) 『南齊書』 권58, 東南夷傳, 加羅國. “加羅國 三韓種也 建元元年 國王荷知 使來獻 詔曰 量廣始登 遠夷治化 加羅王 荷知款關海外 奉贊東遐 可授輔國將軍·本國王”

35) 李道學, 「漢城末·熊津時代 百濟 王位繼承과 王權의 性格」 『韓國史研究』 50·51合輯, 1985; 『백제한성·웅진성시대연구』, 一志社, 2010, 307쪽.

36) 『宋書』 권97, 동이전, 왜국 조.

37) 川崎晃, 「倭王武の上表文」 『東アシア世界の成立』, 吉川弘文館, 2010, 324쪽.

38) 李道學, 「伴跋國 位置에 대한 論議」 『역사와 담론』 90, 2019, 64·65쪽.

주고자 노력하였다. 그러한 차원에서 ‘백제 결의 소국’을 등장시켰던 것 같다. 이 가운데 가장 강대한 신라의 사신을 대동함으로써 백제 자국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였다. 특히 약소국이 아닌 신라의 사신을 데리고 옴으로써 8개 소국도 그에 준하는 국가 쯤으로 인식하게 해서 백제의 위상을 높이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이다. 그 결과 무녕왕은 자신의 장군호를 동성왕이 수작한 제3품의 정동장군보다 높은 제2품의 진동대장군으로 올려받을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백제 결의 소국’ 관련 기록이 정작 『양서』 백제 조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는 ‘소국’ 기록이 실제적인 의미를 지니기는커녕 백제의 허장성세로 평판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521년 이후 ‘백제 결의 소국’들의 이탈이 극심했다. 게다가 이제 교섭의 물꼬가 터진 양을 비롯한 남조 정권들이 신라의 위상을 재확인했기 때문일 것이다.

‘백제 결의 소국’ 식의 표기는 물론 「양직공도」에 보이는 入貢使의 소속 국가 관련 일반적인 서술 체제였다. 그렇지만 백제는 주지하듯이 독자적인 천하관을 지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가령 백제는 자국 남부의 정치 세력을 ‘南蠻’이라는 화이적인 세계관을 빌어와서 호칭하였다. ‘백제 결의 소국’은 백제적인 천하관의 산물이었다. 다만 중국과의 조공 관계로 인해 ‘△△ 등이 (백제에) 부용되었다’는 부용국으로 표기되었을 뿐이다.<sup>39)</sup>

## 6. 基汶河유역의 己汶 소재 與否

江名과 都市名이 불가분의 관련을 맺는 경우가 적지 않다. 중국의 경우 洛陽은 洛水 북쪽에 위치했는데, 周公이 王城을 조영한 땅이었다. 東周가 이곳에 도읍하였고, 後漢·西晉·後魏·隋·五代 등도 모두 이곳에 의거하였다.<sup>40)</sup> 漢魏 낙양성과 隋唐 낙양성은 별개의 공간에 소재했다. 그럼에도 兩者는 남쪽으로 洛河를 끼고 있다. 이 사실은 낙양성 조성에 江水가 필수적 요소임을 웅변해준다.<sup>41)</sup> 조선의 왕도 漢陽도 漢水 북쪽에 소재하였기에 그 같은 도시 이름이 생겨난 것이다.

백제의 경우도 江名에서 都市名이 유래하였다. 금강을 웅천으로 일컫는 적이 있다. 이는 웅진성 혹은 웅천성이었던 王都名이 江名에 투사된 것이다. 사비성인 扶餘 지역을 통과하는 구간의 江名을 사비하나 白江으로 일컬었다.<sup>42)</sup> 여기서 泗泚河나 白江은 동일한 강을 가리키고 있다. 白江의 ‘白’의 訓讀은 ‘스뵈’이므로 泗泚江을 가리킨다.<sup>43)</sup> 반면 ‘스

39) 이도학, 「『梁職貢圖』의 百濟使臣圖와 題記」 『무녕왕과 무령왕릉』, 학연문화사, 2020, 257~294쪽.

40) 諸橋徹次, 『大漢和辭典』 권6, 大修館書店, 1985, 1095쪽.

41) 낙양성과 江水의 관련에 대해 端鵬琦, 『漢魏洛陽故城』, 文物出版社, 2009, 158~173쪽에서 치밀하게 서술되어 있다.

42) 白馬江이라는 江名이 泗泚 즉 所夫里를 통과하는 데서 유래했음은 成周鏞, 『百濟 泗泚城研究』 『百濟研究』 13, 1982, 11~12쪽.

43) 도수희, 『백제의 언어와 문학』, 주류성, 2005, 176쪽.

뵈’의 譯語는 ‘白’이 된다. 그러면 백제가 웅진성에 도읍하던 시기에는 금강을 어떻게 일컬었을까? 앞에서 결론을 미리 내렸지만 다음 기사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e. 13년(491) 여름 6월에 웅천의 물이 불어 王都의 2백여 家를 떠내려 보내거나 가라앉혔다.<sup>44)</sup>

위의 e를 보면 웅진성에 도읍하던 시기의 금강에 대한 호칭으로 웅천이 보인다. 그러한 금강을 웅진성과 사비성을 통과하는 구간에 따라 웅천이나 백강으로 각각 달리 일컫은 것 같다. 다음 기사를 보자.

f. 5월에 서울 서남쪽 사비하에서 큰 고기가 나와 죽었는데 길이가 세 길이었다.<sup>45)</sup>

g. 20년 봄 2월에 王都의 우물이 핏빛으로 변했다. 서해에 조그만 물고기들이 나와 죽었는데 백성들이 모두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泗泚河 물이 붉기가 핏빛 같았다...6월에 왕흥사의 여러 중들이 모두 배의 돛대와 같은 것이 큰 물을 따라 질 문간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들사 승 같은 개 한 마리가 서쪽으로부터 사비하 언덕에 와서 왕궁을 향하여 갔더니 잠시 후에 행방이 묘연해졌다.<sup>46)</sup>

위의 f와 g에 따르면 백제 멸망 조짐과 관련해 ‘泗泚河’가 보인다. 사비하는 말할 나위 없이 사비성 구간을 통과하는 금강을 가리킨다. 王都名과 江名이 연계된 것이다. 이는 다음의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h. 37년(636)~3월에 왕은 측근의 신하를 거느리고 泗泚河의 북쪽 갯가에 잔치를 베풀고 놀았다. 양쪽 언덕에 기이한 바위와 괴이한 돌이 뒤섞여서 있고, 그 사이에 기이한 꽃과 이상한 풀들이 있어 마치 그림 같았다. 왕은 술을 마시고 즐거움이 극도에 달하여 거문고를 타고 스스로 노래를 부르니 從者들은 번갈아 춤을 추었다. 당시 사람들은 그 곳을 大王浦라 했다.<sup>47)</sup>

지금까지의 인용에 따르면 금강을 통과하는 구간에 따라 웅천과 사비하로 각각 일컬었음을 알 수 있다. e는 백제가 웅진성에 도읍하던 시기이고, fgh는 사비성에 도읍하던 시기의 江名이기 때문이다.<sup>48)</sup>한강을 일컫는 아리수·옥리하 구간의 도시 명이 위례성이었다. 이와 관련해 『환원』에서 『괄지지』를 인용한 백제의 江에 대한 다음 서술이 유의된다.

i-1. 웅진하의 근원은 나라 東界에서 나와 서남으로 흐르다가, 나라 북쪽으로 백리를 지나, 또 서쪽으로 흘러 바다에 들어간다. 넓은 곳은 300보이며, 그 물은 지극히 맑다.

i-2. 또 基汶河가 나라에 있다. 근원은 그 나라 남쪽의 산[南山]에서 나와 동남으로 흘러 大海에 들어간다. 강 안의 水族들은 중국과 동일하다.<sup>49)</sup>

44) 『三國史記』 권26, 東城王 13년 조. “夏六月 熊川水漲 漂沒王都二百餘家”

45) 『三國史記』 권28, 義慈王 19년 조. “春二月 衆狐入宮中 一白狐坐上佐平書案 夏四月 太子宮雉與小雀交 遣將侵新羅獨山·桐岑二城 五月 王都西南泗泚河 大魚出死 長三丈”

46) 『三國史記』 권28, 義慈王 20년 조. “春二月 王都井水血色 西海濱小魚出死 百姓食之 不能盡 泗泚河水赤如血色... 六月 王興寺衆僧 皆見若有船楫 隨大水入寺門 有一犬狀如野鹿 自西至泗泚河岸 向王宮吠之 俄而不知所去”

47) 『三國史記』 권27, 武王 37년 조. “三月 王率左右臣寮 遊燕於泗泚河北浦 兩岸奇巖怪石錯立 間以奇花異草 如畫圖 王飲酒極歡 鼓琴自歌 從者屢舞 時人謂其地爲大王浦”

48) 이상의 서술은 李道學, 『白江戰鬪의 位置 확인에 대한 接近』 『韓國古代史探究』 25, 2017, 385~387쪽에 의하였다.

49) 『翰苑』 蕃夷部 百濟. “括地志曰 熊津河源出國東界 西南流 經國北百里 又西流入海 廣處三百步 其水 至清 又有基汶河在國 源出其國南山 東南流入大海 其中水族與中夏同”

위의 기사에 보이는 基汶河는 곧 己汶河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기문하를 끼고서 상기문·중기문·하기문으로 지역을 구분했다고 본다. 역시 강 이름에서 지역 명이 유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三國史記』 『宋書』 『南齊書』 『梁職貢圖』 『翰苑』 『通典』 『日本書紀』 『新撰姓氏錄』 『續日本後紀』

端鵬琦, 『漢魏洛陽故城』, 文物出版社, 2009.  
 도수희, 『백제의 언어와 문학』, 주류성, 2005.  
 李道學, 『백제한성-웅진성시대연구』, 一志社, 2010.  
 李道學, 『새롭게 해석한 광개토왕릉비문』, 서경문화사, 2020.  
 이도학, 『무녕왕과 무령왕릉』, 학연문화사, 2020.  
 佐伯有清, 『新撰姓氏錄の研究 考證篇 第二』, 吉川弘文館, 1982.  
 諸橋轍次, 『大漢和辭典』 권6, 大修館書店, 1985.

成周鐸, 『百濟 泗泚城研究』 『百濟研究』 13, 1982.  
 李道學, 『漢城末・熊津時代 百濟 王位繼承과 王權의 性格』 『韓國史研究』 50・51合輯, 1985.  
 李道學, 『伴跋國 位置에 대한 論議』 『역사와 담론』 90, 2019.  
 川崎晃, 『倭王武の上表文』 『東アジア世界の成立』, 吉川弘文館, 2010.  
 하승철, 『‘전북지역 가야역사의 부각과 가야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활용’에 대한 토론편』 『전북지역 연구의 회고와 새로운 지평(2)』 전라북도, 2021.10.22.

7.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 본 결과 비록 윤색 가능성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任那는, 성왕의 발언에도 ‘任那諸國’이라고 하여 등장하였다. 그리고 「광개토왕릉비문」과 「진경대사비문」뿐 아니라 『삼국사기』 강수전에서도 적혀 있었다. 任那와 加羅 즉 加良은,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금관가야를 임나라고 그 후손들이 일컫지 않았던가?

본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上己汶과 上巳文의 동일 여부였다. 여러 자료를 치밀하게 검토해 본 결과 양자는 동일한 지역을 가리킨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한 기문국은 임나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었다. 기문국은 백제 영역이었다가 반파국이 장악한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반파국은 倭의 침공에 대비하여 烽候와 邸閣 즉 봉화대와 창고를 설치하였다.

분명한 것은 기문국은 백제나 반파국의 지배를 받은 적은 있었지만, 倭의 지배를 받은 적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문국이 임나 문제에 섞일 이유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해 둔다. 기문국은 任那4縣이나 任那10國, 倭가 격파했다는 7國 등 그 어디에도 任那라는 이름은 물론이고 倭에도 속하지 않았다. 따라서 ‘임나의 기문국’이나 ‘임나 소국 기문’은 공상의 용어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 고고자료로 본 전북 동부 가야문화

곽장근(군산대학교)

### < 목차 >

- I. 머리말
- II. 남강유역 가야 역동성과 기문국
- III. 금강유역 가야 봉화망과 반과국
- IV. 섬진강유역 백제와 가야의 공존
- V. 맺음말

### I. 머리말

조선 영조 때 실학자이자 지리학자 신경준에 의해 편찬된 전통지리서가 『산경표(山經表)』<sup>1)</sup>이다. 금남정맥(錦南正脈)과 호남정맥(湖南正脈)이 전북을 동부의 산악지대와 서부의 평야지대로 갈라놓는다. 백두대간(白頭大幹) 영취산에서 주화산까지 서북쪽으로 뻗은 금남호남정맥(錦南湖南正脈) 산줄기가 전북 동부를 북쪽의 금강과 남쪽의 섬진강 분수령을 이룬다.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동쪽에 남강유역 운봉고원(雲峰高原)과 서쪽에 금강유역 진안고원(鎭安高原)이 위치해 있으며, 백두대간과 금남호남정맥, 호남정맥이 섬진강유역 경계를 이룬다.

일제강점기부터 지명의 음상사와 입실 금성리에서 나온 유개장경호(有蓋長頸壺), 대가야 섬진강 루트에 근거를 두고 전북 동부를 하나의 권역으로만 설정하고 대가야의 변경 혹은 지방으로 비정된 견해<sup>2)</sup>가 큰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전북 동부는 하나의 문화권 및 생활권으로 묶기 어려울 정도로 전형적인 산악지대를 이루고 있으며, 수계상으로도 금강과 남강, 섬진강, 만경강유역으로 나뉜다. 아직은 전북 동부 유적을 대상으로 발굴이 미진하지만 가야의 영역에서 가야문화유산의 종류가 가장 다양하고 풍부하다.<sup>3)</sup>

1) 우리나라 산줄기의 흐름, 산의 갈래, 산의 위치를 山自分水嶺의 기본 원리에 바탕을 두고 일목요연하게 표로 정리해 놓았다.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장백정간, 금남호남정맥, 호남정맥 등 우리나라의 산줄기를 15개로 분류했다. 1900년대 초 日帝에 의해 우리 곁을 떠났다가 1980년 서울 인사동 고서방에서 산악인 이우형이 조선광문화에서 발간한 영인본을 발견해 세상에 알렸다.

2) 金泰植, 『加耶聯盟史』, 一潮閣, 1993, 114~136쪽. 박천수, 「대가야권의 성립과정과 형성배경」, 『토기로 보는 대가야』, 대가야박물관, 2006, 337~402쪽. 朱甫暎, 「새로운 大伽耶史의 정립을 위하여」, 『鎭南學』 제13호,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8, 42~45쪽.

3)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가야문화권 실제 규명을 위한 학술연구』, 2014, 369~412쪽.

우리나라 남부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는 전북 동부는 지형학적인 이점을 잘 살려 선사시대부터 줄곧 교통의 중심지이자 전략상 요충지를 이루었다. 가야 소국들이 백제의 중앙과 서로 교류 및 교섭하는데 대부분 이용해야 하는 중심이 되는 옛길이 전북 동부를 통과하여 줄곧 교역망의 허브를 이루었다. 전북 동부를 무대로 치열하게 전개된 가야와 백제, 신라의 역학관계는 대체로 철산지의 장악 혹은 사통팔달했던 교역망의 관할과 관련이 깊다. 그리하여 가야와 백제, 신라, 고구려의 유적과 유물이 함께 공존한다.

2017년 전북 동부에서 그 존재를 드러낸 120여 개소의 가야 봉화망에 근거를 두고 전북 가야라고 새로운 이름을 지었다. 전북 남원시와 장수군을 중심으로 임실군·순창군·진안군·무주군·완주군, 충남 금산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sup>4)</sup> 충남 금산군을 포함시킨 것은 1963년까지 전북에 속했었고, 가야 봉화를 통해 전북 가야와의 연관성이 깊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 가야의 용어는 가야사 국정과제에 국민들을 초대하기 위한 대중적이고 홍보적인 의미만을 담았고, 본래부터 학술적 또는 역사적인 의미는 아예 없음을 밝혀준다.



그림 1. 백두대간 만복대에서 바라 본 남강유역 운봉고원과 금강유역 진안고원 내 장수군

전북 동부는 마한 이래로 내내 백제 문화권에 속했던 곳으로만 인식됐다. 1972년 임실 금성리에서 가야토기가 나와 전북 가야의 존재를 유물로 알렸다.<sup>5)</sup> 1982년에는 남원 월산리 고분군 구제발굴에서 백두대간 동쪽 운봉고원 일원에 가야세력이 존재한다는 고고자료를 제공했다.<sup>6)</sup> 1990년대 이르러서는 백두대간 서쪽 진안고원을 대상으로 가야문화유산을 찾고 알리는 지표조사와 그 역사성을 밝히기 위한 학술발굴도 추진됐다. 그리하여 전북 동부에 지역적인 기반을 둔 가야세력의 발전상과 지역성을 규명하기 위한 고고자료도 상당량 축적됐다.

일제강점기 때 지명을 중심으로 시작된 가야사 연구는 1990년대부터 고고자료를 문헌의 지명에 접목시키는 방법으로 바뀌었다. 전북 동부는 대가야 영역에 속했던 곳으로만 인식하고 가야 소국 기문국(己汶國)이 임실, 남원 등 섬진강유역으로 비정된 견해가 통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섬진강유역에서는 가야 정치체의 존재를 고고자료로 확증해 주는 가야 중대형 고총의 존재가 여전히 발견되지 않고 있다. 반면에 백두대간 동쪽 남강유역에 180여 기와 금남호남정맥 동쪽 금강유역에 240여 기의 말(말)무덤<sup>8)</sup>과 가야 중대형 고총이 밀집 분포되어 있다.

그런가 하면 금강 최상류 전북 장수군에 지역적인 기반을 두고 가야 소국으로까지 발전했던 금강 최상류 장수 가야<sup>9)</sup>와 관련된 고고자료도 가야사 연구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아 추가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삼국시대 최고의 위세품(威勢品)으로 평가받고 있는 금동신발(金銅飾履)와 청동거울(獸帶鏡), 계수호(鷄首壺), 철제초두(鐵製鎗斗), 말발굽(馬蹄) 등이 전북 가야의 고총에서만 출토됨으로써 가야사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 전북 가야는 엄밀히 표현하면 다양성과 역동성, 국제성으로 상징되며, 달리 동북아 문물교류의 허브였다. 가야 고총에서 중국, 왜 등 동북아 위세품이 함께 나온 곳은 모든 가야의 영역에서 전북 가야가 유일하다.

흔히 봉화(후)(烽火(候))는 가야 정치체의 존재와 가야 정치체의 영역과 가야 정치체의 국력을 상징한다. 전북 동부에서 그 존재를 드러낸 120여 개소의 가야 봉화 관련 여덟 갈래의 봉화로(烽火路)도 복원됐으며, 임실 봉화산과 장수 봉화봉 등 10여 개소의 봉화 발굴을 통해 가야 봉화로 그 역사성이 확증됐다.<sup>10)</sup> 장수군 가야계 분묘유적 출토품과 그 속성이 상통하는 5세기 말부터 6세기 초엽까지의 가야토기만 나왔기 때문이다.<sup>11)</sup> 종래에 축적된 고고자료로 4세기 말엽 늦은 시기에 가야세력이 처음 등장해 연속적인 발전과정을 거쳐 마침내 운봉고원의 기문국과 진안고원의 장수 가야, 즉 반파국(伴波(叛波)國)으로 발전했다는 주장<sup>12)</sup>도 발표했다.

4)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전북 가야사 및 유적 정비 활용방안』, 2018, 전북연구원.

5) 全榮來, 『任實 金城里 石槨墓群』, 『全北遺蹟調查報告』 第3輯, 全羅北道博物館, 1974, 23~33쪽.

6) 全榮來, 『南原, 月山里古墳群發掘調查報告』,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研究所, 1983.

7) 金泰植, 『加耶聯盟史』, 一潮閣, 1993, 114~136쪽 ; 『미완의 문명 7백년 가야사』, 도서출판 푸른역사, 2002, 184~198쪽.

8) 말이 馬의 뜻으로 보고, 말은 크다 뜻으로 우두머리에게 붙여진 관형사로 파악하여 그 피장자를 마한의 지배자로 보고 있다. 이른바 말벌을 왕벌, 말사슴을 왕사슴, 말매미를 왕매미, 말사슴벌레를 왕사슴벌레로 부르는 것과 똑같다. 현지 주민들이 사용하는 용어로 대체로 7기부터 10기 내외의 무덤들이 무리지어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9) 종래에는 금강 상류지역의 가야세력 혹은 진안고원의 장수군 가야 계통 국가 단계의 정치체, 장수지역의 가야, 장수 가야로 불렀는데, 여기서는 여덟 갈래로 복원된 120여 개소의 가야 봉화에 근거를 두고 문헌의 반파국으로 비정했다.

10) 남원 봉화산, 장수 봉화산·영취산·원수봉·봉화봉·침곡리, 임실 봉화산·호암산, 무주 노고산, 완주 단현, 순창 생이봉·계계산 봉화 등이다.

11) 조명일, 『전북 동부지역 봉화의 축조기법과 구조』, 『문헌과 고고학으로 본 전북가야』, 호남고고학회, 2020, 135~153쪽.

12) 광장근, 『전북 동부지역 가야와 백제의 역학관계』, 『백제문화』 제43집,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원, 2012, 29~60쪽. 李道學, 『伴波國 位置에 대한 論議』, 『역사와 담론』 제90집, 호서사학회, 2019, 47~82쪽. 이도학, 『전북가야의 태동과 반파국』, 『문헌과 고고학으로 본 전북가야』, 호남고고학회, 2020, 45~74쪽. 이도학, 『장수 지역 가야, 단일 정치체 반파국으로 밝혀지기까지』, 『장수 삼고리 고분군의 성격과 가치』, 후백제학회, 2021, 7~34쪽. 이도학, 『문헌으로 검토한 반파국 비정과 그 역사성』, 『문헌과 고고학으로 본 반파 가야』, 호남고고학회, 2021, 7~41쪽. 광장근, 『삼국시대 가야 봉화망과 반파국 비정』, 『전북학 연구』, 제2집,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 2020, 1~34쪽. 광장근, 『전북 고대문화 역동성』, 서경문화사, 2021, 120~15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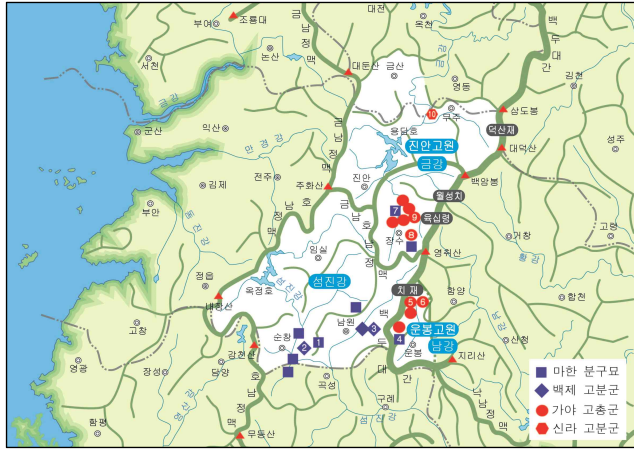


그림 2. 전북 동부 마한·백제·가야·신라 고분군 위치도(1 남원 입암리, 2 남원 사석리, 3 남원 초촌리, 4 남원 장고리, 5 남원 월산리, 6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7 장수 장계리, 8 장수 동촌리, 9 장수 삼불리, 10 무주 대차리)

가야 정치체를 비정하려면 고고학 자료로 몇 가지 핵심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하나는 가야 수장층 혹은 지배층 무덤으로는 평가 받고 있는 가야 중대형 고총과 왕궁 터도 자리하고 있어야 한다. 다른 하나는 가야 고총의 매장시설에서 목관에 사용된 격쇠와 위세품, 위신재 등의 유물이 출토되어야 한다. 또 다른 하나는 가야 고총군 부근에 그 규모가 큰 산성이 배치되어 있어야 한다. 전북 동부 중 남강유역의 운봉고원과 금강 최상류 진안고원 내 장수군에 지역적인 기반을 둔 가야 정치체는 고고학 자료로 핵심조건을 모두 충족시켰다. 더군다나 금강유역의 가야 정치체는 가야 봉화로 가야 정치체의 존재를 다시 또 고고자료로 뒷받침해 주었다.

2017년 가야사 조사연구 및 정비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됨으로써 전북 동부 가야문화유산의 분포양상과 그 역사성을 고증하기 위한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반과국 봉화제의 완전성을 위한 제철유적 지표조사를 통해, 전북 가야의 영역에서만 250여 개소의 제철유적이 산재된 것으로 파악됐으며,<sup>13)</sup> 장수 대적골 등 제철유적의 역사성을 검증하기 위한 학술발굴도 이제 막 시작했다. **전북 동부를 남강과 금강, 섬진강유역으로 나누어 마한의 분구묘와 가야 고총, 가야 봉화 및 산성, 제철유적 등에 담긴 탁월성과 역사성, 진정성을 종합적으로 다시 조명하고자 한다.**

## II. 남강유역 가야 역동성과 기문국

백두대간 산줄기 동쪽 남강유역, 즉 운봉고원은 신선의 땅<sup>14)</sup>으로 회자된다. 행정 구역상 전북 남원시 운봉읍·인월면·아영면·산내면이 운봉고원을 형성한다. 940년 천령군에서 남원부로 이속됐지만 본래의 생활권 및 문화권은 경남 함양군, 산청군과 더 가깝다. 백두대간 산줄기가 서쪽 자연경계를 이루고 해발 500m 내외의 고원지대로 사통팔달했던 교역망을 갖춘 곳이다. 지리산의 절경이 만든 신선의 땅으로 백성들이 천난·외난·인난을 피할 수 있는 최고의 보신처이다. 정약용은 운봉고원을 최고의 요해처이자 관방의 으뜸으로 꼽았다.<sup>15)</sup>

운봉고원은 또한 남강과 섬진강<sup>16)</sup>을 함께 거느린다. 백두대간 봉화산과 세걸산에서 각각 발원하는 풍천과 광천은 운봉고원을 풍요롭게 적신 뒤 전북 남원시 산내면 소재지에서 지리산 뱀사골을 지나는 만수천과 만난다. 여기서부터 수량이 풍부하고 그 폭도 넓어져 임천강으로 불리는데, 임천강은 줄곧 동남쪽으로 흘러 경남 산청군 생초면에서 남강 본류와 만난다. 반면에 백두대간 만복대 북쪽 기슭에서 시작하는 원천천은 운봉고원 서남쪽을 지나 요천과 합친 뒤 줄곧 서남쪽으로 흐르다가 전북 남원시 금지면에서 섬진강으로 들어간다.



그림 3. 남원 청계리 1호분 가야 고총 발굴 모습 그림 4.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32호분 발굴 후 모습

14) 조선시대 예언서 『鄭鑑錄』에 사람들이 살기 좋은 심승지에도 그 이름을 올렸다.

15) 『다산시문집』에서 “남도의 관방은 운봉이 으뜸이고 추풍령이 다음이다. 운봉을 잃으면 적이 호남을 차지할 것이고 추풍령을 잃으면 적이 호서를 차지할 것이며, 호남과 호서를 다 잃으면 경기가 쭈그러들 것이니, 이는 반드시 지켜야 할 관문인 것이다”라고 했다.

16) 운봉고원 내 남원시 주천면 고기리·덕치리 일대가 섬진강유역에 속한다.

13)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전북 가야 제철 및 봉화유적 정밀 현황조사』, 전라북도, 2019, 176~229쪽.



기원전 84년 마한의 왕이 전쟁을 피해 피난길에 올랐다. 당시 마한의 왕이 피난지로 삼은 곳은 지리산국립공원 내 달궁계곡이다.<sup>17)</sup> 백두대간 노고단 동쪽 기슭에서 발원하는 물줄기가 줄곧 동쪽으로 흐르면서 달궁계곡을 이룬다. 2100년 전 지리산 달궁계곡으로 피난 온 마한 왕이 남긴 지명이 달궁과 왕궁이다. 우리나라의 지명에서 궁자는 대부분 활 ‘궁(弓)’자를 쓰는데, 마한 왕의 전설이 살아 숨 쉬는 지리산 달궁계곡의 ‘궁’자는 집 ‘궁(宮)’자를 쓴다. 백두대간 정령치(鄭嶺峙)·황령치(黃嶺峙)<sup>18)</sup>·성삼재, 팔랑치(八郎峙) 등도 마한의 왕과 관련된 지명들이다.

2019년 백두대간 만복대 동쪽 기슭 중단부 절골이 달궁(達宮) 터였다는 주장<sup>19)</sup>이 발표됐다. 현지조사 때 성벽의 흔적이 확인됐는데, 그 평면형태는 거의 반달모양이다. 성벽은 대부분 산줄기 바깥에 사도법을 적용하여 가파르게 다듬어 마련됐는데, 할석으로 쌓은 동쪽 성벽은 대부분 무너져 내렸다. 산성 내 중앙 상단부에 상당히 넓은 평탄대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본래 추정 왕궁 터 및 절터로 추정되는 곳이다.<sup>20)</sup> 지리산 달궁계곡에서 71년 동안 국력을 키운 마한세력이 백두대간 정령치를 넘어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일대로 이동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연동마을 부근 구릉지 정상부에 물(말)무덤이 있다. 본래 봉분의 직경이 10m 이상 되는 7기 내외의 물무덤이 있었는데, 오래전 농경지 개간으로 대부분 유실됐고, 현재 3기만 봉분이 심하게 훼손된 상태로 남아 있다. 아직 남원 장교리 물무덤을 대상으로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역사성이 파악되지 않았지만 운봉고원에서 가야세력이 등장하기 이전 마한의 분구묘로 추정된다.<sup>21)</sup> 2011년 남원 입암리 말무덤 학술발굴에서 말무덤이 마한의 분구묘로 밝혀졌는데,<sup>22)</sup> 물(말)무덤의 의미는 제4장에서 상세하게 다루려고 한다.

마한의 물(말)무덤 분포양상을 근거로 한 동안 운봉고원의 중심지가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일대에 있었던 것 같다. 그러다가 운봉고원에 지역적인 기반을 둔 마한세력이 백제 근초고왕 남정 이후 가야문화를 받아들인 뒤 남원 장교리에서 아영분지(阿英盆地) 일대로 정치 중심지를 다시 옮긴다. 백제의 중앙과 가야 소국들을 곧장 이어주던 한성기 간선교통로로 밝혀진 백두대간 치제로가 남원 청계리·월산리·유곡리·두락리 일대를 통과하는 것과 관련이 깊다.

그런가 하면 운봉고원에서는 4세기 대 마한계 및 백제계 토기류가 가야 분묘유적에서 나온다. 남원 월산리 M1-G호·M2호분과 남원 행정리 13호에서 나온 광구장경호, 행정리 13호

무개장경호, 행정리 11호 유개장경호는 다른 가야 분묘유적에서 나온 예가 거의 없을 정도로 이질적인 기종이다. 공주 수촌리와 천안 용원리, 청주 신봉동, 완주 상운리·수계리, 남원 입암리 분구묘 출토품과 흡사한 마한계 토기들로 대체로 4세기 말엽 늦은 시기로 편년되고 있다.



그림 5. 남원 월산리 5호분 출토 계수호

그림 6.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32호분 출토 수대경

운봉고원에 기반을 둔 기문국<sup>24)</sup>이 그 존재를 처음 알린 것은 1982년이다. 그해 광주와 대구를 잇는 88고속도로 공사 구역에 포함된 가야 고층에 대한 구제발굴이 이루어졌다.<sup>25)</sup> 본래 백제 대형 고분일거라는 고고학자들의 당초 예상과 달리 그 조영 주체가 가야로 밝혀지면서 적지 않은 관심을 끌었다. 남원 월산리 고분군이 조사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전북 동부는 모두 백제 문화권에 속했던 곳으로만 인식됐기 때문이다. 백두대간 산줄기 동쪽 말단부에 입지를 둔 남원 월산리는 운봉고원 내 가야세력의 존재를 처음으로 세상에 알린 곳이다.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남원 월산리에는 봉토의 직경이 20m 내외되는 10여 기의 가야 고층이 무리지어 있었다. 1990년대 초 농지정리사업으로 3기의 고층이 유실됐고, 1982년<sup>26)</sup>과

17) 『龍城誌』古蹟條에 의하면, “黃嶺鄭嶺 并在智異山初麓 皆極險峻 牛馬不通之地 西距府五十里許 古釋清虛堂黃嶺記曰在昔漢昭帝即位之三年 馬韓主 避辰韓之亂 築都城於此以黃鄭二將 監其事守其嶺 故遂以二人之姓氏其嶺 保其都城者七十一年也云 頽城毀壁 今猶存焉 其所云都者則世傳達宮其也 在二嶺之內長谷 中古以南原地 今屬雲峰”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18) 백두대간 만복대와 정령치 사이 산봉우리로 그 동쪽 기슭 하단부에 마한 왕의 달궁 터가 자리하고 있다.  
 19) 새전북신문 매아리(2020년 2월 23일) 칼럼 ‘지리산에서 마한 왕 달궁 터 찾았다’ 참조. 광장근, 2021, 앞의 책, 157~162쪽.  
 20) 왕궁이 문을 닫은 뒤 문헌에 등장하는 황령암이 그 위에 다시 지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21) 아직은 운봉고원 내 말(물)무덤을 대상으로 한 차례의 발굴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아 지표조사 자료만을 근거로 추론해 볼 수밖에 없다.  
 22) 군산대학교 박물관, 『남원 입암리·임리 고분』, 2013. 남원시.

23) 백두대간 치제로를 따라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야 7국 정벌 등 백제 근초고왕의 남정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24) 종래에 남강유역의 가야세력 혹은 운봉고원 가야의통 국가 단계의 정치체, 운봉지역 가야, 운봉 가야라는 용어로 통용됐다. 이 글에서는 유적, 유물 등 고고자료를 문헌의 연구성과에 접목시켜 기문국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25) 全榮來, 『南原, 月山里古墳群發掘調査報告』,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研究所, 1983.  
 26) 당시에 M1호분·M2호분·M3호분은 서로 봉토가 중첩된 상태로 조사됐는데, 가야의 영역 중 장수 삼봉리, 고성 송학동에서 학계에 보고된 연접본이다.

2010년 두 차례의 구제발굴<sup>27)</sup>을 통해 분묘유적의 성격이 파악됐다. 남원 월산리 M1·2·3호 분은 봉토가 서로 붙은 연결분으로 장수 삼봉리 등 전북 가야 영역에서 유행했던 마한 묘제의 영향이다. 2018년 남원 월산리 서쪽을 반달모양으로 휘감은 산줄기 정상부에서 10여 기의 가야 중대형 고총이 더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그 위상을 더욱 높였다.

남원 월산리 M5호분은 매장시설의 길이가 960cm로 고령 지산동 등 다른 지역의 가야 고총들보다 크다. 가야 고총에서 매장시설의 규모가 큰 것은 무덤의 주인공이 죽어서도 살아생전의 권위와 신분을 그대로 누릴 거라고 믿었던 계세사상(繼世思想)이 유행했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사후 세계에서도 현실 세계와 똑같은 또 다른 삶이 이어진다고 믿었던 가야 사람들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이 녹아있다. 그리하여 봉토의 직경과 매장시설의 크기는 수장층 분묘유적을 조영했던 가야세력의 국력을 평가하는 척도이자 바로미터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운봉고원에서 철의 왕국으로 융성했던 기문국의 발전상을 뒷받침해 주는 고고학적 증거이다. 남원 월산리는 마한의 분구묘처럼 구릉지에 입지를 두었는데, 봉토의 중앙부에 배치된 매장시설도 반지하식으로 마한 묘제와의 연관성이 높다. 전북 동부 가야 고총의 묘제가 마한 분구묘에서 승계됐음을 가정해 볼 수 있는데, 기원전 84년 지리산 달궁계곡으로 마한 왕의 피난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운봉고원 내 토착세력집단은 가야문화를 받아들이기 이전까지 마한의 영역 혹은 문화권에 속했음을 알 수 있다.<sup>2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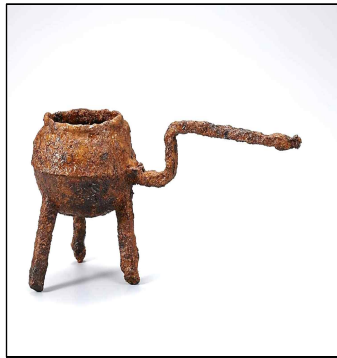


그림 7. 남원 월산리 M5호분 출토 철제초두



그림 8. 남원 월산리 M5호분 출토 토기류

2019년 남원 청계리 가야 고총에서 마한 묘제의 특징이 다시 또 확인됐다. 봉토가 서로 붙은 연결분으로 성토한 봉토를 다시 파내어 매장시설을 마련하고 봉토 가장자리에 도랑을 둘러는데, 봉토의 평면형태는 남북으로 긴 장타원형이다. 아라가야의 수레바퀴 장식 토기와 일본제 나무로 만든 빗, 중국계 청자편이 나와 동북아 물물교류의 허브<sup>29)</sup>였음을 다시 또 입증했다. 운봉고원의 마한세력이 가야문화를 수용한 이후에도 가야 고총을 만들면서 마한의 묘제를 따랐음을 알 수 있다.<sup>30)</sup>

운봉고원 내 아영분지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풍천을 사이에 두고 남원 월산리에서 동쪽으로 1.5km 가량 떨어진 산줄기에 남원시 인월면 유곡리·아영면 두락리가 있는데, 이곳에도 40여 기의 가야 고총이 무리지어 있다. 경남과 전북의 도계를 이룬 연비산에서 아영분지 한복판까지 뻗어 내린 산줄기와 다시 북쪽으로 갈라진 산자락에 봉토의 직경이 30m 이상 되는 대형급 가야 고총이 그 위용을 자랑한다. 운봉고원 내 기문국 최대 규모의 수장층 분묘유적이다.

백두대간 품속 운봉고원 내 아영분지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산자락 양쪽에 가야의 중대형 고총이 반절씩 골고루 산재해 남원 유곡리·두락리 고분군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1500년 동안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지만 봉토의 직경이 30m 이상 되는 초대형급 가야 고총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본래 80여 기의 가야 고총<sup>31)</sup>이 무리지어 있기 때문에 당시 철의 왕국 기문국이 강력한 국력을 토대로 융성했다는 발전상과 상당 기간 동안 존속했음을 알 수 있다.

기문국은 수장층 분묘유적이 남원 청계리·월산리에서 유곡리·두락리로 옮겨진 이후 대가야 등 가야 소국들과 한층 더 결속력을 강화한다. 아영분지 사방에서 한 눈에 보이는 산줄기 정상부에 입지를 둔 것은, 고총의 봉토를 산봉우리처럼 더욱 크게 보이게 함으로써 무덤 주인공의 신분이나 권위를 극대화하려는 정치적인 목적<sup>32)</sup>이 담겨있다. 삼국과 구별되는 가야만의 독자적인 장례 문화와 장례 풍습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고고학적 근거이다.

지금까지 밝혀진 기문국의 묘제는 세 가지 속성에서 강한 지역성을 보였다.<sup>33)</sup> 하나는 봉토의 중앙부에 하나의 매장시설만 배치된 단곽식이고, 다른 하나는 봉토의 가장자리에 호석시설을 두르지 않고 도랑을 둘러고, 또 다른 하나는 매장시설이 지상식 혹은 반지하식이라는 점이다.<sup>34)</sup> 마한 분구묘의 전통성과 보수성이 기문국까지 지속됨으로써 전북 가야만의 강한 지역성으로 자리매김 됐다. 전북 가야의 묘제가 마한의 분구묘에서 비롯됐음을 다시 또 입증된 것이다.

27) 전북문화재연구원, 『南原 月山里古墳群』-M4·M5·M6號墳-, 한국도로공사 함양성산건설사업단, 2012.

28) 최완규, 「전북지역 마한과 백제 그리고 가야의 역학관계」, 『문헌과 고고학으로 본 전북가야』, 호남고고학회, 2020, 5~43쪽.

29) 김재홍, 「문헌으로 본 가야의 국가, 기문국」, 『문헌과 고고학으로 본 전북가야』, 호남고고학회, 2020, 75~107쪽.

30) 묘제는 부장유물보다 가야 고총 조영세력의 뿌리와 정체성을 더 잘 대변해 주는 상위 개념이 아닌가 싶다.

31) 전북 남원시 인월면 유곡리 성내마을 주민들이 본래 80여 기의 무덤들이 자리하고 있었다고 제보해 주었다.

32) 金世基, 「大伽耶 墓制의 變遷」, 『加耶史研究 -가야의 政治와 文化-, 慶尙北道, 1995.

33) 전상학, 「고고자료와 문헌으로 본 상기문국」, 『전북학 연구』, 제2집,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 2020, 77~107쪽.

34) 여기서 그치지 않고 벽석의 축조 방법, 개석 혹은 벽석 사이에 진흙 바름, 바닥 시설, 장축 방향 등 유구의 속성에서도 남원 월산리·청계리·유곡리·두락리 고분군이 서로 공통성이 입증됐다.



그림 9.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36호분 석실 내부 모습

당시 기문국에서 생산된 품질이 좋은 니켈 철을 확보하기 위해 백제와 가야 소국들이 최고급 위세품과 위신재를 운봉고원 내 기문국에 보낸 것 같다. 남원 월산리 M5호분에서 나온 중국제 청자인 계수호와 철제초두,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32호분의 금동신발과 중국 남조에서 만든 수대경은 가야 고층에서 한 점씩만 나온 최고의 위세품들이다. 대가야, 소가야, 아라가야 등 가야 소국들도 운봉고원에서 생산된 니켈 철의 교역을 위해 최상급 토기류를 기문국으로 보냈음을 알 수 있다.<sup>35)</sup>

그런데 6세기 초 기문국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가야 고층의 매장시설이 수혈식에서 횡구식 또는 횡혈식으로 바뀐다.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36호분은 백제계 횡혈식 석실묘로 남쪽 기슭 하단부에 위치한다.<sup>36)</sup> 석실은 바닥 부분이 거의 수직에 가깝고 그 위로 올라가면서 네 벽석을 같은 비율로 좁혀 1매의 개석으로 덮은 궁륭상(穹隆狀)이다. 장방형 석실의 바닥에는 판상석을 이용하여 관대시설을 마련하고 벽면과 천정, 관대시설에는 회를 두텁게 발랐다.

연도는 석실의 서벽을 그대로 연장되어 연도 서벽을 이루어 서쪽에 두었다. 석실에서 시작된 배수시설이 통과하고 석실 입구는 1매의 문비석으로 막았다. 널길의 길이가 382cm로 상당히 긴 것은 수혈식에서 횡혈식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단계의 양상이다. 널길의 위치와 길이를 제외하면 대체로 공주 송산리 3호분, 나주 송제리 무덤의 축조 기법이 상통한다. 기문국이 백제에 정치적으로 복속됨을 백제계 횡혈식 석실묘 수용으로 증명했다. 대가야 양식의 석실로 보았지만<sup>37)</sup> 석실의 내부구조가 고령 고아동·고아2동·질상천정총, 합천 저포리 D-1호보다 앞선다.

남원시 운봉읍 임리에서도 백제 묘제가 확인됐다.<sup>38)</sup> 백두대간 고남산에서 동남쪽으로 뻗은 산줄기 정상부에 자리한 임리 1호분은 봉토 중앙에 주석곽이 배치됐고, 그 동북쪽에 2기의 순장곽이 자리한 다곽식(多槨式)이다. 주석곽은 산줄기와 나란하게 남북으로 장축방향을 두었으며, 무덤의 입구가 남쪽에 마련된 횡구식이다. 주석곽의 내부구조가 수혈식에서 횡구식으로 바뀌었고, 유구의 장축방향에서도 백제 묘제의 영향력이 다시 확인됐다.

35) 당시의 교역은 물물교환으로 운봉고원에서 생산된 철을 필요로 했던 가야 소국들이 최상급 토기를 가지고 기문국을 방문했던 것 같다. 한마디로 가야토기의 모음은 '가야토기 박물관'을 방불케 했다. 철과 소금은 대체로 소비자가 물품을 가지고 생산지를 방문해서 구입한다.

36) 尹德香·郭長根, 『斗洛里』發掘調査報告書, 全羅北道·南原郡·全北大學校 博物館, 1989.

37) 전북대학교 박물관,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36호분, 자문위원 회의자료, 남원시, 2020.

38) 군산대학교 박물관, 2013, 앞의 책.

문헌에서도 기문국의 복속 사실을 전한다. 백제는 513년부터 515년까지 기문(己汶), 대사(帶沙)를 두고 가야 소국 반파국과 3년 전쟁을 벌인다. 백제 무령왕은 가야 소국 반파국과의 3년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어 기문국을 복속시킨 뒤 비로소 백두대간 산줄기를 넘었다. 운봉고원 일대가 6세기 전반 이른 시기 백제에 정치적으로 복속됨으로써 521년 이후 기문국이 문헌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 529년 섬진강 하구 다사진을 차지할 때까지 한동안 백제의 가야진출이 소강상태를 이룬 것은 운봉고원의 철산개발로 백제의 중흥을 도모하지 않았을까?

전북 남원시 아영면 봉대리 2호분<sup>39)</sup>에서 나온 신라의 단각고배가 6세기 중엽 경 운봉고원 일대가 신라의 영향권으로 편입됨을 유물로 뒷받침해 주었다. 단각고배는 몸통부와 대각부의 비율이 3:1 정도로 그 시기가 무령왕릉의 연대(523~529)보다 늦고 대가야의 멸망 전에 이미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sup>40)</sup> 남원시 운봉읍 북천리 3호분<sup>41)</sup>은 신라계 고분으로 운봉고원 일대가 6세기 중엽부터 7세기 전반기 이른 시기까지 신라 영역이었음을 유적과 유물로 반증한다.

2020년 남원 아막성(阿莫城) 학술발굴에서 신라의 진출이 다시 또 입증됐다. 이 산성은 둘레 640m로 그 평면형태가 장방형으로 북쪽 기슭 가장 하단부에서 동서로 긴 장방형의 집수시설이 자리한다. 집수시설은 두께가 얇은 흑운모 편마암을 가지고 벽석을 수직으로 쌓았는데, 그 규모는 길이 950cm, 너비 710cm, 높이 250cm이다. 벽석은 계단식으로 북쪽을 제외하고 사방에 도수로를 둘러고, 집수시설 동쪽에서 목주열이 확인됐다.



그림 10. 백두대간 정상부 남원 아막성 1호 집수시설

그림 11. 남원 아막성 계단식 1호 집수시설 동쪽 벽석

유물은 집수시설의 자연 퇴적층에서 토기류와 기와류, 목제유물, 슬래그와 노벽면, 다양한 동물유체 등이 출토됐다. 기문국과 신라, 백제, 후백제를 유물로 함께 만날 수 있다. 토기류는 신라토기가 유물의 절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기에 가야토기와 백제토기가 일부 섞

39) 장명업·윤세나, 『南原 奉大 古墳群』, 湖南文化財硏究院·韓國道路公社, 2013.

40) 朴普鉉, 『短脚高杯로 본 積石木槨墳의 消滅年代』, 『신라문화』 제15집,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1998, 81-99쪽.

41) 전라문화유산연구원, 『남원 운봉 북천리 고분』, (사)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2014.

여있다. 옷나무 옷 액이 바닥에 붙은 상태로 신라토기가 나와 남원 주요 특산품으로 유명한 남원목기와 전통 옷칠 공예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경주 월성 유적에서 나온 곰을 중심으로 소, 개, 고라니, 두루미, 백제 제사유적에 나온 자라 뼈도 출토됐다. 목간, 목검 등 목제유물의 출토량도 상당히 많다. 운봉고원이 대규모 철산지였음을 방증해 주는 근거로 산성 내에서 대장간 혹은 공방지가 발견될 가능성도 높다. 아직은 발굴이 시작 단계에 불과하지만 운봉고원에 지역적인 기반을 둔 가야 소국 기문국이 산성의 터를 처음 닦은 뒤 6세기 중엽 경 신라가 포곡식 산성으로 증축했다.

백제는 신라의 아막성을 탈환하기 위해 20년 넘게 치열한 전쟁을 벌였다. 백제 무왕은 왕위에 오른 뒤 3년 만에 4만의 군대를 동원하여 신라 아막성을 공격했지만 대패했고, 616년에도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다가 624년 백두대간을 넘어 운봉고원을 다시 백제에 예속시켰고, 경남 함양까지도 백제의 영향권으로 편입시켰다. 백두대간을 넘기 위해 20년 이상 계속된 아막성 전투는 운봉고원 철산지를 수복하기 위한 철의 전쟁이 아닌가 싶다. 현재까지 운봉고원에서 그 존재를 드러낸 제철유적은 40여 개소로 단일 지역에 밀집도가 가장 높다.

### Ⅲ. 금강유역 가야 봉화망과 반과국

백두대간과 금남정맥, 금남호남정맥 사이에 금강유역 내 진안고원이 자리한다. 달리 ‘호남의 지붕’으로 불리는 곳으로 전북 장수군·진안군·무주군과 충남 금산군이 여기에 속한다. 백두대간 동쪽 운봉고원도 지질 구조상으로 진안고원에 속한다는 주장<sup>42)</sup>도 있다. 선사시대 이래로 줄곧 지형학적인 이점을 살려 교통의 중심지이자 전략상 요충지를 이루었다. 삼국시대 때는 백제와 가야, 신라가 철산지이자 구리산지 진안고원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치열하게 각축전을 펼침으로써 백제와 가야, 신라의 유적과 유물이 함께 공존한다.

우리나라의 국토를 동서로 갈라놓는 백두대간 산줄기 서쪽 전북 장수군 일원에 240여 기의 가야 고층을 남긴 가야 정치체가 있다.<sup>43)</sup> 금강 발원지 신무산 뜬봉샘이 자리해 수계상으로는 금강 최상류를 이룬다. 운봉고원의 기문국과는 백두대간, 금남호남정맥 산줄기들로 가로막혀 별개의 독립된 지역권을 형성한다. 금강 최상류에 지역적인 기반을 둔 장수 가야는 백제와 국경을 맞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야문화를 기반으로 가야 소국으로까지 성장했다. 백두대간 산줄기 서쪽에서 유일하게 가야 소국으로까지 발전한 가야 정치체라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sup>4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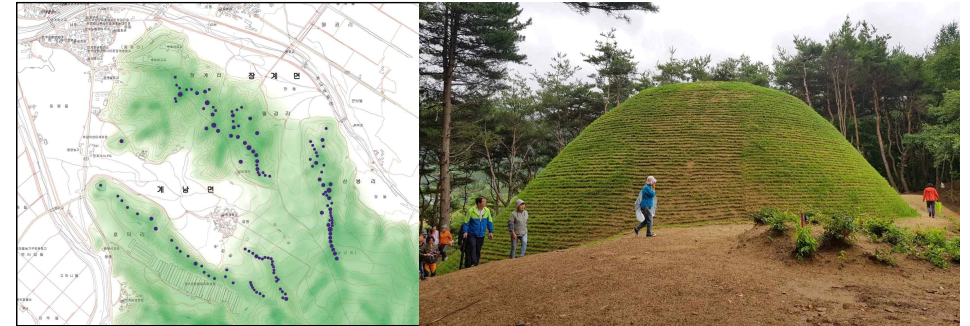


그림 12. 장수군 장계분지 가야 고층 분포도

그림 13. 장수 동촌리 30호분 발굴 후 정비 복원된 모습

2016년 장수 노하리에서 4세기 반 경 철산개발을 암시해 주는 유물이 나왔다. 장수읍 서쪽 봉황산에서 장수천까지 뻗어 내린 산자락 정상부에서 11기의 수혈식 석곽묘가 조사됐다. 석곽 주변에는 원형 혹은 반원형 주구를 돌렸으며, 유구의 장축 방향은 대체로 등고선과 평행되게 두었다. 유물은 마한계, 백제계, 가야계 토기류가 함께 섞여있는데, 토기류의 조합상은 다양성과 역동성으로 상징된다. 당시 장수군에서 생산된 철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지역에서 보낸 토기들로 물물교환의 증거물이 아닌가 싶다.

최대 규모 마한계 분묘유적으로 밝혀진 완주 상운리 출토품과 흡사한 토기류도 포함되어 있다.<sup>45)</sup> 만경강유역 완주 상운리에서 20세트의 단야구가 나왔는데,<sup>46)</sup> 우리나라의 단일 유적에서 나온 단야구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 아직은 장수 노곡리·장계리<sup>47)</sup> 말무덤 등 마한계 분묘유적의 발굴이 시작되지 않아 속단할 수 없지만 금강 최상류와 만경강유역의 교류관계가 활발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금강 최상류 장수군에 지역적인 기반을 둔 세력집단은 백제 근초고왕 남정 이후 가야문화를 받아들여 가야 소국으로까지 발전했던 것 같다.

가야 고층이란 봉토의 직경이 20m 내외되는 대형 무덤으로 그 피장자는 지배자 혹은 지배층으로 비정된다.<sup>48)</sup> 진안고원 내 분묘유적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가야 중대형 고층이다. 가야 고층은 대체로 사방에서 한 눈에 보이는 산줄기 정상부에 입지를 두었다. 그리고 봉토를 산봉우리처럼 훨씬 크게 보이게 함으로써 무덤 주인공의 권위와 위상을 극대화하려는 정치적인 목적이 담겨있다.<sup>49)</sup> 고구려·백제·신라와 다른 가야만의 장례 문화가 있었음을 말해준다. 가야 고층이 산줄기 정상부에 입지를 둔 것은 영남지방에서 밝혀진 가야 묘제의 특징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진안고원 내 장수군에서만 240여 기의 가야 고층이 발견됐다.<sup>50)</sup>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

42) 장현근, 「장수군 제철유적지의 지형학적 특성」, 『백두대간을 품은 장수 가야 철을 밝히다』, 호남고고학회·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6, 23~32쪽.

43)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가야문화권 실체 규명을 위한 학술연구』, 2014, 369~412쪽.

44) 문헌에 등장하는 20여 개 이상의 가야 소국들이 대다수 백두대간 산줄기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120여 개소의 가야 봉화를 남긴 장수 가야만 유일하게 백두대간 서쪽 금강 최상류에 지역적인 기반을 두고 가야 소국으로까지 발전했다.

45) 전주문화유산연구원, 『장수 노하리 고분군』, 장수군, 2018.

46) 김승욱·이보람·변희섭·이승태, 『상운리 I·II·III』, 전북대학교 박물관·한국도로공사, 2010.

47) 장수 장계리 64호분 학술발굴에서 동서 24m, 남북 23m의 봉분 정상부에서 150cm의 성토층이 확인됐지만 매장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성토층 경사면에서 강돌로 쌓은 적석시설이 확인됐다(전북문화재연구원, 『2020년 장수 백화산 고분군 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 자료』, 장수군, 2020.

48) 李熙濬, 「토기로 본 大伽耶의 圏域과 그 변천」, 『加耶史研究』, 慶尙北道, 1995, 365~444쪽.

49) 金世基, 「大伽耶 墓制의 變遷」, 『加耶史研究』, 慶尙北道, 1995, 352~363쪽.

면 장계분지에는 전북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에서 41기·월강리에서 23기·장계리에서 20여 기, 계남면 호덕리에서 40여 기와 화양리에서 1기의 가야 고총이 있다. 그리고 장수분지에는 마봉산에서 서북쪽으로 뻗은 산줄기 정상부에 90여 기와 장수 삼고리에 20여 기, 그리고 팔공산 서남쪽 대성고원에도 5기 내외의 고총이 있다. 본래 가야 중대형 고총의 기수가 훨씬 더 많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진안고원 내 전북 진안군과 무주군, 충남 금산군에서는 가야 중대형 고총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장수군에서만 장수 노곡리·장계리 말무덤이 지속적인 발전과정을 거쳐 비로소 가야의 중대형 고총으로 커졌다. 장수 삼봉리에서 40여 기와 장수 동촌리에서 90여 기의 가야 고총이 한곳에 무리지어 있는 것은 장수 가야의 존속 기간을 말해준다. 장수 동촌리에는 90여 기 이상의 가야 고총이 무리지어 가야의 영역에서도 상당히 이례적이다.<sup>50)</sup>

종래에 백제 문화권에 속했던 곳으로만 인식된 호남지방에서 가야의 중대형 고총이 무더기로 발견된 곳은 진안고원에서 장수군이 유일하다. 동시에 장수 가야가 백제에 정치적으로 복속되지 않고 가야문화를 기반으로 발전했다는 명명백백한 고고학적 증거이다. 영남지방에서도 240여 기의 가야 고총이 단일 지역 내에 무리지어 있는 곳이 많지 않을 정도로 그 기수가 많다. 일제강점기부터 줄곧 가야 영역의 서쪽 자연경계로 인식됐던 백두대간 산줄기 서쪽에 자리하여 가야의 영역을 백두대간 넘어 금강유역으로까지 넓혔다.



그림 14. 장수 장계리 8호분 주석곽 출토 단야구



그림 15. 장수 동촌리 19호분 출토 말편자

가야 고총에서 장수 가야만의 지역성도 입증됐다.<sup>52)</sup> 장수 삼봉리·동촌리 가야 고총은 봉토의 평면형태가 장타원형으로 서로 인접된 다른 고총과는 얼마간 거리를 두었으며, 봉토의 가장자리에서 호석을 두른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다. 장수 삼봉리에서는 고성 송학동처럼 봉토의 하단부가 서로 인접된 연결분(連接墳)으로 밝혀졌다. 동시에 마한의 분구묘처럼 봉토

50) 전주문화유산연구원, 『장수군의 가야고분』, 장수군, 2017.  
 51) 그러나 가야 고총은 그 보존상태가 매우 심각하다.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된 극심한 도굴과 민묘 구역 조성으로 장수 삼봉리는 40여 기의 고총 중 2기만 봉토가 얼마간 보존되어 있을 뿐이다.  
 52) 전상학, 「전북지역 가야고분의 현황과 특징」, 『호남고고학보』 59, 호남고고학회, 2018, 46-63쪽 ; 「무덤을 통해 본 전북 가야의 독자성과 역동성」, 『문화와 고고학으로 본 전북가야』, 호남고고학회, 2020, 109-133쪽..

를 만든 다음 다시 파내어 매장 시설을 마련하여 운봉고원의 기문국과 묘제의 연관성도 입증됐다. 그리고 봉토의 중앙부에 주석곽이 자리하고 그 주변에 1~3기 내외의 순장곽이 배치된 다곽식이다.

장수 삼봉리 1호분 주석곽에서 위신재(威身財)인 환두대도가 부장된 흔적과 함께 목관에 사용됐던 꺾쇠<sup>53)</sup>가 출토되어, 가야 고총의 피장자가 장수 가야의 수장층으로 밝혀졌다. 2018년 장수 삼봉리 가야 고총에 대한 학술발굴<sup>54)</sup>에서도 그 평면형태가 장타원형으로 다시 입증됨으로써 장수 가야의 독자성과 지역성이 재삼 증명됐다. 가야 고총의 평면형태가 장타원형을 띠고 봉토 가장자리에 호석을 두르지 않은 것은 장수군에서만 조사됐다. 장수 삼봉리는 일본인 도꾸라세이지의 극심한 도굴<sup>55)</sup>과 농경지 개간으로 40여 기의 고총 중 2기만 봉토가 일부 남아있었다.

2015년 장수 동촌리 19호분에서 말발굽과 말뼈, 30호분에서 위신재로 알려진 f자형관비가 나왔다.<sup>56)</sup> 2017년 장수 동촌리 28호분 주석곽에서 금동제 화살통 장식과 내만타원형관비, 부곽에서 은제 귀걸이가 출토됐다. 2020년 장계면 장계리 8호분 주석곽에서 단야구가 나왔는데,<sup>57)</sup> 망치와 모루, 집게로 구성된 단야구는 그 크기가 작아 2차 단야구로 추정된다. 장수군 내 가야 고총에서 처음으로 말발굽과 2차 단야구가 나와 장수 가야가 철의 생산부터 주조기술까지 함께 갖춘 가야 소국이었음을 알 수 있다.<sup>58)</sup>



그림 16. 장수 삼고리 2호분 주석곽 출토 토기류



그림 17. 무주 대차리 고분군 출토 신라토기

53) 장수 삼봉리 가야의 중대형 고총의 주석곽에서만 나왔는데, 운봉고원 내 가야 고총 출토품보다 그 크기가 현저하게 작아 또 다른 가야 소국이 있었음을 유물로 방증해 주었다.  
 54) 전주문화유산연구원, 『장수 삼봉리 고분군』, 장수군, 2015.  
 55) 1930년대 도꾸라세이지가 개발을 명분으로 토지를 구입한 뒤 유적 내에 건물을 짓고 사람들을 고용하여 가야 고총을 대부분 도굴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극심한 도굴 사례로 가야 고총의 장벽을 통째로 없애고 부장유물을 꺼냈다고 한다.  
 56) 전주문화유산연구원, 『장수 동촌리·삼봉리 고분군』, 장수군, 2017.  
 57) 전북문화재연구원, 2020, 앞의 자료.  
 58) 유영춘, 「철제 武裝으로 본 전북 가야의 대외교류와 전술체계」, 『문화와 고고학으로 본 전북가야』, 호남고고학회, 2020, 191-265쪽.

2020년 장수 삼고리 고분군에서 장수 가야 발전상이 일목요연하게 파악됐다.<sup>59)</sup> 장수 삼고리는 장수 가야 하위계층 분묘유적으로 하나의 봉토에 여러 기의 매장시설이 배치된 다곽식이다. 땅자의 시신을 안치하는 매장시설은 돌로 만든 석곽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여기에 땅을 파낸 토광묘와 옹관묘가 포함되어 있다.<sup>60)</sup> 매장시설은 2기의 대형 석곽묘가 중앙에 나란히 배치되어 있고, 그 주변에는 바닥면의 높이가 서로 다른 무덤들이 사방을 둥글게 에워싸듯이 배치되어 있다.

장수 삼고리 2호분은 두 기의 대형 석곽묘가 웅장한 자태를 드러낸 부부무덤이다. 그 위쪽에 터를 잡은 3호분은 봉토가 서로 붙은 연결분이다. 모두 13기의 무덤들로 갖춰진 봉토분을 축조한 뒤 후대에 7기의 무덤을 더 만들고 봉토를 잇대어 덧씌웠다. 봉토 주변에 도랑을 두른 흔적은 확인됐지만 봉토에서 호석시설은 발견되지 않았다. 장수 삼봉리·동촌리 등 장수 가야 수장층 분묘유적에서 밝혀진 장수 가야의 지역성과 독자성이 다시 또 입증됐다.

삼국시대 명품 백화점을 방불케 할 정도로 최고의 유물들이 쏟아졌다. 금제 귀걸이가 2호분에서 출토됐는데, 장수 가야 백성 무덤에서 금으로 만든 장신구가 나온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황색·청(녹)색·흰색·붉은색·검은색 등 오방색(五方色)이 화려하게 장식된 원관형 구슬은 가야 영역에서 장수 삼고리 3호분에서만 나왔다.<sup>61)</sup> 옅은 붉은색을 띠는 모자곡옥도 당시 국제교역을 암시하는 무역품이다. 경남 창령에서 만든 비화가야를 중심으로 대가야, 소가야 양식 등 가야 토기들을 거의 다 모았다.<sup>62)</sup>

여기에 최상급 백제토기와 신라토기, 마한계 토기도 섞여있어 삼국시대 토기 박물관을 연상시켰다. 장수 삼고리는 한강 이남의 명품 토기들을 한자리에서 실견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성과 역동성으로 상징된다. 그러다가 장수 가야가 백제 영역으로 진출을 강행한 이후부터 큰 변화가 발생한다. 갑자기 장수 가야에서 가야토기를 손수 만들기 시작한다. 장수 삼고리 3호분에서 나온 늦은 시기의 토기들이 그 증거품으로 겨우 가야토기를 흉내 낼 정도로 거칠고 조잡했다.<sup>63)</sup>

금강유역으로 신라의 진출도 확인됐다. 무주 대차리 고분군에서 11기의 수혈식 석곽묘가 조사됐는데,<sup>64)</sup> 무덤은 바닥에 시상석을 갖춘 9기와 시상석이 없는 것이 함께 공존한다. 전자는 유구의 속성이 우친 금구리, 상주 현신동·병성동 신라고분과 흡사하다. 가야 고분이 일부 포함되어 신라보다 앞서서 장수 가야가 무주군 일대로 진출했음을 알 수 있다. 유물은 고배, 대부장경호 등 신라토기가 유물의 절대량을 점유하고 있으며, 그 상한은 대체로 5세기 말엽 늦은 시기로 편년됐다.

59) 전주문화유산연구원, 「장수 삼고리 고분군 학술자문회의 자료」, 장수군, 2020.  
 60) 하나의 봉토에 토광묘와 석곽묘, 옹관묘가 함께 공존하는 것은 장수 삼고리 고분군이 유일하다.  
 61) 할평 신덕 1호분, 영암 내동리 쌍무덤 등 영산강유역에서 나온 오색 옥이 더 있다.  
 62) 당시는 물건과 물건을 직접 바꾸는 물물교환으로 장수 가야에서 생산된 철이 널리 유통됐음을 알 수 있다.  
 63) 장수 가야 철의 장인들이 철의 생산과 유통이 중단됨으로써 금기야 가야토기를 손수 만들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백제 영역으로 진출 이후 고령무원에 처한 장수 가야가 직접 가야토기를 생산해야만 했던 당시의 사회상과 시대상을 암시해 주는 것 같다.  
 64)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무주 대차리 고분군』, 무주군, 2020.

금강 동쪽과 남대천 북쪽 전북 무주군 일대로 신라의 서쪽 진출을 유구와 유물로 방증해 주었다. 신라 무산현 행정 치소 무주군 무풍면에서도 신라토기가 다량으로 출토되어<sup>65)</sup> 또 다시 신라의 서진(西進)을 뒷받침해 주었다. 당시 신라는 백제와 엄연히 나제동맹(羅濟同盟)을 맺은 상태였지만 5세기 4/4분기부터 백두대간 덕산재를 넘어 최근 대규모 철산지로 밝혀진 전북 무주군 일대<sup>66)</sup>로 신라의 진출이 유적과 유물로 입증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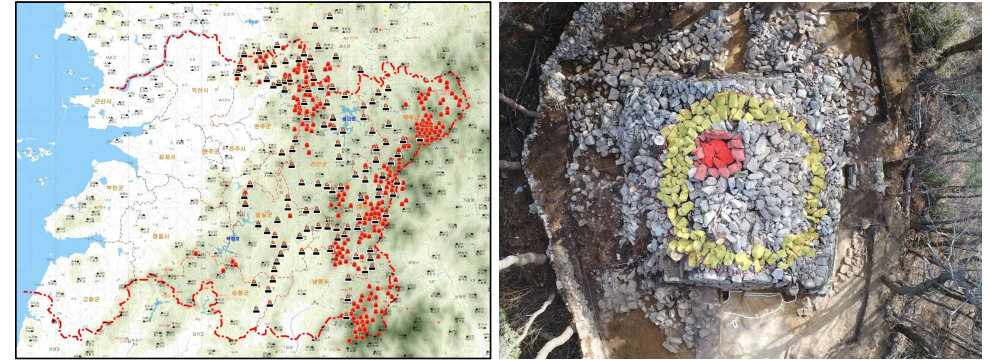


그림 18. 전북 동부 가야 봉화 및 제철유적 분포도      그림 19. 장수군 산서면 오성리 봉화봉 봉화 발굴 후 모습

주지하다시피 봉화(烽火)는 정치체의 존재와 정치체의 영역과 정치체의 국력을 대변해 준다. 이제까지 전북 동부에서 120여 개소의 가야 봉화가 그 존재를 드러냈다.<sup>67)</sup> 그러나 신라의 진출이 신라의 유적과 유물로 밝혀진 지역에서는 한 개소도 가야 봉화가 발견되지 않았다. 전북 가야의 영역도 가야 봉화방에 그 근거를 두고 설정됐다. 현재까지 여덟 갈래의 봉화로가 복원됐는데, 모든 봉화로의 최종 종착지가 백두대간 서쪽 금강 최상류 전북 장수군 장계분지이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장수군 장계분지에서는 120여 기의 가야 중대형 고총과 추정 왕궁 터로 가야 정치체의 존재를 알렸다. 장수 봉화산 봉화 등 일곱 개의 봉화가 장계분지를 조망하듯이 배치되어 있는데, 모두 여덟 갈래 봉화로의 최종 종착지이다. 장수 삼봉리 산성은 모든 봉화로의 정보가 하나로 취합되는 봉화봉<sup>68)</sup>으로 그 북쪽에 장수 가야 추정 왕궁 터가 있다. 이제까지 학술발굴에서 장방형의 봉화시설과 원형의 집수시설, 장수군 분묘유적 출토품과 흡사한 가야토기편이 출토됐다.

2021년 장수군 산서면 오성리 봉화봉 학술발굴에서 봉화대와 봉화시설의 구조, 봉화군의 주거공간 등이 일목요연하게 파악됐다.<sup>69)</sup> 남원 봉화산, 임실 봉화산, 장수 봉화산 등 모두 8

65) 全州大學校 博物館, 『茂朱地方文化遺蹟地表調查報告書』, 全羅北道·茂朱郡, 1988.  
 66) 최근 전북 무주군 덕유산을 중심으로 60여 개소의 제철유적이 밀집 분포된 것으로 밝혀졌다.  
 67) 조명일, 「전북 동부지역 봉수에 대한 일고찰」, 『호남고고학회』 제59집, 호남고고학회, 2018, 90~107쪽.  
 68) 면담조사 때 전북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 남산마을 주민들이 산봉우리를 봉화봉으로 부른다고 제보해 주었다.  
 69) 전주문화유산연구원, 「장수 봉화봉 봉화 학술자문회의 자료」, 장수군, 2021.

개소의 봉화 학술발굴에서 장수군 내 가야 분묘유적 출토품과 흡사한 가야토기편이 출토되어 그 역사성도 상당부분 고증됐다. 가야 고총과 가야 봉화대, 추정 왕궁 터 등을 근거로 금강 최상류 전북 장수군에 240여 기의 가야 고총을 남긴 가야 정치체인 장수 가야를 반파국으로 비정<sup>70)</sup>하고자 한다.

1500년 전 반파국이 전국에 봉화망을 구축할 수 있었던 국력은 어디서 나왔을까? 당시 국력의 원천은 철이다. 모든 가야의 영역에서 철기문화가 처음 시작된 곳이 전북 장수군 천천면 남양리 유적<sup>71)</sup>이다. 장수군은 또한 철광석을 녹여 철을 생산하던 가장 많은 제철유적을 학계에 알렸다.<sup>72)</sup> 전북 가야의 영역에서만 학계에 보고된 제철유적은 250여 개소에 달한다.<sup>73)</sup> 반파국이 철의 생산과 유통으로 국력을 다져 전국에 봉화망을 구축한 것이 아닌가 싶다.

전북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대적골 제철유적<sup>74)</sup>은 제련부터 정련, 주조까지 모두 담아낸 일관 제철소이다. 우리나라에서 최대 규모 제철유적으로 밝혀져 학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아직은 반파국과 제철유적의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았지만,<sup>75)</sup> 반파국 가야 고총에서 단야구 세트와 편자를 중심으로 마구류, 무구류 등 지역색이 강한 철기류가 출토되어 그 가능성을 한층 더 높였다.<sup>76)</sup> 일단 반파국이 봉화 왕국으로 융성하는데 철의 생산과 유통이 결정적인 공헌을 했을 것으로 유추해 두고자 한다.



그림 20. 남원 사석리 3호분 횡형식 석실분 발굴 후 모습

그림 21. 남원 사석리 8호분 석실 내부 관대 모습

이제까지의 지표조사를 통해 금강유역에서 발견된 가야문화유산은 그 종류가 다양하다.<sup>77)</sup> 무엇보다 가야의 영역에서 가야 봉화가 그 존재를 드러냄으로써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금강유역은 분묘유적과 관방유적, 통신유적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다. 가야사 국정과제로 생산유적을 찾는 정밀 지표조사가 진행되어 전북 가야의 영역에서만 250여 개소의 제철유적과 제동유적이 새롭게 발견됐다. 가야 영역에서 가야 고총과 봉화, 제철(동)유적이 함께 공존하는 곳은 금강유역이 유일하다.

전북 동부에 대규모 축성과 봉후(화)제를 운영한 반파국이 어떤 과정을 거쳐 백제에 의해 멸망됐는지, 언제부터 백제의 영토에 복속됐는지 속단할 수 없다. 장수 무농리·동촌리에서 백제 고분군이 장계분지와 장수분지에 산재해 있는데, 장수 동촌리는 가야 고총군에서 동북쪽으로 500m 가량 떨어진 곳이다. 아직은 백제 고분을 대상으로 발굴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영호남 가야 수장층 분묘유적에서 백제 묘제가 유일하게 확인되지 않는 곳이 반파국이다.

끝으로 장수 삼고리에서 삼족토기·병·횡병·배부병, 장수 동촌리에서 직구호·무투창 고배가 나왔는데, 백제토기는 6세기 초엽 늦은 시기로 편년됐다. 백두대간 산줄기 서쪽 금강 최상류 가야 분묘유적에서 백제토기의 등장을 근거로 6세기 초엽 늦은 시기까지도 백제에 의해 멸망되지 않고 가야 소국으로 반파국이 존속했음을 뒷받침해 주었다. 사비기 백제는 전북 장수군 장계분지에 백해(이)군[伯海(伊)郡]과 장수분지에 우평현(雨坪縣)을 설치해 백제의 영역으로 편입시켰다. 후백제까지 금강 최상류에서 장수군 장계분지가 최고의 정치 중심지를 이루었다.

70) 박장근, 「전북 동부 가야 봉화망과 반파국 비정」, 『문헌과 고고학으로 본 반파 가야』, 호남고고학회, 2021, 45~82쪽.

71) 한수영, 「장수지역 철기문화의 출현과 전개 -남양리 유적을 중심으로-」, 『백두대간을 품은 장수가야 철을 밝히다』, 호남고고학회·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6, 33~47쪽 ; 「아이언 로드, 철기문화의 뿌리를 찾아서」, 『문헌과 고고학으로 본 전북가야』, 호남고고학회, 2020, 155~190쪽.

72) 현재까지 장수군 일원에서 학계에 보고된 제철유적은 80여 개소로 단일 자치단체 중 최대 규모를 이룬다.

73)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2019, 앞의 책, 176~229쪽.

74) 전주문화유산연구원, 「장수 명덕리 대적골 제철유적 학술자문회의 자료」, 장수군, 2020.

75) 현지조사 때 기벽이 상당히 두껍고 표면에 격자문과 승석문이 시문된 회청색 경질토기편이 상당량 수습됐다.

76) 유명준, 「전북 동부지역 출토 철제무기의 전개양상과 의미」, 『호남고고학보』 제57집, 호남고고학회, 2017, 38~75쪽 ; 「철기유물로 본 전북지역 가야의 교류」, 『호남고고학보』 제59집, 호남고고학회, 2018, 64~88쪽.

77) 모든 가야 영역 중 가야의 중대형 고총이 포함된 분묘유적을 중심으로 통신유적과 제철유적, 제동유적이 공존하는 곳은 전북 장수군이 유일하다.

#### IV. 섬진강유역 백제와 가야의 공존

금남호남정맥 팔공산 서북쪽 기슭 중단부 데미샘<sup>78)</sup>에서 섬진강이 발원한다. 전북 동부에서 2/3 이상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섬진강유역<sup>79)</sup>은 백두대간과 낙남정맥, 금남호남정맥, 호남정맥이 자연경계를 이룬다. 섬진강유역에 일찍부터 섬진강이 공급하는 풍부한 물을 통해 농경문화가 발달했고, 섬진강 내륙수로를 이용하여 문화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한성기 백제의 중앙과 가야를 이어주던 옛길도 대부분 섬진강유역을 남북으로 종단한다.

섬진강유역은 가야 중대형 고총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한의 지배층 무덤으로 밝혀진 말(물)무덤만 조사됐다. 현지 주민들이 말무덤으로 부르는 것은, 남원시 대강면 방산리에서 7기 내외의 말무덤, 순창군 적성면 고원리에서 7기 내외, 남원시 대강면 방산리에서 섬진강을 건너 서남쪽으로 6km 가량 떨어진 전남 곡성군 옥과면 주산리에서 7기 내외의 물무덤이 있었다고 한다. 남원시 보절면 도룡리 도촌마을 동남쪽 구릉지에 3기의 말무덤만 봉토가 일부 남아있을 뿐이다.



그림 22. 임실 봉화산 토축형 봉화 발굴 전 모습

그림 23. 진안 서비산 암반형 봉화 봉화대 전경

임실 도인리 20호 주거지에서 마한의 조형토기가 출토되어<sup>80)</sup> 섬진강유역에서 마한의 존재를 알렸다. 남원 입암리 말무덤은 명갈색과 암갈색 점토로 분구를 쌓았고, 주구는 생토층을 거의 U자형으로 파내어 마련됐다. 1998년 발견매장문화재로 신고된<sup>81)</sup> 단경호와 광구장경호는 완주 상운리 등 전북 서부지역 마한 분구묘 출토품과 유물의 속성이 상통한다. 유구와 유물의 속성을 근거로 말무덤은 5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만들어진 마한의 분구묘로 밝혀졌

78) 진안군 백운면 신암리 원심암마을 위쪽 천상데미의 상추막이골에 자리한다. 천상데미의 '天上'은 하늘을 오르다는 뜻이며, '데미'는 '데미'의 전라도 방언으로, 그 뜻은 물건이 한데 쌓인 큰 덩어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천상데미'는 '하늘을 오르는 봉우리'를 의미한다.

79) 전북 남원시 서부권과 진안군 마령면·백운면·성수면, 장수군 변암면·산서면, 임실군과 순창군이 여기에 속한다.

80) 군산대학교 박물관, 『임실 도인리 유적』, 임실군, 2011.

81) 국립전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완주 상운리 등 전북 서부 마한 분구묘 출토품과 상통한다.

다.

섬진강유역에서 마한의 분구묘가 일시에 사라지게 만든 강력한 집단을 어디로 봐야 될 것인가? 마한의 지배층 무덤으로 추정되는 분구묘가 가야 고총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무슨 이유로 일시에 사라졌을까? 당시 역사적인 배경과 고고자료를 근거로 세 가지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영산강유역의 전용 옹관묘를 남긴 마한 세력, 둘째는 전북 동부에 기반을 둔 가야 소국, 셋째는 백제 근초고왕의 남정(南征)을 꼽을 수 있다.

이 가운데 첫 번째 가정은 전용 옹관묘와 장고분(長鼓墳)<sup>82)</sup>의 존재가 섬진강유역에서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개연성이 높지 않다. 두 번째 가정은 가야토기가 백제 토기와 섞인 상태로 출토됐지만 가야 정치체의 존재를 고고자료로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세 번째 가정은 공주로 천도 이후 백제의 혼란기를 제외하면 전북 서부지역과 마찬가지로 마한부터 백제까지 계속적인 발전과정이 분묘유적으로 입증되어 그 가능성이 가장 높다.

마한부터 백제까지 발전과정을 일목요연하게 담아낸 곳이 남원 사석리 고분군이다. 이곳에 봉분의 직경이 10m 내외되는 8기의 대형고분<sup>83)</sup>이 일정한 간격으로 산재해 있는데, 봉분의 크기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커진다. 남원 사석리 3호분은 타원형 주구를 두른 횡혈식 석실묘이다. 반지하식 석실은 그 평면형태가 장방형으로 길이 50cm 내외의 연도가 동벽에 잇대어 마련됐다. 석실의 동벽에 붙은 상태로 최대폭경이 동체부 중앙부에 자리한 단경호가 나왔는데, 유물은 5세기 후반을 전후한 시기로 편년됐다.<sup>84)</sup>

2020년 남원 사석리 8호분을 대상으로 학술발굴이 추진됐는데,<sup>85)</sup> 이 고분은 남쪽 기슭 가장 위쪽에 입지를 둔 횡혈식 석실분으로 직경 12m의 봉분 중앙부에 반지하식 석실이 마련됐다. 석실은 장방형으로 그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겐돌로 양쪽 장벽이 약간 내경되게 쌓은 뒤 3매의 판석형 활석으로 덮었다. 석실의 규모는 길이 347cm, 너비 185cm, 높이 167cm로 전북지역에서 익산 쌍룡 대왕묘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sup>86)</sup>

백제 중앙 묘제의 상징으로 알려진 관대가 석실 바닥 중앙에 마련됐는데, 그 규모는 길이 262cm, 너비 113cm, 높이 13cm이다. 석실 남벽 중앙에 높이 91cm, 너비 66cm로 현문이 마련됐다. 연도는 밖으로 약간 벌어진 팔자형(八字形)으로 길이 120cm이며, 배수로는 현문에서부터 길이 315cm로 만들었다. 1990년대 도굴로 유물은 석실의 동벽과 북벽이 만나는 바닥에서 상당히 크기가 큰 3점의 뚜껑과 관정 2점이 출토됐다.



그림 24. 만경강유역 완주 종리산성 봉화시설

그림 25. 섬진강유역 진안 서비산 봉화 봉화구



남원 사석리 8호분은 섬진강유역의 위상과 그 역사성을 일목요연하게 담아냈다. 하나는 마한과 백제 묘제가 하나로 응축됐고, 다른 하나는 백제 무왕이 잠든 익산 쌍릉 대왕묘에 이어 전북에서 두 번째로 석실의 길이가 크다. 또 다른 하나는 피장자의 시신을 모신 관을 없었던 관대시설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고분의 구조와 유물의 속성을 근거로 남원 사석리 8호분은 6세기 초엽 이른 시기로 편년됐다.

남원 입암리 등 섬진강 중류지역에 4개소의 말(물)무덤을 남긴 마한세력이 백제에 정치적으로 복속된 이후 남원 사석리 일대로 통폐합된 것 같다. 남원 사석리 8호분은 8기의 말무덤<sup>87)</sup> 중 가장 위쪽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봉분의 규모도 가장 크다. 따라서 분묘유적의 역사성과 함께 하한을 말해준다. 남원 사석리는 섬진강유역에서 웅진기 이른 시기까지 백제 지방 통치 거점이었음을 알 수 있다. 엄밀히 해석하면 왕자와 왕족이 지방관으로 임명된 담로제 혹은 왕후제와의 연관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남원 사석리 고분군을 제외하면 섬진강유역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가야문화와 백제 문화가 공존한다는 사실이다. 섬진강유역에서는 가야토기가 일색을 이루지 못하고 대부분 백제토기와 섞여 있거나 가야토기도 대가야와 소가야, 아라가야, 재지계 토기가 서로 섞여있다. 동시에 금강과 남강유역에서 밝혀진 가야세력의 연속적인 발전과정을 담은 가야계 분묘유적이 섬진강유역에서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1972년 임실군 입실읍 금성리 화성마을 동남쪽 산에서 사방공사를 실시하는 과정에 3기의 고분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sup>88)</sup> 당시에 유구가 심하게 유실 내지 훼손되어 고분의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지만 일단 수혈식 혹은 횡구식 석곽묘로 추정된다. 석곽은 대체로 그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깎돌을 가지고 수직으로 쌓았다. 최근까지 몇 차례 진행된 발굴에서도 가야계 수혈식 석곽묘가 더 이상 조사되지 않았다.

당시에 수습된 유물은 토기류와 철기류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장경호를 제외하면 백제토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철기류는 사곡검(蛇曲劍)과 철제대도, 철검, 철모, 모조철부·주조철부, 마구류, 그리고 위세품으로 알려진 살포가 있다.<sup>89)</sup> 우리나라에서 사곡검은 그 출토량이 그다지 많지 않으며, 살포는 논에서 물꼬를 트거나 막을 때 쓰는 농기구이다. 임실 금성리는 섬진강유역에서 교역망의 허브로 당시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유물로 학계에 알렸다.

2017년 임실 금성리 산자락 정상부에서 도랑을 두른 분구묘가 조사됐다.<sup>90)</sup> 방형 분구묘는 구릉지 정상부와 서쪽에 80cm 높이로 성토한 뒤 봉토 중앙에 매장시설을 배치했지만 매장시설의 구조가 상세하게 파악되지 않았다. 도랑은 직경 1620cm, 너비 310cm, 최대 깊이 180cm이다. 지금까지 운봉고원권과 진안고원 장수군에서 학계에 보고된 가야 중대형 고총보다 오히려 유구의 속성이 마한의 분구묘에 더 가까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6. 임실 금성리 고분군 출토 토기류



그림 27. 순창 구고리 고분군 출토 토기류

임실 금성리에서 나온 한 점의 장경호<sup>91)</sup>를 5세기 후반 대가야와 기문국 사이의 교역을 했다는 증거물로 제시하고 대가야가 당시 교역로를 통하여 기문국으로 침공해 들어간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토기류의 조합상은 장경호를 제외하면 단경호와 광구장경호, 고배 등은 대부분 백제토기이다. 따라서 아직도 가야 중대형 고총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 점의 가야토기를 근거로 대가야의 진출과 상기문을 임실군으로 비정한 주장<sup>92)</sup>은 논리의 비약이 아닌가 싶다.

2010년 임실군 청용면 석두리에서 수혈식 석곽묘가 조사되어 큰 관심을 끌었다.<sup>93)</sup> 백제 돌평형 치소성으로 추정되는 임실 구고리 산성에서 서남쪽 산자락 정상부에서 2기의 봉토분이 조사됐다. 수혈식 석곽묘는 그 평면형태가 세장방형으로 가야후기 고분의 특징을 잘 담아냈다. 유물은 가야토기와 백제토기가 혼재된 토기류와 철기류, 장신구류가 출토됐으며, 임실 석두리 1호분 내 3호 석곽에서 10여 점의 철못이 나와 상당한 관심을 끌었다.

2013년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에서 가야 고분이 그 존재를 드러냈다.<sup>94)</sup> 섬진강이 줄곧 남쪽으로 흐르면서 동쪽에 만들어 놓은 상당히 넓은 충적지에 위치<sup>95)</sup>한다. 당시 순창군 동계면과 적성면을 연결하는 도로공사 구역에 포함된 일부 지역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발굴에서 토광묘·옹관묘·석실묘 각각 한 기씩, 23기의 석곽묘가 조사됐다. 모두 삼국시대 무덤들로 섬진강 동쪽 평탄한 들판에 입지를 두어 섬진강유역의 지역성이 강하다.

순창 구미리에서 그 존재를 드러낸 한 기의 가야 고분은 백제 고분과 직교되게 동서로 장축방향을 두었다. 유물은 토기류와 철기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금동계 귀걸이, 가락바퀴도 포함되어 있었다. 무덤의 주인공이 생전에 쓰던 생활용품들로 마한계, 백제계 유물이 절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19호분에서 나온 가야토기편이 일부 섞여있었다. 섬진강유역으로 전북 가야의 진출을 암시해 줬지만, 전북 가야의 존속 기간은 길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점기부터 임실군 입실읍 일대에 가야 소국 상기문(上己汶)과 장수군 변암면 일대에 하기문(下己汶)이 있었던 것으로 본 견해<sup>96)</sup>가 널리 통용되고 있다. 그

87) 달리 왕무덤으로 남쪽 기슭에 자리하고 있는데, 봉분은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커진다.  
88) 全榮來, 『任實 金城里 石槲墓群』, 『全北遺蹟調查報告』第3輯, 全羅北道博物館, 1974.  
89) 아직은 유적과 유구로 고증되지 않았지만 완주 상문리처럼 전북 동부에서 생산된 무쇠가 2차 가공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90) 전라문화유산연구원, 『임실 금성리 방형분』, 임실군, 2020.

91) 무엇보다 대가야 양식보다 섬진강유역 재지계로 분류된다.  
92) 金泰植, 1993, 앞의 책.  
93) 전라문화유산연구원, 『임실 석두리 유적』, 익산지방국토관리청, 2012.  
94) 호남문화재연구원, 『순창 구미리유적』, 익산지방국토관리청, 2015.  
95) 전남 장성군 등 영산강유역에서 호남정맥을 넘어 전북 동부로 향하는 옛길이 통과하는 길목으로 그 북쪽에 순창 생이봉 봉화대가 있다.  
96) 金泰植, 『加耶聯盟史』, 一潮閣, 1993; 『미완의 문명 7백년 가야사』, 도서출판 푸른역사, 2002.

러나 전북 동부에서 정밀 지표조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야 소국의 존재를 증명하는 가야 중대형 고층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sup>97)</sup> 오히려 남원 사석리를 제외하면 백제 분묘유적은 사비기 백제의 행정치소로 비정된 중심부에 대부분 자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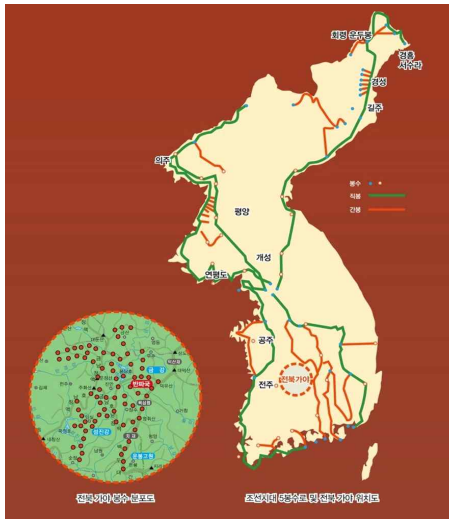


그림 28. 조선시대 5봉수로 및 전북 동부 가야 봉화망도

그런데 「양직공도(梁職貢圖)」<sup>98)</sup>에 상기문이 백제 변방의 소국으로 등장<sup>99)</sup>하여 그 존재가 문헌으로 확인된다. 상기문은 또한 우륵 12곡명 중 상·하기물(上·下奇物)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6세기 1/4분기까지도 가야 소국의 하나로 존속했다. 일제 강점기부터 줄곧 기문국이 삼진강유역에 있었던 곳으로 보고 있지만,<sup>100)</sup> 마한의 지배층 무덤으로 밝혀진 40여기의 말(물)무덤만 발견됐다. 남원 입암리 말무덤 학술발굴에서 그 실체가 마한 분구묘로 파악됐다.

선사시대부터 줄곧 문화상으로 점이지대를 이룬 삼진강유역은 백제 백성의 쇠환지로 점쳐진다. 백제 무령왕은 초기에 피폐해진 농가 경제를 회복하고 농업 노동력의 확보를 위해 두 가지의 경제정책을 펼쳤다.<sup>101)</sup> 하나는 중앙

과 지방을 막론하고 농토에서 이탈하여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다시 농토에 안착시키는 유식자귀농책(游食者歸農策)이며, 다른 하나는 가야 지역으로 도망간 백제 백성을 본래 고향으로 데려오는 인구추쇄책(人口推刷策)이다.

당시 가야 지역으로 도망간 백성을 데려오는 인구추쇄책은 인구 파악과 함께 농업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가야 지역으로 도망간 백제 백성들을 대상으로 절관(絶貫)한지 3~4대가 지난자들까지도 쇠환 대상에 포함시켜 대대적으로 추진됐다. 여기서 가야 지역은 삼진강유역의 동쪽에 인접되어 있으면서 제철유적 및 제동유적의 밀집도가 월등히 높은 남강유역의 운봉고원과 금강유역의 진안고원을 지칭할 것으로 판단된다.

97) 김낙중, 「삼진강유역의 백제와 가야 고고학 자료」, 『백제는 언제 삼진강유역으로 진출하였나』, 한성백제박물관, 2021, 1~36쪽.

98) 중국 양나라 元帝 蕭繹이 그린 臣圖이다. 당시 양나라에 파견된 외국 사절을 그림으로 그려 해설해 놓았다.

99) 백제의 변두리 지역에 있는 叛波, 卓, 多羅, 前羅, 斯羅, 止迷, 麻連, 上巴文, 下耽羅 등의 소국들이 백제에 떨어져 지낸다.

100) 李永植, 「百濟의 加耶進出過程」, 『韓國古代史論叢』 7, 財團法人 麗洛國史蹟開發研究院, 1995, 183~239쪽. 김병남, 「백제 웅진시대의 남방 재진출과 영역화 과정」, 『軍史』 6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 33~60쪽 ; 「백제의 '전북지역' 진출 과정과 추이 변화」, 『전북사학』 58, 전북사학회, 2020, 117~146쪽. 이동희, 「전남동부지역의 가야 계토기와 역사적 성격」, 『한국상고사학보』 46, 한국상고사학회, 2004, 71~112쪽. 김영심, 「백제의 지방지배 방식과 삼진강유역」, 『백제와 삼진강』, 서경문화사, 2008, 299~335쪽. 정재운, 「백제의 삼진강 유역 진출에 대한 고찰」, 『백제와 삼진강』, 서경문화사, 2008, 233~270쪽 ; 「백제의 삼진강 유역 진출」, 『백제는 언제 삼진강유역으로 진출하였나』, 한성백제박물관, 2021, 37~56쪽. 朴天秀, 「호남 동부지역을 둘러싼 大伽耶와 百濟 -任那四縣과 己汶, 帶沙를 중심으로-」, 『韓國上古史學報』, 韓國上古史學會, 2009, 107~130쪽.

101) 盧重國, 「百濟 武寧王代의 集權力 強化와 經濟基盤의 擴大」, 『百濟文化』 第21輯, 公州大學校附設 百濟文化研究所, 1991, 9~30쪽.

현재까지 운봉고원과 진안고원 일대에서 학계에 보고된 제철유적은 250여 개소로 우리나라에서 최대의 밀집도를 보인다. 지금도 전북 동부에서 제철유적을 찾고 알리는 지표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수가 늘어날 것으로 짐작된다. 동시에 제철유적의 설치 시기와 설치 주체를 밝히기 위한 학술발굴도 이제 막 시작됐다. 당시 가야 지역으로 도망간 백제 백성의 쇠환지로 삼진강유역이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꼽힌다.

가야 중대형 고층이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가야토기가 일색을 이루고 있는 가야의 수혈식 석곽묘도 조사되지 않았다. 일부 특정 지역에만 밀집된 가야의 분묘유적에서는 가야토기와 백제토기가 서로 반절씩 섞여있다. 더욱이 대가야와 소가야, 아라가야 토기가 서로 혼재된 것은 삼진강유역이 당시 교역망의 허브였음을 암시해 준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본격적인 가야토기의 등장은 백제의 인구추쇄책이 추진된 시기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삼진강유역에서 20여 개소의 봉화가 발견되어 반과국 진출이 입증됐다. 동진강 하구 가야포 등 전북 장수군 장계분지로 향하는 옛길을 따라 세 갈래의 봉화로가 선상으로 이어진다. 금강 혹은 남강유역과 달리 봉화대는 대부분 흙으로 쌓거나 자연 암반을 평탄하게 다듬어 아주 거칠고 조잡하게 만들어 강한 지역성을 보였다. 동시에 세 갈래의 봉화로가 시작되거나 통과<sup>102)</sup>하는 곳에 산성이 봉화와 세트관계를 이루면서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삼진강유역에서 줄곧 교역망 허브역할을 담당했던 임실 월평리 산성<sup>103)</sup> 서쪽 산봉우리에 임실 봉화산(烽火山) 봉화가 있다. 봉화산 정상부에서 토축형 봉화대와 불을 피우던 봉화시설, 봉화군이 생활하던 주거공간 등이 조사됐는데, 유물은 점토에 흑운모<sup>104)</sup>가 섞이고 중산모자형 꼭지가 붙은 개배의 개가 출토됐다.<sup>105)</sup> 장수 삼고리 3호분 출토품과 흡사하게 가야토기를 모방한 제지계<sup>106)</sup>로 봉화의 운영시기와 운영주체가 반과국으로 비정됐다.<sup>107)</sup>

어떤 과정을 거쳐 삼진강유역에 기반을 둔 세력집단이 백제에 편입됐는지, 언제부터 백제의 영토에 들어가게 됐는지 단정할 수 없다. 종전에 6세기 초엽 경 백제가 삼진강유역으로 진출했다든지, 6세기 전반기 이른 시기까지 문헌에 등장하는 기문국이 임실군, 장수군 번암면 등 삼진강유역에 있었다는 주장<sup>108)</sup>은 고고자료로 입증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축적된 고고자료를 근거로 한성기 때 삼진강유역이 백제에 정치적으로 편입된 것으로 설정해 두고자 한다.

그러다가 백제 무령왕이 반과국과 513년부터 515년까지 3년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운봉고원 기문국과 대사<sup>109)</sup>가 백제에 복속했다. 이 무렵 삼진강유역 정치 중심지도 남원 사석리에서 남원 초촌리·척문리<sup>110)</sup> 일대로 옮겨진다. 백제의 중흥을 위해서는 운봉고원 철산지를

102) 영산강유역 마한세력이 전북 가야와 교류할 때 대부분 통과했던 오수천을 따라 10여 개소의 산성이 집중 배치되어 있다.

103) 모두 두 차례의 시(발)굴에서 깊이 200cm 내외에서 한성기 문화층이 확인되어 커다란 주목을 받았던 곳이다.

104) 장수군을 중심으로 한 전북 동부에서 광범위하게 분포된 광석으로 철의 함유량이 대단히 높다.

105) 전상학, 「임실 봉화산 봉화 출토유물 검토」, 『임실 봉화산 봉화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2021, 25~36쪽.

106) 가야토기를 모방하여 만들었지만 흑운모 등 태토 성분, 문양의 시문기법, 기형에서 강한 지역성을 보인다.

107)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2021, 『임실 봉화산 봉화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 전라북도-임실군.

108) 가야 중대형 고층, 위세품 등 고고자료로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109) 일제강점기부터 帶沙, 多沙를 동일한 곳으로 본 견해가 큰 지지를 받고 있지만 삼진강유역에서 마한의 통폐합 이후 6세기 초엽까지 정치 중심지를 이룬 南原市 帶江面 沙石里 일대를 帶沙로 비정하고자 한다.

대단히 엄중하게 인식했던 백제의 국가전략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금강유역 반파국과 남강유역 기문국으로 향하는 두 갈래 옛길에 남원 초촌리<sup>111)</sup>에서 하나로 합쳐지는데, 이곳은 섬진강유역 최대 규모 분묘유적으로 남원 척문리 산성과 함께 사비기 백제 고통군 행정치소이자 남방성<sup>112)</sup>으로 비정된 곳이다.

## V. 맺음말

이상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가야 정치체의 위치 비정은 역사고고학의 범주에 속한다. 문헌의 내용이 유적과 유물로 입증되면 학계의 논의와 함께 결론 도출도 가능하다. 현재까지 전북 동부에서 그 존재를 드러낸 마한의 분구묘 및 가야 고총은 420여 기에 달하며, 가야 고총에서 마한 묘제가 계승되어 강한 지역성과 독자성도 확인됐다. 가야 고총에서 금동신발 등 위세품과 위신제, 중국 및 왜와 관련된 유물도 출토됐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120여 개소의 가야 봉화와 여덟 갈래의 봉화로도 복원되어 문헌에 등장하는 가야 정치체의 존재를 유적과 유물로 확증했다.

남강유역에 속한 운봉고원은 호남의 전략상 요충지로서 심층지에도 그 이름을 올렸다. 운봉고원에 지역적인 기반을 둔 기문국은 4세기 후엽 늦은 시기에 처음 등장해 6세기 초엽 이른 시기까지 존속했다. 백두대간이 난공불락의 요새를 이루었고, 줄곧 백제와 가야 문물교류의 큰 관문을 이루었다. 당시 대규모 철산개발과 거미줄처럼 잘 구축된 교역망을 통한 철의 생산과 유통이 결정적인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운봉고원은 철의 생산부터 주조기술까지 하나로 응축된 철의 테크노밸리로 추론했다. 현재까지 운봉고원에서 그 존재를 드러낸 제철 유적은 40여 개소에 달한다. 우리나라에서 단일 지역 내 제철유적의 밀집도가 가장 높다.

운봉고원 일대에 180여 기의 마한 분구묘와 가야 중대형 고총, 금동신발과 청동거울 등 위세품이 출토됨으로써 기문국의 존재를 고고자료로 뒷받침해 주었다. 백제를 비롯하여 대가야, 아라가야, 소가야 등이 운봉고원에서 생산된 니켈 철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최고급 위세품과 최상급 토기류를 기문국에 보냈다. 삼국의 위세품과 중국계, 왜계 유물이 함께 공존하는 곳은 모든 가야 영역에서 기문국이 유일하다. 그러다가 6세기 초엽 이른 시기 백제의 가야 진출로 백제에 정치적으로 복속됐다가 554년 육천 관산성 전투에서 백제가 패배함에 따라 전북 동부 철산지가 대부분 신라 영역으로 편입됐다.

운봉고원은 그 중심지가 네 번 이동된 것 같다. 기원전 84년 마한 왕이 지리산 달궁계곡에서 달궁 터를 닦고 71년 동안 국력을 키워 운봉읍 장교리 연동마을로 이동해 말(물)무덤을 남겼다. 운봉고원의 마한세력은 가야문화를 받아들이기 이전까지 정치 중심지를 운봉읍

장교리 일대에 두었다. 그러다가 4세기 말엽 경 가야문화를 받아들이고 아영면 월산리·청계리 일대에서 잠시 머물다가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로 중심지를 옮겼다. 남원 월산리·청계리는 반달모양 산자락이 휘감아 자생 풍수에서 최고의 명당을 이룬다.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는 기문국의 마지막 도읍으로 비정했다.



그림 29. 남원 월산리 M-A호 출토 복발형 투구      그림 30. 남원 월산리 M5호분 출토 투구, 철갑      그림 31. 기문국 출토 역자형 철촉

금강 최상류 진안고원 내 장수군에 지역적인 기반을 둔 반파국은 4세기 말엽 경 처음 등장해 가야 소국으로 성장하다가 6세기 초엽 경 백제에 의해 멸망했다. 금남호남정맥 산줄기가 백제의 동쪽 진출을 막았고, 사통팔달했던 교역망의 장악, 대규모 구리 및 철산개발이 결정적인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장수 노곡리·장계리 마한의 분구묘가 연속적인 발전과정을 거쳐 240여 기의 가야 중대형 고총이 진안고원 내 장수군에서만 발견됐다. 장수 삼고리는 반파국 하위계층 분묘유적으로 대다수 가야를 중심으로 백제, 신라, 마한계 최상급 토기류를 거의 다 모았다. 달리 삼국시대 토기 박물관으로 철의 생산과 유통을 유물로 암시해 주었다.

장수 남양리는 가야 영역에서 철기문화가 처음 시작된 곳으로 금강 최상류에 위치한다. 장수군 장계리 8호분 주석곽에서 망치와 모루, 집게가 세트로 나왔는데, 그 크기가 작아 2차 단야구이다. 장수 동촌리 19호분에서 나온 말발굽은 당시 철의 생산부터 가공기술까지 하나로 응축된 주조기술의 집약체이다. 장수 명덕리 대적골 등 금강유역에서 160여 개소의 제철 유적이 밀집 분포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단일 지역 내 최대의 밀집도이다. 백두대간 산줄기 서쪽 유일한 가야 소국 반파국은 철의 생산과 유통으로 부국강병을 이룩한 뒤 전국에 가야 봉화망을 구축했고, 기문국을 지키기 위해 백제와 3년 전쟁을 치르면서 봉화(후)를 운영했다.

장수군 장계분지에서 중심지가 두 번 이동된 것으로 추정된다. 첫 번째 중심지는 마무산(馬舞山) 부근으로 장수군 계남면 침곡리 고기마을로 달리 옛터로 불리는 곳이다. 두 번째는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 탐동마을로 자생 풍수에서 최고의 명당을 이룬다. 반파국의 추정 왕

110) 洪思俊, 「南原出土 百濟冠飾具」, 『考古美術』 90, 韓國美術史學會, 1968, 363-364쪽.  
 111) 全榮來, 「南原, 草村里古墳群 發掘調査 報告書」, 『全北道遺蹟調查報告』 第12輯, 韓國文化財保護協會 全北道支部, 1981.  
 112) 최완규, 「전북지역의 가야와 백제의 역동적 교류」, 『호남고고학보』 59, 호남고고학회, 2018, 4-24쪽.

궁터로 장수군 장계분지 주산으로 알려진 성주산(聖主山)에서 뻗어 내린 산자락이 반달모양으로 감싸고 있다. 전북 동부에서 그 존재를 드러낸 120개소의 봉화에서 실어온 모든 정보가 하나로 취합되는 장수 삼봉리 산성과 120여 기의 가야 고총으로 상징되는 장수 백화산 고분군이 그 부근에 위치한다.

전북 장수군을 제외한 금강유역은 반파국의 경제, 국방의 거점이었다. 전북 완주군·무주군, 충남 금산군에서 시작된 네 갈래의 봉화호가 금강유역을 통과한다. 가야 봉화는 대체로 산봉우리 정상부를 평탄하게 다듬고 혹은모 편마암으로 장방형 봉화대를 만든 석축형이다. 봉화대 정상부에는 불을 피우는 봉화시설이 있는데, 봉화시설은 2매의 장대형 석재를 10cm 내외의 간격으로 나란히 놓고 그 주변을 원형으로 경계석을 둘렀다. 암반형은 자연암반을 원형 혹은 장구형으로 파내어 봉화구를 마련했다.

금강유역은 또한 지하자원의 보고이다. 현재까지 160여 개소의 제철유적이 학계에 보고됐는데, 무주군 무풍면과 덕유산, 운장산 일원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가야와 백제, 신라의 유적과 유물이 공존하는 무주군은 제철유적의 밀집도가 월등히 높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동광석을 녹여 구리를 생산하던 진안군 동향면 대량리 제동유적도 금강 최상류에 위치한다. 앞으로 더 많은 제동유적이 발견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반파국이 가야 봉후(수)제를 운영할 수 있었던 국력의 원천도 금강유역의 제철유적 및 제동유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론했다.

전북 동부에서 가장 넓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 삼진강유역이다. 일제강점기부터 전북 남원시, 임실군 일대를 기문국으로 본 견해가 한 세기 동안 큰 지지를 받았던 곳이다. 그러나 전북 남원시와 순창군, 전남 곡성군 일대에 마한의 지배층 무덤으로 밝혀진 40여 기의 분구묘가 보고됐지만, 가야 중대형 고총은 여전히 발견되지 않고 있다. 마한의 분구묘가 자취를 감춘 이후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가 6세기 초엽까지 정치 중심지를 이루었다. 그러다가 6세기 초엽 중심지가 남원 사석리에서 이백면 초촌리·척문리 일대로 다시 이동한 것으로 밝혀져 마한부터 백제까지의 지속적인 발전과정이 분묘유적으로 입증됐다.



그림 32. 티키에서 운봉고원 기문국을 거쳐 일본열도까지 아이언 로드 추정 복원도

삼진강유역은 한성기 백제의 진출과 함께 백제 지방 통치 거점과 가야에서 돌아온 백제 백성의 쇄환지로 보았다. 기문국의 존재를 증명해 주는 가야 중대형 고총이 발견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 분묘유적에서 백제와 가야의 유물이 공존한다. 삼진강 상류에서 그 존재를 드러낸 20여 개소의 가야 봉화는 대부분 거칠고 조잡하게 쌓은 석축형과 토축형, 암반형이 공존하며, 관촌·임실·순창봉화호가 삼진강 상류를 동서로 가로질러 장수군 장계분지를 향한다. 현재까지 축적된 고고학 자료에 의하면 삼진강유역은 문헌의 내용이 유적과 유물로 증명되지 않아 가야 정치체의 존재가 입증되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지금까지 축적된 고고자료로 운봉고원의 가야 정치체를 기문국으로 비정했다. 마한 분구묘와 가야 고총 180여 기와 가야계 산성 및 봉화, 금동신발·수대경·계수호·철제초두 등 최고의 위세품, 목판에 사용된 격쇠 등을 그 근거로 삼았다. 기문국의 위치 비정은 몇 가지 핵심 조건들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문헌에 6세기 초엽까지 등장하기 때문에 가야 고총이 무리지어 있어야 하고, 백제와 우호관계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반파국과 국경을 맞댄 신라는 반파국으로부터 커다란 피해를 입었다. 문헌에 실과 바늘처럼 함께 등장하는 봉화 왕국 반파국은 기문국을 지키기 위해 봉화(후)제로 백제와 3년 전쟁을 치른 양국의 정략관계도 증명되어야 한다. 운봉고원에 지역적인 기반을 둔 기문국은 유적과 유물, 즉 고고자료로 문헌의 핵심 내용을 모두 충족시켰다. 기문국 비정은 역사고고학의 연구방법인 고고자료를 문헌의 연구성과에 접목시켜 이루어졌음을 밝혀둔다.

기문국의 가야 고총에서 최고의 위세품을 중심으로 토기류, 철기류, 장신구류 등 동북아를 아우르는 유물이 나왔다. 더군다나 차양이 달린 복발형 투구와 역자형 철도, 무기류, 무구류, 농공구류 등 상당수 철제품이 기문국에서 직접 제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6세기 중엽경 전북 동부 칠산지가 대부분 신라 영역에 편입되자 왜(倭)에서는 갑자기 철을 생산하기 시작한다. 철의 왕국 기문국의 발전을 이끈 제철집단이 당시 최고의 선진문물인 제철기술을 가지고 바다 건너 일본열도로 이주했을 개연성도 충분하다. 일본열도에서 기문, 반파로 비정된 오카야마 일대는 전통식 제철법과 이주식 제철법(타타라 제철법)이 공존하고, 한국식 산성의 존재가 확인되어 그 개연성을 더욱 높였다. 전북 동부 운봉고원에 지역적인 기반을 둔 철의 왕국 기문국은, 터키 히타이트를 출발해 중국을 거쳐 왜까지 이어진 아이언로드(Iron-Road)의 교량역할을 담당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

2018년 3월 28일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이 호남지방에서 처음으로 국가 사적 제542호로 지정됨으로써 100대 국정 과제에 초대된 가야사 조사 연구 및 정비를 위한 첫 마중물이 됐다. 그리고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목록에도 최종 선정된 뒤 현장답사 때 중국, 일본학자들로부터 최고의 평가를 받았다. 2019년 10월 1일 반파국 지배층 분묘유적인 장수동촌리 고분군이 국가 사적 제552호로 지정됐다. 앞으로 더 많은 국가 사적을 지정 받기 위해 전라북도와 7개 시군의 전략 수립과 지속적인 학술조사가 요망된다. 동시에 전북 동부에 마한 분구묘 및 가야 고총, 가야계 산성 및 봉화, 제철유적을 남긴 전북 가야사를 올바르게 복원하기 위해 지역 간 혹은 학제 간 융복합 연구가 시작됐으면 한다. 동시에 한일 간 고대철기문화 복원 프로젝트도 기획됐으면 한다. 기문국의 비정은 고고자료를 문헌에 접목시키는 역사고고학의 범주에 속한다.

# 가야와 임나일본부

## - ‘임나=가야설’ 과 호남가야(임나)-

이덕일(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

---

### < 목차 >

---

- I. 들어가는 글
  - II. “임나=가야설” 외에는 모두 삭제한 남한 강단사학계
  - III. “임나=가야설” 은 사료로 뒷받침되는 학술이론인가?
  - IV. 《일본서기》는 《삼국사기》의 양립 가능한가?
  - V. 호남 임나(가야)의 탄생
  - VI. 나가는 글
- 

## I. 들어가는 글

가야사를 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삼국유사》·《삼국사기》를 비롯한 한국 사료를 기준으로 보는 시각과 《일본서기》를 기준으로 가야사를 보는 시각이 있다. 《일본서기》를 기준으로 가야사를 보는 시각은 크게 두 학설로 나뉘어 있다. 하나는 《일본서기》의 ‘임나’를 한반도 남부의 ‘가야’로 보는 시각으로 ‘임나=가야설’이라고 한다. 이는 메이지[明治]시대 이래 일본 군국주의자들과 일본인 식민사학자들의 주장으로 현재 남한의 대학 사학과를 장악한 강단사학자들이 지지한다. 다른 하나는 가야계가 일본 열도에 진출해서 세운 분국이 임나라는 ‘분국설(分國說)’로서 북한 역사학계 및 남한의 민족사학계가 지지한다. 가야 분국 임나의 위치에 대해서는 크게 대마도설, 큐슈설, 오카야마[岡山]설 등으로 나뉜다.

‘임나=가야설’과 ‘분국설’은 가야사에 대한 시각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임나=가야설’은 야마토왜가 369년부터 562년까지 가야를 점령했거나 가야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인데, 가야는 결국 야마토왜의 식민지라는 것이다.

‘분국설’은 임나는 가야계가 일본 열도에 세운 소국이라는 주장으로, 1963년 북한학자

김석형이 처음 주장한 것이다.<sup>1)</sup> 김석형은 《일본서기》에 나오는 고구려·백제·신라 등은 본국(本國)이 아니라 이 본국들이 일본 열도에 세운 분국(分國)들의 이야기라는 분국설을 제창해서 일본 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임나에 대해서 야마토왜가 가야에 세운 식민지라고 보는 시각과 가야계가 일본 열도에 진출해서 세운 소국이라는 두 시각이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학계는 1963년 김석형이 ‘분국설’을 제창한 이래 제일교포 출신의 조희승이 이를 발전시켜 《임나일본부 해부》를 편찬<sup>2)</sup>한 반면 일본의 극우파 역사학자들과 남한의 제도권 내 대학 사학과와 역사관련 국책기관<sup>3)</sup>을 장악한 강단사학계는 분국설을 이구동성으로 비판하면서 “임나=가야설”을 주장하고 있다. 남한 강단사학계는 총론과 서론에서는 늘 “임나일본부설을 극복했다”고 자찬(自讚)하지만 본론에서는 ‘임나는 가야’라고 모순된 주장을 펼친다. 그런 예의 하나를 홍익대학교 교수 김태식의 말을 통해서 살펴보자.

“임나일본부설은 일제시기 일본이 우리에게 강요한 식민사관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그들은 이것을 통해 한국고대사를 왜곡시키고 한국인에게 열등감을 조장했다. 사실 그들이 ‘임나’라고 부르는 곳은 고대 한반도의 가야 지역에 해당한다.”<sup>4)</sup>

임나일본부설은 일제 식민사관의 대표로서 “한국고대사를 왜곡시키고 한국인에게 열등감을 조장했다”고 비판해놓고 다음 문장에서는 “사실 그들이 임나라고 부르는 곳은 고대 한반도의 가야 지역에 해당한다”고 임나일본부설에 동조했다. 총론·서론과 본론의 이런 모순은 김태식뿐만 아니라 남한 강단사학계의 가야사 전공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기이한 현상이다.

그런데 남한 강단사학계에서 《삼국사기》의 가야가 《일본서기》의 임나인지에 대한 학문적 검증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임나=가야설”을 전제로 하위논리만 전개해왔던 것이다. 본고는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가야가 과연 임나와 동일한 정치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 다음으로 《일본서기》에서 임나일본부설을 성립시켰던 기본 사료인 〈신공기(神功紀)〉를 검토해 과연 임나일본부설이 학문적으로 수립 가능한 이론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호남가야라는 용어가 학문적으로 수립 가능한 용어인지도 살펴보고 한다.

## II. “임나=가야설” 외에는 모두 삭제한 남한 강단사학계

어느 이론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검증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남한 강단사학계의 이른바 ‘임나=가야설’은 이런 검증을 생략했다. 그 한 예를 살펴보자. 남북한 및 일본까지 통틀어서 고대 한일관계에 대해 가장 많은 논문과 학술저서가 있는 학자는 고 최재석 고려대 명예교수다. 그런데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국고로 《역주 일본서기 1·2·3》을 출간하면서 1권 말미의 559-592쪽까지 무려 33쪽에 달하는 참고문헌을 열거했는데 최재석이란 이름 자체가 없다.<sup>5)</sup> 다른 책도 아닌 《일본서기》의 역주를 달면서 최재석 교수를 빼놓을 수는 없다. 그는 《고대한일관계와 일본서기》, 《일본서기의 사실기사와 왜곡기사와 고대 한일관계를 중심으로》<sup>6)</sup>이라는 《일본서기》를 직접 주제로 삼은 두 권의 저서를 비롯해서 고대 한일관계를 서술한 《백제와 야마토왜의 일본화과정》, 《일본고대사연구비판》, 《고대한일불교관계사》, 《고대한국과 일본열도》, 《일본고대사의 진실》, 《고대한일관계사 연구비판》, 《고대한일관계사 연구》<sup>7)</sup> 등 이 주제와 관련해서 국내에서 가장 많은 직접적 저서가 있는 연구자이기 때문이다. 가장 많은 저서, 논문을 가진 연구자를 참고문헌 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들이 학자집단이라기 보다는 특정 도그마를 추구하는 정치집단이라는 사실을 시사한다. 이들이 추구하는 도그마란 물론 고대 야마토왜가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임나=가야설”이다. 최재석 교수의 저서와 논문을 참고문헌에서도 왜 제외했는지는 최재석 교수의 다음 기사가 잘 말해준다.

“필자는 아무리 읽어도 《일본서기》에서 가야와 미나나(임나)가 동일한 나라라는 기사를 찾지 못하였으며, 또한 가야는 물론이러니와 이른바 임나가 ‘일본부’의 지배를 받았다는 기사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가야와 미나나(임나)가 동일국이라는 주장은 일본인학자들의 역사왜곡에서 비롯됨을 알게 된다. 이러한 왜곡 주장은 《삼국사기》가 조작·전설이라고 하는 주장과 함께 한국 사학계에도 영향을 주어 한국학계의 통설 내지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병도·김정학·이기동·김현구처럼 가야와 임나가 동일하다고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한 공언은 하지 않더라도 양자(兩者)가 동일하다는 전제로 논리를 전개시키는 사람도 있다.”<sup>8)</sup>

최재석 교수는 ‘임나=가야설’이라는 남한 강단사학계의 도그마를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학자였기에 존재하지 않는 인물로 치부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병선 전 부산대 교수의 《임나국과 대마도》<sup>9)</sup>라는 저서는 임나를 대마도라고 서술했다는 이유로 삭제시켰다. 김인배·김문배 공저의 《임나신론-역설의 한일고대사》<sup>10)</sup>는 임나국이 류슈(九州)에 있었다고

1) 김석형, 〈삼한 삼국의 일본 열도 내 분국들에 대하여〉, 《역사과학》63-1, 1963. 김석형, 《초기조일관계연구》, 사회과학원출판사, 1966.

2) 이 책은 남한에서도 《북한학자 조희승의 임나일본부 해부》(말, 2019)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3)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등

4) 김태식, 역사비평편집위원회, 『한국 전근대사의 주요쟁점』, 역사비평사 2008, 78쪽

5) 연민수·김은숙·이근우·정효운·나행주·서보경·박재용, 《역주 일본서기》(동북아역사재단, 2013), 559-592쪽.

6) 최재석, 《고대한일관계와 일본서기》(일지사, 2001), 《일본서기의 사실기사와 왜곡기사와 고대 한일관계를 중심으로》(집문당, 2012)

7) 최재석, 《백제와 야마토왜의 일본화과정》(일지사, 1990), 《일본고대사연구비판》(일지사, 1990), 《고대한일불교관계사》(일지사, 2998), 《고대한국과 일본열도》(일지사, 2000), 《일본고대사의 진실》(수정증보, 경인문화사, 2010), 《고대한일관계사 연구비판》(경인문화사, 2010), 《고대한일관계사 연구》(경인문화사, 2010)

8) 최재석, 《임나왜곡사 비판》, 《통일신라-발해와 일본의 관계》, 일지사, 1993.

9) 이병선, 《임나국과 대마도》(1987, 아세아문화사) 이 책은 582쪽에 이르는 방대한 저서로서 임나국이 대마도에 있었다고 논증하고 있다.

논증했다는 이유로 참고문헌에서 배제했다.

북한학계의 경우 김석형의 《초기조일관계연구》만 형식적인 참고문헌으로 들어갔을 뿐 그 내용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일본인들의 임나일본부설에 큰 충격을 준 논문 〈삼한 삼국의 일본 렬도 내 분국들에 대하여〉도 참고문헌에서 누락시켰다. 또한 김석형의 학설을 계승발전시킨 조희승의 《임나일본부 해부》와 《가야사》는 물론 《일본에서 조선 소국의 형성과 발전》<sup>11)</sup>도 모두 누락시켰다.

반면 조선총독부와 경성제대 교수 출신의 식민사학자 이마니시 류(今西龍)는 물론 명성황후 시해에 가담한 낭인 야쿠자 아유카이 후사노신(鮎貝房之進), 일제 패전 후 야마토왜가 경상도는 물론 충청도·전라도까지 차지했다고 주장한 스에마쓰 야스카즈(末松保和)의 논문과 저서 등은 빼놓지 않고 참고문헌에 수록했다.<sup>12)</sup> 이 사례는 남한의 이른바 강단사학자들이 일본인 식민사학자들의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고대 야마토왜가 가야를 지배했다는 “임나=가야설” 외의 학설들은 폭력적으로 제거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북한의 조희승은 《일본에서 조선소국의 형성과 발전》 머리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초기조일관계 1,000년의 역사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광개토왕릉비》 비문에 나오는 왜의 성격과 신묘년 기사 독법, 구마모포현 에다 후나야마 무덤에서 나온 갈의 명문해석, 나라현 이소노가미 신궁에 소장된 백제 철지도 등의 명문 해석, 다 이센, 곤다야마 무덤의 축조연대, 야마토정권의 성립연대 등을 해명하여야 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임나일본부》의 정체를 밝혀내는데 모를 박아야 할 것이다.<sup>13)</sup> 왜냐하면 그것은 지난 세기말부터 위에서 든 자료의 문제들이 임빠른 일제어용학자들에 의해 고대 일본 야마토정권이 남부 조선을 200년 동안이나 식민지로 삼고 통치하였다는 이른바 《임나일본부》 설을 근거짓는 《근본자료》로 역지로 꾸며놓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임나일본부》 설이 더디고선 여러 자료들을 그 본연의 모습, 왜 위치에 갖다 놓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초기 조일관계 1,000년사의 참모습은 오리무중 속에서 밝혀지게 될 것이며 복잡하게 얽힌 조일관계는 비로소 매듭지어지게 될 것이다.”<sup>14)</sup>

조희승은 이 책에서 “(《일본서기》의) 그 기록들이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였다면 그것은 조선반도의 임나나 신라가 아니라 일본렬도에 있던 조선계통 소국들에 대한 기록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sup>15)</sup>라고 밝혔다. 《일본서기》의 신라·고구려·백제·임나는 본국(本國)들이 열도에 세운 분국(分國)에 관한 기록이라는 것이다.

김석형·조희승으로 대표되는 북한 학자들의 분국설은 남한학자들의 총론적 서술에 비해서 아주 정교하다. 일본의 특정지역을 신라·고구려·백제·가야(임나)의 분국이라고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남한 강단사학계의 “임나=가야설”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김태식은 이렇게 말했다.

10) 김인배·김문배, 《임나신론-역설의 한일고대사》(1995, 고려원) 이 책은 759쪽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의 저서로서, 임나가 류슈에 있었다고 논증하고 있다.  
11) 조희승, 《일본에서 조선소국의 형성과 발전》(백과사전출판사, 1990) 548쪽에 이르는 이 방대한 서적은 일본열도 내에 신라, 고구려, 백제, 가야계 소국이 열도 곳곳에 존재하고 있었다고 논증하고 있다.  
12) 今西龍, 《加羅疆域考(1919)》, 《己汶伴跋考(1922)》 등 논문 4편과 《百濟寺研究(1970)》의 저서 1권, 鮎貝房之進, 《日本書紀 朝鮮地名攷(1931)》, 末松保和, 《任那興亡史(1949)》, 이마니시 류는 기문이 지금의 남원이라고 주장한 식민사학자이고, 아유카이 후사노신과 스에마쓰는 경상도는 물론 충청도, 전라도까지 모두 임나의 강역이었다고 주장한 식민사학자들이다.  
13) ‘모를 박다’는 ‘특별히 힘을 기울이다’라는 뜻이다.  
14) 조희승, 《일본에서 조선소국의 형성과 발전》, 백과사전출판사, 1990, 7쪽.  
15) 조희승, 《일본에서 조선소국의 형성과 발전》, 백과사전출판사, 1990, 323쪽.

“그러므로 비교적 신빙성이 인정되는 전자의 다수 용례를 중심으로 볼 때, 임나는 6세기의 한반도 남부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신라나 백제에 복속되어 있지 않은 소국들의 총칭을 가리킨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요컨대 대가야를 중심으로 파악되는 5-6세기의 후기 가야 연맹을, 왜에서는 무슨 이유에선가 임나라는 명칭으로 불렀다.”<sup>16)</sup>

‘비교적 신빙성이 인정’ ‘가리킨다고 보아도 좋을’ ‘왜에서는 무슨 이유에선가’ 등의 비학술적 용어를 남발하면서도 결론은 “임나=가야설”에 가담아 있다.

과연 ‘임나=가야설’ 즉, 가야와 임나가 동일국가라는 설은 역사학적 방법론에 의해서 검증 가능한 이론인지를 살펴보자. 사실 이 문제는 어려운 과제가 아니다. 아메리카(America)가 미국(美國:米國)과 동일국인지 아닌지를 밝히는 것처럼 간단한 문제이다.

### Ⅲ. “임나=가야설”은 사료로 뒷받침되는 학술이론인가?

메이지 이후 일본군 참모본부 및 일본과 남한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임나=가야설”을 정리하면 대략 3가지 논리로 나뉜다. 첫째, 가야에 임나라는 이름을 하사한 것은 《일본서기》상의 11대 왕17) 수인(垂仁: 재위 서기전 29~서기 70)이라는 것이다. 일왕 수인이 가라국의 이름을 임나(미마나)로 고쳐 하사했다는 것이다. 둘째, 《삼국사기》를 비롯한 한국의 고대 사서들은 조작되었다는 것이다. 한일 강단사학계의 도그마인 ‘《삼국사기》 초기기록 불신론’이 그것이다. 셋째 일왕 중애(仲哀)의 부인 신공(神功:재위 201~269)이 신라는 물론 고구려, 백제를 비롯한 삼한을 정벌했고 가야땅에 임나일본부를 세웠다는 것이다. 이 세 번째 주장은 일제 패전 후 부분적으로 약화되었다. 신공 때 삼한을 모두 정벌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삼한을 정벌했다는 신공 9년(서기 209)조의 기사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가야를 점령했다는 신공 49년(서기 249)조는 사실이라는 것이다. 신공 9년의 삼한 정벌이라는 전체에서 이후 신라정벌과 임나일본부 설치 등의 기사가 나오므로 신공 9년조를 사실이 아니라고 본다면 그 이후의 정벌기사도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해야 하지만 이는 인정하지 않는다. 일관성 있는 관점으로 사료를 보는 것이 아니라 분절적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인 식민사학자들의 “임나=가야설”을 대략 살펴보면, 1848년 반 노부토모(半信友)는 ‘임나(任那:미마나)’라는 명칭이 《일본서기》상의 10대 왕 숭신(崇神:재위 서기전 97~서기전 30)의 이름에서 연유되었으며, 이때 일본은 이미 한국에 진출해서 통치했고, 《삼국사기》는 믿을 수 없는 역사서라고 주장했다. 그 후 일본 육군참모본부에서 1882년에 《임나고고(任那考稿)》, 《임나명고(任那名考)》를 간행했고, 1893년 간 마사토모(菅政友)가 한국의

16) 김태식, 『미완의 문명 7백년 가야사 1』, 푸른역사, 2002, 66-67쪽  
17) 필자가 ‘《일본서기》상의 몇 대 왕’이라고 쓰는 것은 이들이 후대에 만들어진 가공의 국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식민사학자인 쓰다 소키치(津田左右吉)도 15대 응신(應神) 이전은 가공의 국왕이라고 인정했다가 일본 군국주의 시절에 재판을 받았다.

사료는 믿을 수 없으며 백제, 신라, 임나는 모두 일본의 식민지였고, 일본 왕이 백제 왕을 임명했고, 일본 군대가 고구려 수도 평양을 함락시켰다고도 주장했다. 나가 미치요(那珂通世)는 《삼국사기》는 믿을 수 없고, 수인(垂仁)이 가라에 임나(미마나)라는 명칭을 하사했는데, 임나는 가라와 동일국으로 이때 이미 일본의 통제를 받았고, 신공(神功:재위 201~269)이 신라를 정벌했다고 주장했다.<sup>18)</sup> 구로이타 가쓰미(黒板勝美)도 임나는 수인(垂仁)이 가야국에 하사한 국호로서 일본은 수인 또는 신공 때 가야를 점령했고, 구한말 통감부와 비슷한 기구인 임나일본부를 가야에 설치했다고 주장했다.<sup>19)</sup>

쓰다 소키치(津田左右吉)는 《삼국사기》의 가야와 《일본서기》의 가라는 동일국이며, 일본은 4세기 후반에 가야에 일본부를 설치해서 통치했고, 《삼국사기》의 가야관계 기사는 모두 조작이라고 주장했다.<sup>20)</sup> 경성제대 교수와 조선사편수회 출신의 이마니시 류(今西龍)는 같은 경성제대에 조선사편수회 출신의 쓰에마쓰 야스카즈(末松保和)와 함께 고대 한일관계사를 가장 많이 왜곡한 장본인인데, 이마니시 류는 가야와 임나가 동일국이며, 임나일본부라는 명칭은 일본인이 아니라 백제인이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1895년 경북궁 담을 넘어 들어가 명성왕후를 시해하는데 가담했던 아유카이 후사노신(鮎貝房之進)은 임나일본부는 조선총독부와 성격이 같고, 임나는 경상도뿐만 아니라 충청도, 전라도까지 장악했다고 주장했다.<sup>21)</sup> 호서임나, 호남임나론을 주장한 것이다. 스에마쓰 야스카즈는 《삼국사기》·《삼국유사》의 가야관련 기사는 모두 조작이며, 가야와 임나에는 광의의 뜻과 협의의 뜻 두 가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남한의 대부분의 가야사 관련학자들이 임나나 가야가 광의로는 가야연맹체 전체를 나타내며, 협의로는 금관가야를 나타낸다는 주장의 원조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 일본인 식민사학자들은 《삼국사기》·《삼국유사》의 ‘가야’를 《일본서기》의 ‘임나’와 같은 나라라고 본다. 그럼 과연 《일본서기》의 ‘임나’와 《삼국사기》·《삼국유사》의 ‘가야’가 동일국인지 구체적 사료로 살펴보자. 먼저 가야국과 임나국에 대한 기본사항을 <표1>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국명	가야	임나	비고
개국연대	서기 42년(《삼국유사》〈가락국기〉, 《삼국사기》〈김유신열전〉)	모름(《일본서기》 송신(崇神) 65년(서기전 33년)에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나옴)	《일본서기》에는 가야 건국 90여 년 전에 임나 존속
개국시조	김수로왕(가락국), 이진아시왕(대가야)	모름	
망국연대	532년(가락국), 562년(대가야)	모름	
망국시조	구형왕(가락국), 도설지왕(대가야)	모름	
위치	김해(가락국), 고령(대가야)	임나는 축자국에서 2 천여리 떨어져 있고, 북쪽은 바다로 막혀 있고, 계림 서남쪽에 있다(《일본서기》 송 신 65년조)	북쪽이 바다로 막혀 있는 곳이 한반도 남 부가 될 수는 없다.
결론	모든 것이 다르므로 가야국과 임나국은 별개의 국가이다.		

표 8 가야국과 임나국의 기본사항 비교

### 1) 가야국과 임나국의 건국시기

가야국의 건국시기는 《삼국유사》〈가락국기〉와 《삼국사기》〈김유신열전〉에 동일하게 서기 42년으로 기록하고 있다. 《일본서기》의 임나국이 언제 건국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송신 65년에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나온다. 《일본서기》〈송신(崇神) 65년〉조는 “임나는 축자국에서 2천여리 떨어져 있고, 북쪽은 바다로 막혀 있고 계림의 서남쪽에 있다”<sup>22)</sup>고 말하고 있다. 송신 65년은 서기전 33년으로 가야국이 건국되기 90여 년 전이다. 《일본서기》는 연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주갑제(周甲制)로 연대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연대부터 맞지 않는 《일본서기》를 신봉하면서 연대가 정확한 《삼국사기》를 불신한다는 사실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위 구절의 ‘조(阻)자’에 대해 동북아역사재단의 《역주 일본서기》는 “막히다”라는 대표적 뜻 대신에 “사이에 두고”라는 보조적 뜻을 채택해 “북으로 바다를 사이에 두고”<sup>23)</sup>라고 해석했다. 임나의 북쪽이 바다임을 희석시키려고 했지만 ‘북쪽은 바다로 막혀’ 있든지, ‘북으로 바다를 사이에 두고’든지 임나 북쪽은 바다라는 뜻이니 어느 모로 바라보아도 한반도 남부는 아니다.

《일본서기》에서 임나에 대한 두 번째 기록은 《일본서기》상의 11대 군주인 수인(垂仁)

18) 일본인 관학자들의 “임나=가야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는 남한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고 최재석 고려대 명예교수에 의해 수행되었다. 최재석 교수는 《고대한일관계사연구》(경인문화사, 2010)의 137~142에서 일본인 식민사학자들의 주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19) 최재석, 〈黒板勝美의 日本古代史論批判〉, 《정신문화연구》 38, 1990.

20) 최재석, 〈津田左右吉의 日本古代史論批判〉, 《민족문화연구》 23, 1990.

21) 鮎貝房之進, 《日本書紀朝鮮地名攷》, 東京 國書刊行會, 昭和 12年(1937)

22) 《일본서기》〈송신 65년〉, “任那者 去筑紫國二千餘里 北阻海以在鷄林之庶男”

23) 연민수 등, 《역주 일본서기 1》, 동북아역사재단, 2013년, 356쪽.



조에 나온다. 전 군주인 송신 때 의부가라국(意富加羅國)의 왕자인 도노아아라사등(都怒我阿羅斯等)이 야마토에 와서 조공을 바치려 했는데, 송신은 만나지 못하고 그 후사인 수인을 만났다는 것이다.

「천황(天皇:수인)이 도노아아라사등(都怒我阿羅斯等)에게, “네 나라로 돌아가고 싶으냐?”라고 물으니 “심히(甚)히 바랍니다.”라고 대답했다. 천황이 아라사등에게 조서를 내려서, “네가 길을 잃지 않고 빨리 이르렀다면 선황(先皇:송신)을 만나 모실 수 있었 것이다. 그러나 네 본국(本國)의 이름을 고쳐서 어간성천황(御間城天皇)의 어명(御名)을 따라서 네 국명(國名)으로 하라”고 하고, 아라사등에게 붉은 비단을 주어 본토로 돌아가게 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이름을 미마나국(彌摩那國)으로 이르게 된 것이다(《일본서기》 〈수인 2년〉)。」<sup>24)</sup>

송신(崇神)의 셋째아들로서 왕위를 이은 수인(垂仁)이 의부가라의 왕자에게 가라국의 이름을 선왕 송신(崇神:미마키)의 이름을 따서 임나(任那:미마나)라고 바꾸라고 했다는 것이다. 《일본서기》는 송신의 이름을 미마키이리비코(御間城入彥)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의 미마키라는 이름을 따서 미마나(任那)라고 했다는 것이다. 수인 2년은 서기전 29년인데, 이때 역시 가야 건국 전이니 이 기사의 의부가라를 《삼국사기》·《삼국유사》의 가야라고 볼 수는 없다.

임나가 가야가 아니라는 사실은 다음 아닌 《일본서기》 〈수인기〉에 의해 알 수 있다. 《일본서기》는 수인이 임나인 소나갈질지(蘇那曷叱智)에게 붉은 비단 1백필을 주어 임나왕에게 하사했는데, 신라인이 길을 막고 이를 빼앗았다면서 “두 나라의 원한이 여기에서 시작되었다”<sup>25)</sup>고 말하고 있다. 임나로 귀국하려면 신라강역을 지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임나가 김해라면 굳이 신라강역을 통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일본서기》 〈송신·수인기〉 기사의 임나는 《삼국사기》·《삼국유사》의 가야가 아니다.

## 2) 가야국의 멸망과 임나국의 멸망

임나일본부설의 핵심이 ‘임나=가야설’이 무너지면 다른 하위논리는 모두 설 자리를 잃는다. 《삼국사기》·《삼국유사》의 가야가 《일본서기》의 임나라면 《삼국사기》·《삼국유사》의 가야 멸망 기사와 《일본서기》의 임나 멸망 기사가 서로 일치해야 한다. 《삼국사기》·《삼국유사》는 532년 금관가야가 신라에 항복했고, 562년 대가야가 신라에 멸망했다고 기록하고 있다.<sup>26)</sup>

562년의 대가야 멸망 기사 이후에 《삼국사기》·《삼국유사》에는 더 이상 가야 관련

24) 《日本書紀》〈垂仁紀〉2年, “天皇問都怒我阿羅斯等曰 欲歸汝國耶 對諮 甚望也 天皇詔阿羅斯等曰 汝不迷道必速詣之 遇先皇而仕歟 是以改汝本國名 追負御間城天皇御名 便爲汝國名 仍以赤織絹給阿羅斯等 返于本土 故號其國謂彌摩那國”

25) 《日本書紀》〈垂仁紀〉2年, “故敦賞蘇那曷叱智 仍齋赤絹一百匹 賜任那王 然新羅人遮之於道而奪焉 其二國之怨 始起於是時也”

26) 532년의 가야를 금관가야, 562년의 가야를 대가야라고 많이 인식하고, 북한학계도 마찬가지지만 532년에 가야가 멸망했고, 562년의 기사는 가야잔존세력에 관한 내용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최재석, 《고대한일관계사연구》(경인문화사, 2010)

기사가 나오지 않는다. 562년을 기점으로 가야는 실제 역사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일본서기》는 다르다. 《일본서기》에는 이후에도 임나가 계속 존속과 멸망을 반복하면서 84년 후인 대화(大化) 원년(646)에도 존속하는 것으로 나온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연대	『삼국사기』	『일본서기』
법흥왕 19년(532)	금관가야 멸망	
흠명(欽明) 21년(560)		임나 멸망(흠명 23년 분주(分註))
진흥왕 23년(562)	대가야 멸망	신라가 임나의 일본 관가를 쳐 없앴(흠명 23)
추고(推古) 8년(600)		신라와 임나가 서로 공격
동상(同上)		신라·임나가 왜에 사신을 보냄
동상(同上)		신라가 또 임나 침공
추고 18년(610)		신라와 임나의 사신이 축자(筑紫)에 도착
동상(同上)		사람을 보내 신라·임나의 사신을 초청
동상(同上)		왜(倭)가 전신대반(膳臣大伴)에게 임나 사신 영접케 함
동상(同上)		왜의 간인연명개(間人連鹽蓋) 등이 임나 사신을 조정으로 안내
동상(同上)		임나 사신 귀국길에 오름
추고 19년(611)		임나가 사신을 왜에 파견
추고 31년(623)		임나가 사신을 왜에 파견
동상(同上)		신라가 임나를 공격
동상(同上)		신라와 임나가 함께 왜에 사신을 보내 조공함
동상(同上)		신라가 임나를 정벌해서 임나를 부속시킴
서명(舒明) 10년(638)		백제·신라·임나가 사신을 왜에 보냄
황극(皇極) 1년(642)		왜에서 판본길사장형(板本吉士長兄)을 임나에 파견
대화(大化) 원년(645)		고구려·백제(임나 사신 경임)·신라가 사신을 왜에 파견
대화(大化) 2년(646)		고구려·백제·임나·신라가 사신을 왜에 파견

표 9 《삼국사기》·《삼국유사》의 가야멸망 기사와 《일본서기》의 가야멸망 기사

더구나 《일본서기》 〈계체기(繼體紀)〉 21년(527)조에는 이미 남가라가 멸망한 것으로 나온다.

“계체 21년(527) 여름 6월 초하루 근강모야신(近江毛野田)이 군사 6만을 이끌고 임나(任那)에 가서 신라에게 멸망당한 남가라(南加羅)와 탁기탄(喙己呑)을 다시 세워 임나에 합치고자 하였다.”<sup>27)</sup>

한일 식민사학자들은 신공 49년조의 이른바 ‘임나 7국’ 중의 하나인 남가라를 김해의 금관가야라고 설명하고 있다. 《삼국사기》 〈법흥왕〉 19년(532)조는 ‘금관국(金官國)의 왕 김구해(金仇亥)가 왕비 및 세 아들, 노종(奴宗), 무덕(武德), 무력(武力)과 함께 항복했다’고 전하고 있다.<sup>28)</sup>

27) 《日本書紀》〈繼體紀〉21年, “近江毛野臣率衆六萬 欲往任那爲復興建新羅所破南加羅 喙己呑而合任那”

28) 《삼국사기》〈법흥왕〉19年, “金官國主金仇亥與妃及三子 長曰奴宗 仲曰武德 季曰武力 以國幣寶物來降 王禮待之 授位上等 以本國爲食邑 子武力仕至角干”

그러나 《일본서기》는 5년 전인 527년에 이미 남가라가 망한 상태로 기록하고 있다. 《일본서기》의 이 기사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2년 후인 529년에도 남가라가 멸망한 상태인 것으로 거듭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계체 23년(529) 봄 3월, 근강모야신을 안라(安羅)에 사신으로 보내어 신라에 천황의 조칙을 내려 남가라와 탁기탄을 다시 세우라고 권하게 하였다. 백제는 장군 군윤귀(君尹貴)와 마나갑배(麻那甲背)마로(麻盧) 등을 보내어 안라에 가서 조칙을 받게 했다. 신라는 번국의 관가(官家)를 무너뜨린 것이 두려워서 대인(大人)을 보내지 않고 부지나마레와 헤나마레 등을 안라에 보내어 조칙을 듣게 했다(《일본서기》 계체 23년)<sup>29)</sup>”

이 기사는 527년에 이미 남가라가 망했고 그 상태가 529년에도 지속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서기》의 남가라는 《삼국사기》·《삼국유사》의 금관가야가 아니다.

### 3) 멸망과 존속을 거듭하는 《일본서기》의 임나

뿐만 아니라 《일본서기》에는 임나가 망했다가 다시 존속하기를 반복한다. 임나가 존립과 멸망을 반복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바로 이런 점들이 임나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큰 장애요소가 되는 것이다. 《일본서기》에서 임나가 존립과 멸망을 반복한 기사를 정리하면 아래 <표 3>와 같다.<sup>30)</sup>

연대	임나 멸망	임나 존립	연대	임나 멸망	임나 존립
계체(繼體) 23년(529)		○	민달 12년(583)	○	
선화(宣化) 2년(537)		○	민달 14년(585)	○	
흠명(欽明) 2년(541)	○		송준(崇峻) 4년(591)	○(8월)	○(11월)
흠명 4년(543)	○(10여년 전부터 멸망)		추고(推古) 8년(600)		○
흠명 5년(544)	○		추고 9년(601)		○
흠명 6년(545)		○	추고 18년(610)		○
흠명 9년(548)		○	추고 19년(611)		○
흠명 13년(552)		○	추고 31년(623)		○
흠명 23년(562)	○		서명(舒明) 10년(638)		○
흠명 32년(571)	○		황극(皇極) 원년(642)		○
민달(敏達) 4년(575)	○(2월)	○(4월)	대화(大化) 원년(645)		○

표 10 《일본서기》에 나오는 임나의 멸망과 존속기사

29) 《日本書紀》〈繼體紀〉23년 봄 3월, “是月 遣近江毛野臣使于安羅 勸新羅更建南加羅 喙己吞 百濟遣將軍君尹貴 麻那甲背 麻盧等 往赴安羅 式聽詔勅新羅 恐破蕃國官家 不遣大人而遣夫智奈麻禮 奚奈麻禮等 往赴安羅 式聽詔勅”

30) 최재석, 《고대한일관계사연구》, 경인문화사, 2010년, 156쪽.

《일본서기》에서 임나가 존속하고 있는 계체 23년(529)의 기사는 “임나왕(任那王) 기능말다간기(己能末多干岐)가 내조했다[기능말다라는 아리사등(阿利斯等)일 것이다]”<sup>31)</sup>는 기사를 뜻한다. 임나왕이 능말다간기이든 아리사등이든 《삼국유사》 〈가락국기〉에는 이런 이름의 가야왕이 없으니 “임나=가야설”은 여기에서도 근거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본서기》 〈선화기〉 2년(537)조 기사는 “천황은 신라가 임나를 노략질했기 때문에 대반금촌대련(大伴金村大連)에게 조서를 내려서 그 아들 반(磐)과 협수연(狹手彦)을 보내서 임나를 돕게 했다”<sup>32)</sup>는 기사를 뜻한다. 《삼국사기》에서 금관가야가 신라에 항복한(532) 5년 후에 《일본서기》는 신라가 또 임나를 공격했다는 것이니 이때도 임나는 존속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흠명 2년(541) 4월조에는 백제의 성명왕이 “천황께서 조서로 칭하신 것은 임나를 빨리 세우라는 것이다”<sup>33)</sup>라고 다시 임나가 망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한 해 전인 흠명 원년(540) 8월에는 “고구려·백제·신라·임나가 다 같이 사신과 공물을 보냈다”<sup>34)</sup> 기록하고 있어서 임나가 존속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 다음 달인 9월에는 일왕이 “얼마의 군사가 있으면 신라를 얻을 수 있는가?”라고 신하들에게 물었다. 신하들은 “적은 군사로는 신라를 칠 수 없습니다.”<sup>35)</sup>라고 대답해서 한 달 전에 신라가 사신과 공물을 보냈다는 것이 거짓임을 스스로 실토하고 있다. 이런 식의 반전이 끝없이 이어지는 것이 《일본서기》의 임나 관련 기사들이다. 멸망했다가 다시 살아나기를 반복하는 《일본서기》의 기사를 <표 4>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일본서기》 기록	임나 존립	임나 멸망
529년(계체 23)~537(선화 2)	9년간 임나 존립	
541(흠명 2)~544(흠명 5)		4년간 임나 멸망
545(흠명 6)~552(흠명 13)	8년간 임나 존립	
562(흠명 23)~575(민달 4) 2월		약 13년간 임나 멸망
575(민달 4) 4월~583(민달 12)	약 8년간 존립	
583(민달 12)~591(송준 4) 8월		약 8년간 멸망
591(송준 4) 11월~645(대화 원년)	약 54년간 임나 존립	

표 11 《일본서기》의 임나 존립과 멸망기사

31) 《日本書紀》〈繼體紀〉23년, “夏四月壬午朔戊子 任那王己能末多干岐 來朝[言己能末多者蓋阿利斯等也]”

32) 《日本書紀》〈宣化紀〉, “二年冬十月壬辰朔 天皇以新羅寇於任那 詔大伴金村大連 遣其子磐與狹手彦 以助任那”

33) 《日本書紀》〈欽明紀〉, “今天皇詔稱 速建任那”

34) 《日本書紀》〈欽明紀〉, 元年, “八月 高麗百濟新羅任那並遣使獻 並脩貢職”

35) 《日本書紀》〈欽明紀〉, 元年 9月, “天皇問諸臣曰 幾許軍卒 伐得新羅 物部大連尾與等奏曰 少許軍卒 不可易征…”

529년부터 645년까지 116년 동안 임나는 7번이나 멸망했다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일본서기》에서 말하는 임나는 《삼국사기》·《삼국유사》의 가야와 다른 세력이라는 것은 설명을 덧붙일 필요도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서기》의 임나 관련 기사의 모순은 같은 국왕의 같은 해의 기록에도 존재한다.

민달(敏達) 4년(575) 2월조에는 일왕 민달이 “신라가 아직 임나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황자와 대신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임나의 일을 게을리 하지 말라’ 고 했다” 36)고 기록해 놓고는 4월조에는 “길사목련자(吉士木蓮子)를 임나에 사신으로 보냈다” 37)고 말하고 있다. 두 달 전에는 ‘신라가 아직 임나를 세우지 않았다’ 고 말해놓고, 바로 그 다음 기사인 두 달 후의 기사에는 ‘임나에 사신을 보냈다’ 고 모순되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기록을 검토해보면 《삼국사기》·《삼국유사》의 가야와 《일본서기》의 임나는 전혀 같은 국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한일 식민사학자들의 “임나=가야설”은 《삼국사기》·《삼국유사》는 물론 《일본서기》의 기록을 검토해도 사실이 아니다.

#### IV. 《일본서기》는 《삼국사기》의 양립 가능한가?

《삼국사기》를 가짜로 몰고 《일본서기》를 사실이라고 우기는 남한 강단사학자들은 《일본서기》를 높이고 《삼국사기》를 폄하한다.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국고로 편찬한 《역주 일본서기 1·2·3》의 〈해제〉는 《삼국사기》와 《일본서기》를 이렇게 비교한다.

“《일본서기》의 가치는 한반도 관련기사가 풍부하다는데 그치지 않는다. 《일본서기》의 진정한 가치는 《일본서기》가 고대인들에 의해서 편찬된 고대의 사서라는 점에 있다. 《삼국사기》는 고려시대, 즉 중세인의 시각에서 본 고대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역주 일본서기 1》의 〈해제〉)”<sup>38)</sup>

《일본서기》는 고대인이 편찬한 고대의 기록이니 중세인이 편찬한 고대의 기록인 《삼국사기》보다 믿을 만 하다는 주장이다. 비록 편찬연대는 이르지만 연대조차 맞지 않는 《일본서기》는 진짜고 편찬연대는 늦지만 공주 무령왕릉의 지식의 경우처럼 달까지 정확한 《삼국사기》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삼국사기》의 소략한 기술을 《일본서기》의 자세한 기술이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1145년에 완성된 《삼국사기》와 720년에 편찬된 《일본서기》의 차이는 크다. 범위를 넓히면, 《일본서기》 다음에 편찬된 《속일본기》를 비롯하여 6국사라는 사서가 있어서 《삼국사기》의 기록보다 훨씬 정밀하다고 할 수 있다. 비유하자면 일본 고대사의 총출한 그물망을 통해서 《삼국사기》의 성근 그물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다(《역주 일본서기 1》의 〈해제〉)”<sup>39)</sup>

이들의 견해는 《일본서기》를 비롯한 고대 일본측 사서들의 기록이 자세하기 때문에 《삼국사기》의 간략한 내용을 보완할 수 있는 보완제라는 것이다. 과연 그런지 임나일본부설의 핵심인 《일본서기》 〈신공기〉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먼저 임나일본부설, 즉 “임나=가야설”의 핵심 근거인 《일본서기》 〈신공〉 49년조를 살펴보자.

「49년 봄 3월, 황전별(荒田別:아라타와케)·녹야별(鹿我別:카가와케)을 장군으로 삼고, 구저(久氏) 등과 함께 군사를 이끌고 건너가서, 탁순국에 이르러 장차 신라를 습격하려 했다. 이때 흑자가, “군사 숫자가 적으니 신라를 깨뜨릴 수 없습니다. 다시 사백(沙白)·개로(蓋露)에게 (신공황후계) 상표를 올려서 군사를 더 청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신공황후가) 목라근자(木羅斤資)와 사사노계(沙沙奴脆) 두 사람은 그 성씨를 알 수 없다. 다만 목라근자는 백제 장수이다]에게 정병을 주어 사백·개로와 함께 보냈다. 모두 탁순(卓淳)에 집결해서 신라를 공격해서 깨뜨리고, 이로 인해 비자발(比自鉢)·남가라(南加羅)·탁국(曷國)·안라(安羅)·다라(多羅)·탁순(卓淳)·가라(加羅) 7국을 평정했다(『일본서기』 신공(神功:진구) 49년)」<sup>40)</sup>

‘임나 가야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이 사료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긴다. 임나일본부설의 성립사료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이 기사를 토대로 야마토왜가 369년에 한반도 남부를 점령하고 임나일본부를 세웠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과연 그런지 살펴보자. 무엇보다 역사사료는 6하원칙에 따라서 서술되어야 하고 또 해석해야 한다. ‘신공 49년’조를 6하원칙에 따라서 배열해보자.

6하	주체	비고
①누가?	야마토왜 군사	
②언제?	신공 49년(서기 249년)에	+120=369년?
③어디에서?	신라에서	
④무엇을?	신라를 정벌	
⑤어떻게?	신라를 깨뜨리고 7국을 평정	신라를 깨뜨렸는데 정벌된 곳은 가야?
⑥왜?	신공 9년 이후 야마토왜의 속국이었던 신라에서 같은 속국인 백제의 공물을 가로채 바쳐서	신공 9년조는 사실이 아닌데 신공 49년조는 사실?

36) 《日本書紀》〈敏達紀〉4년 2월, “天皇以新羅未建任那 詔皇子與大臣曰 莫懶懈於任那之事”

37) 《日本書紀》〈敏達紀〉4년 4월, “遣吉士金子使於新羅 吉士木蓮子使於任那 吉士譯語彥使於百濟”

38) 연민수 등, 《일본서기》해제, 동북아역사재단, 46쪽.

39) 연민수 등, 《일본서기》해제, 동북아역사재단, 46쪽.

40) 《日本書紀》〈(神功紀)‘冊九年春三月’以荒田別 鹿我別爲將軍 則與久氏等共勒兵而度之 至卓淳國 將襲新羅 時或曰 兵衆少之 不可破新羅 更復 奉上沙白 蓋露 請增軍士 即命木羅斤資 沙々奴脆]是二人不知其姓名也 但木羅斤資者 百濟將也] 領精兵 與沙白 蓋露共遣之 俱集于卓淳 擊新羅而破之 因以平定比自鉢 南加羅 曷國 安羅 多羅 卓淳 加羅七國”

먼저 ① ‘누가’에 대해서 살펴보자. 이 기사는 신공왕후의 명령을 받는 야마토왜의 군사들이 주체다.

② ‘언제’에 대해서 살펴보자. 《일본서기》의 ‘신공 49년’을 서기 249년이다. 그런데 ‘임나 가야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120년을 더해 369년의 사건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249년에 120년을 더해야 하는 타당한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720년에 편찬된 《일본서기》보다 8년 전인 712년에 편찬된 《고사기(古事記)》에는 이런 중요한 사실 자체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sup>41)</sup>는 점도 이 기사에서 말하는 나라들의 위치가 한반도 남부라고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또한 《일본서기》에서 서기 249년에 발생했다고 쓴 이 사건을 369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해석하려면 다른 증빙자료가 필요하지만 그런 것은 없다. ‘임나 가야설’을 추종하는 일본과 남한의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합의했다는 것뿐이다. 서기 1592년에 벌어진 임진왜란을 일본과 남한의 역사학자들이 120년을 끌어올려서 1712년에 벌어진 일이라고 결정했다고 해서 임진왜란이 타임머신을 타고 120년을 이동해서 벌어질 수는 없는 것처럼 《일본서기》가 서기 249년의 일이라고 쓴 것을 후대 학자들이 자의로 “369년에 발생했다고 합의하자”라고 해서 그 사건이 타임머신 타고 120년 후로 갈 수는 없다.

③ ‘어디에서’를 살펴보자. 이 기사는 야마토왜의 군사가 신라를 공격했다는 것이 주 내용이니 신라가 무대다. “황전별·녹야별을 장군으로 삼고, 구저 등과 함께 군사를 이끌고 건너가서[度之], 탁순국에 이르러 장차 신라를 습격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기사가 앞뒤 모순이라는 사실은 쉽게 알 수 있다. 한국의 김태식이 “최초로 학문적 체계를 갖춘 이른바 「남한경영론」을 완성시켰”<sup>42)</sup>다고 극찬한 스에마쓰 야스카즈(末松保和)는 야마토왜의 군사가 모인 탁순을 대구로 비정했고,<sup>43)</sup> 한국의 김현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명 비정(比定)은 스에마쓰 설을 따랐다”<sup>44)</sup>고 말하면서 탁순을 대구라고 비정했다. 그런데 이 기사의 탁순을 대구라고 보면 심각한 모순이 발생한다. 야마토왜의 군사가 탁순에 집결해서 신라를 공격했다는 것이니 탁순이 대구라면 대구는 이미 야마토왜가 점령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야마토왜가 대구를 점령했다면 그 남쪽은 이미 야마토왜가 점령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래서 이마니시 류나 김태식은 탁순을 창원이라고 비정한다. 탁순이 경북 대구로 비정하기도 하고, 경남 창원으로 비정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원칙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④ ‘무엇을’에 대해서 살펴보자. 야마토왜군이 “탁순에 집결해서 신라를 공격해서 꺾트”렸다는 것이다. 공격의 대상은 신라였다는 이야기다.

다음으로 ⑤ ‘어떻게’를 살펴보자. 《일본서기》는 “탁순에 집결해서 신라를 공격해서 꺾트리고, 이로 인해 비자발·남가라·탁국·안라·다라·탁순·가라 7국을 평정했다”고

쓰고 있다. 이 기사는 신라를 꺾트리고 신라 산하의 7국을 평정했다는 기사다. 이 신라 산하 7국을 임나(가야) 7국이라고 해석하려면 많은 논리가 보강되어야 하지만 그런 과정은 생략한 채 신라를 슬그머니 빼버린 채 ‘임나(가야) 7국’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⑥ ‘왜?’에 대해서 살펴보자. 야마토왜의 군사가 왜 신라를 공격했는가? 신라가 백제에서 야마토왜에게 바치는 공물을 가로챘기 때문이라는 것이 《일본서기》의 설명이다. 《일본서기》〈신공 47년〉조는 신라와 백제에서 야마토왜에 공물(貢物: 신하가 임금에게 바치는 특산물)을 바쳤는데, 야마토왜에서 조사해보니 “신라의 공물(貢物)은 진귀하고 이채로운 것이 아주 많았는데, 백제의 공물은 수량도 적고 천하며 불량했다”<sup>45)</sup>는 것이다. 그래서 조사해보니 신라에서 백제의 공물을 빼앗아 신라의 공물인 것처럼 속여서 바쳤다는 것이다. 그래서 야마토왜에서 2년 후인 〈신공 49년〉군사를 보내서 신라를 정벌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신라와 백제가 야마토왜에 조공을 바치는 근거는 신공 9년에 삼한(신라·고구려·백제)가 야마토왜에 항복했기 때문이다. 이후 신라는 매년 80척의 공물을 춘추로 보냈다는 것이 《일본서기》〈신공 9년〉의 주장이다. 그러나 백제는 조공을 바치고 싶어도 일본으로 가는 길을 몰라서 바치지 못하고 있다가 신공 46년 신공이 탁순국에 사신으로 보낸 사마속네의 시종 이파이를 통해서 드디어 감읍스럽게 공물을 바칠 수 있었는데, 이듬해 백제에서 직접 바친 공물을 신라에서 빼앗았기 때문에 야마토왜가 신라를 정벌했다는 것이다.<sup>46)</sup>

그런데 일본과 남한의 강단사학자들은 《일본서기》신공 9년의 사건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이를 전제로 서술한 신공 49년조도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신라를 공격하고 이른바 임나 7국을 정벌했다는 신공 49년조는 사실이라는 모순된 주장이다.

《일본서기》신공 47년은 서기 247년으로서 신라는 첨해왕(沾解王) 원년이고, 백제는 고이왕(高爾王) 14년이다. 《삼국사기》〈신라본기〉는 이해 첨해왕이 시조묘를 참배하고 부친 골정(骨正)을 세신갈문왕(世神葛文王)으로 봉했다<sup>47)</sup>는 기사가 있지 야마토왜에 공물을 바쳤다는 기사는 없다. 《삼국사기》〈백제본기〉는 고이왕이 “이해 봄 정월에 남단(南壇)에서 하늘과 땅에 제사지냈고, 2월에 진충(眞忠)을 우부(右輔)로 삼고 진물(眞勿)을 좌장(左將)으로 삼아 군사 업무를 맡겼다.”<sup>48)</sup>는 기사가 있지 야마토왜에 공물을 바쳤다는 기사는 없다.

‘임나 가야설’을 주장하는 일본과 한국의 학자들은 이 기사도 120년을 끌어올려서 367년의 사건이라고 주장한다. 《삼국사기》를 검색해보면 367년은 신라 내물왕 12년이고, 백제 근초고왕 22년이다. 《삼국사기》〈신라본기〉내물이사금 12년 조는 아무 기사가 없고, 《삼국사기》〈백제본기〉근초고왕 22년 조도 아무 기사가 없다. 다만 한 해 전인 366년에 근초고왕이 “사신을 신라에 보냈다”<sup>49)</sup>는 기사가 있다. 그리고 이태 후인 368년 “사신

41) 《古事記》〈仲哀天皇、神功皇后〉조 참조

42)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7-삼국의 정치와 사회 III-신라·가야》, 1997. 278쪽(이 부분은 김태식이 서술한 것이다)

43) 末松保和, 《任那興亡史》, 吉川弘文館, 47쪽. 이 책은 昭和 24년(1949) 大八洲出版에서 출간되었다가 1956년 吉川弘文館에서 增訂版을 찍었다. 필자가 인용한 책은 昭和 52년(1977)의 6쇄본이다. 이 책은 昭和라고만 적고 서기를 기록하지 않았는데, 괄호 안의 서기는 필자가 부기한 것이다.

44) 김현구, 《임나일본부설은 허구인가》, 창비, 2010, 43쪽.

45) 《日本書紀》〈神功紀 47년〉“新羅貢物者珍異甚多 百濟貢物者少賤不良”

46) 《日本書紀》〈神功紀〉, 9년, 46년, 47년, 49년

47) 《삼국사기》〈신라본기〉‘첨해왕 원년’, “秋七月 謁始祖廟 封父骨正爲世神葛文王”

48) 《삼국사기》〈백제본기〉‘고이왕 14년’, “春正月 祭天地於南壇 二月 拜眞忠爲右輔 眞勿爲左將 委以兵馬事”

을 신라에 보내 좋은 말 두 필을 주었다”<sup>50)</sup>는 기사가 있다.

《삼국사기》의 시각으로 보면 247년이든, 367년이든 신라와 백제가 상국인 야마토왜에 잘 보이기 위해서 공물(貢物) 바치기 경쟁을 하고, 심지어 신라에서 백제의 공물을 빼앗아 신라 공물이라고 바치는 따위 일 따위는 발생하지 않았다. 신라와 백제가 야마토왜에 좋은 공물 바치기 위해서 싸웠다는 발상 자체가 정상적인 사고에서 한참 뒤떨어지는 정신박약 역사학자라면 모를까 정상적인 사고로는 상상도 할 수도 없다. 더구나 이 당시 야마토왜는 제철기술 자체가 없었는데 철도 만들지 못하는 야마토왜가 황제국이고, 서기전 1세기 건국 당시부터 제철능력을 갖고 있던 신라와 백제가 그 제후국이라는 전제로 쓴 내용들이니 여기에서 말하는 신라나 백제가 《삼국사기》·《삼국유사》의 신라나 백제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북한 학계의 김석형은 1963년 《일본서기》에 나오는 고구려·백제·신라 등은 본국(本國)이 아니라 이 본국들이 일본 열도에 세운 분국(分國)들의 이야기라는 분국설을 제창한 것이다. 임나는 가야가 아니라 가야계가 일본열도에 진출해서 세운 분국(分國)이라는 것이다.

《일본서기》는 신공 49년 이후 백제왕 부자는 야마토왜를 임금의 나라로 충성을 다바쳤다고 쓰고 있다. 이 내용을 <표 6>으로 살펴보자.

연도	『일본서기』	『삼국사기』	『위서(魏書)』	비고
371년	백제왕이 또 구저(久氏)를 보내 조공했다...백제왕 부자가 야마토왜의 사신에게 머리를 땅에 대고 영원한 충성을 맹세했다(신공 51)	왕이 태자와 정예군 3만을 거느리고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해서 고구려왕 사유(斯由: 고국원왕)를 전사시켰다(근초고왕 26년)	사신을 보내 고국원왕(高句麗王)의 머리를 벤 사실을 알렸다(『백제 열전』)	고국원왕을 전사시킨 백제가 왜에 조공을 바치고, 영원한 충성을 맹세했다는 것을 사실일 수 없음
372년	백제에서 구저 등을 보내 칠지도, 칠자경 등 각종 보물을 바치면서 곡나철산의 철을 영원히 바치겠다고 맹세하다(신공 52)	진(晉)나라에 사신을 보냈다(근초고왕 27년)		한 해 전에 고국원왕을 전사시킨 백제가 야마토왜에 사신을 보내서 영원히 철을 바치겠다고 약속할 수는 없음

표 13 《일본서기》와 《삼국사기》·《위서》의 내용 비교

49) 《삼국사기》〈백제본기〉‘고이왕 21년’, “春三月 遣使聘新羅”  
50) 《삼국사기》〈백제본기〉‘고이왕 23년’, “遣使新羅 送良馬二匹”

위 <표>는 일본과 남한 강단사학자들이 《일본서기》〈신공기〉에 120년을 인상시킨 것을 전제로 작성한 것이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삼국사기》는 서기 371년에 백제의 근초고왕이 태자 근구수와 함께 3만 군사를 이끌고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해 고국원왕을 전사시켰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야말로 백제의 국력이 최강을 구가하던 전성시기이다. 같은 해 《일본서기》는 이런 근초고왕이 야마토왜에 사신을 보내 조공을 바치고, 야마토왜의 사신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영원한 충성을 맹세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일본서기》는 이듬해인 372년 백제의 초고왕이 야마토왜에 사신을 보내 칠지도, 칠자경 등 각종 보물을 바치면서 곡나철산의 철을 영원히 바치겠다고 맹세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제철기술이 있는 백제에서 제철능력이 없는 야마토왜에 철을 계속 바치겠다고 맹세했다는 것이다.

371년 고구려 고국원왕을 전사시킨 백제의 근초고왕이 태자와 함께 야마토왜에서 온 사신에게 머리를 땅에 대고 영원한 충성을 맹세했다는 초고왕과 동일인물일 수는 없다. 《일본서기》나 《삼국사기》중 하나는 거짓말을 쓴 것이다. 《삼국사기》〈백제본기〉기사는 같은 《삼국사기》〈고구려본기〉기사에 의해서도 사실로 입증되고, 또한 백제가 고국원왕을 전사시킨 기사를 전하고 있는 중국의 《위서(魏書)》·《북사(北史)》등을 통해서도 사실로 검증되지만, 《일본서기》는 자신의 일방적 주장 외에 다른 근거가 없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삼국사기》 불신론’을 만들어서 유포시킨 것이다.

김현구 교수는 제철기술이 없는 야마토왜가 철 원료를 얻는 방법에 대해 이렇게 서술했다.

「정구우(新公)황후 372년 기록에도 “구저 등 지꾸마노 나가히코(千能長彦)를 따라가서 7지도 1구, 7자경(子鏡) 1면 및 여러 가지 보물을 바쳤다. 이에 아뢰기를 신의 나라 서쪽에 강이 있는데 곡나철산(谷那鐵山)에서 발원합니다(……) 이 산의 철을 취해서 영원히 성조에 바치겠습니다(52년조)라고 되어 있어 백제가 철을 가지고 왜를 유혹했음을 알 수 있다(김현구, 『임나일본부설은 허구인가』)」<sup>51)</sup>

김현구의 논리는 제철능력이 없는 야마토왜는 백제에서 덩어리 쇠인 철정을 지속해서 갖다 바치기 때문에 굳이 제철기술이 없어도 된다는 것이다. 김현구는 백제에서 계속 철정을 바치겠다는 보증수표로 왕자를 인질로 보냈다고도 쓰고 있다. 이런 수준의 비정상적 사고의 학자들이 만든 논리가 “임나=가야설”이다.

51) 김현구, 《임나일본부설은 허구인가》, 창비, 2010, 166쪽.

## V. 호남 입나(가야)의 탄생

근래에 호남가야라는 말이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일반국민들에게는 낯선 용어가 등장한 것이지만 조선총독부 역사관을 추종한다는 비판을 들어왔던 남한 강단사학계에서는 낯선 용어가 아니다. 조선총독부 식민사학자들이 만든 용어이자 개념이기에 드러내놓고 사용하지 못하다가 가야의 유네스코 등재를 기회로 삼아 공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뿐이다.

호남가야라는 말은 곧 호남임나라는 말과 같다. 이 개념은 《일본서기》 〈신공 49년〉조의 자의적 해석에 뿌리를 두고 있다. 신라를 공격하고 ‘비자발·남가라·탁국·안라·다라·탁순·가라’ 7국을 점령한 야마토군이 기수를 서쪽으로 돌렸다는 것이다.

“이에 군사를 옮겨서 서쪽으로 돌아서 고해진(古爰津)에 이르고, 남쪽 오랑개인 침미다례(沈彌多禮)를 도록해서 백제에게 하사했다(《일본서기》 〈신공 49년〉)<sup>52)</sup>

‘비자발’ 등 이른바 입나 7국을 경상도로 비정했으니 그 서쪽은 충청도나 전라도라는 것이다. 이 땅을 백제에게 하사했다는 것은 백제가 야마토왜의 속국이고, 백제 국왕은 왜왕의 신하라는 전제에서 나오는 발상이다. 이 침미다례에 대해서 스에마쓰 야스카즈(末松保和)는 전남 강진으로 비정했다. 침미다례를 일본어 발음으로 읽으며 도무다례가 되는데 강진의 옛 지명이 도무군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sup>53)</sup> 침미다례에 대해 명성황후 시해에 가담했던 낭인 야쿠자 아유카이 후사노신(鮎貝房之進)가 제주도라고 비정했기 때문에<sup>54)</sup> 스에마쓰는 제주도를 침미다례의 제2의 후보지라고 비정했다.<sup>55)</sup> 제주도를 옛날에 탐모라(耽牟羅)라고 했고, 한라산의 옛 이름이 두무산(頭無山)이니, ‘침미=무무=탐모’가 되지 않느냐는 것이다.<sup>56)</sup> 한마디로 기이한 발상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일본서기》 〈신공 49년〉조는 야마토왜군이 이른바 입나 7국의 서쪽 여러 지역들을 무주공산으로 공략했으며, 백제왕 초고가 야마토왜에 영원한 충성을 맹세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백제왕 초고(肖古) 및 왕자 귀수(貴須) 또한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만났는데, 이때 비리(比利)·벽중(辟中)·포미지(布彌支)·반고(半古) 4읍이 자연히 항복했다. 이에 백제 왕자 부자와 황전별, 목라근자 등은 의류촌(意流村)[지금은 주류수기(州流須祿)]라고 한 다에서 함께 만나 서로 보고 기뻐하고, 예를 후하게 해서 보냈다. 오직 친웅장언은 백제왕과 백제국의 벽지산(辟支山)에 올라 맹세하고, 다시 고사산(古沙山)에 올라서 함께 반석 위에 거했는데, 이때 백제왕이 맹세해서 말하기를, “만약 풀을 피고 앉으면 불에 탈까 두렵고, 또 마부를 취해 앉으면 물에 떠내려갈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거해서 맹세하는 것은 영원히 썩지 않는 것을 보이려는 것입니다. 이에 지금 이후로는 천추만세까지 끊어짐이 없고, 다함이 없이 항상 서번(西蕃)이라고 칭하면서 춘추로 조공을 바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곧 친웅장웅과 함께 도성 아래 이르러 후하게 예우를 더하였고, 구저 등을 팔려서 보냈다(《일본서기》 〈신공 49년〉)<sup>57)</sup>

야마토왜군과 초고왕 부자가 거느린 백제군이 만나자 비리·벽중·포미지·반고 4읍이 항복했다는 것이다. 스에마쓰 야스카즈는 비리는 전주 또는 나주인데, 야쿠자 아유카이 후사노신이 전주라고 비정했다고 덧붙여 전주설에 힘을 실었다.<sup>58)</sup> 벽중은 아유카이 후사노신이 나 스에마쓰 야스카즈나 모두 김제라고 비정했는데, 스에마쓰설의 근거를 살펴보자.

“위지(魏志) 한전(韓傳·삼국지 위지 동이열전 한)에 마한의 일국인 벽비리(辟卑離), 삼국사기의 벽성(辟城) 또는 벽골(碧骨)로서 《일본서기》의 피성(庇城)에 해당하는데 지금의 전라북도 김제 지방에 비정된다.”<sup>59)</sup>

《삼국지》 〈위지 오환선비동이열전〉의 한(韓)조에 마한에 속한 나라 중에 벽비리가 있고, 삼국사기에 벽성이 있고, 《일본서기》에 피성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의 전라북도 김제라는 것이다. 《삼국사기》 〈지리지〉에 백제 고사주(古四州)에 속한 현 중에 지금의 전북 김제로 비정하는 벽성현(辟城縣)과 ‘벽(辟)’ 자가 같다는 것이다.

스에마쓰 야스카즈는 포미지는 공주, 반고는 나주라고 비정했다. 포미지를 공주로 비정하는 논리를 살펴보자.

“포미지(布彌支)는 점배(結貝:아유카이 후사노신)이 삼국사기 지리지의 벌음지현(伐音支縣:청음현[淸音縣]:벌음촌(伐音村):부림현(富林縣))에 비정할 수 있는데, 벌(伐)의 조선발음 por, 음(音)의 조선발음 um이 되기도 하고, 지방에서는 종성 m에 차용되기 때문에, 포미지(布彌支)는 벌음지(伐音支)로 된다고 확인할 수 있다. 벌음지현은 지금의 충청남도 공주군 유구리 북쪽에 해당한다(末松保和, 《任那興亡史》)<sup>60)</sup>

스에마쓰는 《일본서기》의 포미지를 충청도 유구읍으로 비정한다. 포미지는 벌음지로 발음할 수 있는데 《삼국사기》 〈지리지〉 웅천주 군현 중의 공주 유구 부근의 신평면이 벌음지현이라는 것이다. 한일 식민사학자들은 지명 발음이 비슷한 것을 근거로 《일본서기》의 지명을 일본열도에서 찾지 않고 경상·충청·전라도에서 찾는다.

그래서 분국설을 주장했던 북한학자 김석형은 “이와 같은 일본학자들의 비정은 억지를 면치 못한다. 당시의 야마토 군대가 경상, 전라 두 도를 무인지경으로 돌아섰다고 전제하고 그 일대 고지명에 비슷한 글자가 여러 글자 중에서 하나라도 있으면 주어 맞춘 것에 불과하다<sup>61)</sup>” 라고 비판했다.

《일본서기》 〈신공기〉는 신공 49년 이후 백제를 단순한 야마토왜의 속국이 아니라 땅까지 하사한 것에 대해 무한히 감격해서 충성을 맹세하는 자발적 식민지로 그리고 있다. 신공 50년 5월에 친웅장언과 구저 등이 돌아오자 신공왕후는 “바다 서쪽의 여러 한(韓)을 이 미 너의 나라에 주었는데, 지금 무슨 일로 빈번하게 또 왔는가?” 라고 물었다. 구저가 ‘천

52) 《日本書紀》〈神功紀 49년〉“仍移兵西廻 至古爰津 屠南蠻沈彌多禮 以賜百濟”

53) 末松保和, 《任那興亡史》, 吉川弘文館, 47쪽.

54) 鮎貝房之進, 《日本書紀朝鮮地名攷》, 東京 國書刊行會, 昭和 12年(1937) 279~281쪽.

55) 末松保和, 《任那興亡史》, 吉川弘文館, 48~49쪽.

56) 末松保和, 《任那興亡史》, 吉川弘文館, 48쪽.

57) 《일본서기》〈신공 49년〉조. “於是 其王肖古及王子貴須 亦領軍來會 時比利辟中布彌支半古四邑自然降服 是以 百濟王父子及荒田別木羅斤賓等 共會意流村[今云州流須祿]相見欣感 厚禮送遣之 唯千熊長彥與百濟王 至于百濟國登辟支山盟之 復登古沙山共居磐石上 時百濟王盟之曰 若敷草爲坐恐見火燒 且取木爲坐恐爲水流 故居磐石而盟者示長遠之不朽者也 是以自今以後 千秋萬歲 無絕無窮 常稱西蕃 春秋朝貢 則將千熊長彥至都下 厚加禮遇 亦副久氏等而送之”

58) 末松保和, 《任那興亡史》, 吉川弘文館, 49~50쪽.

59) 末松保和, 《任那興亡史》, 吉川弘文館, 50쪽.

60) 末松保和, 《任那興亡史》, 吉川弘文館, 50쪽.

61) 김석형, 《초기조일관계사(하)》,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8, 179쪽.

조(天朝)의 큰 덕에 우리 왕은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만세에 이르기까지 조정에 오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니<sup>62)</sup> 신공이 “착하다! 너의 말이여, 짐의 마음이다.” 라면서 다사성(多沙城)을 더 주어서 왕복하는 길의 역(驛)으로 삼게했다고 전한다.<sup>63)</sup> 이 다사성을 아유카이 후사노신이나 스에마쓰 야스카즈나 모두 지금의 섬진강의 하구라고 비정한다. 《일본서기》의 신공은 전라도는 물론 충청도땅까지 마음대로 나누어주는 절대군주로 그린다. 백제는 야마토왜의 속국이자 신하국이기 때문에 왜의 강역을 나누어준다는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해 야마토왜가 언제든지 다시 빼앗을 수 있는 땅이라는 뜻이다. 원래 야마토왜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본서기》 〈계체(繼體) 23년〉 봄 3월조에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

「백제왕이 하다리(下嗚响) 국수(國守) 혜적압산신(德積押山臣)에게, “무릇 조공하러 가는 사신들이 늘 섬의 굶어진 곳을 피하기 위해서 풍파에 사달려서, 이에 조공품이 습기가 차서 모두 망가져서 쓸모 없게 됩니다. 가라의 다사진을 청하오니 신이 조공 바치는 나무로 삼게 해주소서”라고 말했다. 이에 압산진이 이청을 아뢰었다.”<sup>64)</sup>

계체 23년은 서기 529년이다. 신공 50년은 서기 250년이지만 한일 강단사학자들은 120년을 더해서 370년이라고 해석한다. 이를 받아들여 신공 50년을 370년이라고 해석해도 이때 다사성을 백제에 주었는데, 159년 후에 다시 달라고 요청한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일본서기》의 모순은 수를 셀 수도 없이 많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임나 4현과 기문(己汶)도 마찬가지다. 임나 4현과 기문은 《일본서기》 〈계체기(繼體紀)〉 6년과 7년조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른바 임나 4현에 대해 나오는 〈계체기〉 6년조를 먼저 보자.

“거을 12월, 백제에서 사신을 보내 세금(調)을 바치고 따로 임금에게 바치는 표(表)를 올려서 임나국의 상다리(上嗚响)하다리(下嗚响)사타(娑陀)모루(牟婁)의 사현을 청했다(《일본서기》 〈계체기〉 6년)<sup>65)</sup>

계체 6년은 서기 512년이니 백제 무령왕 12년이다. 백제인들이 직접 만든 무령왕의 지석은 무령왕의 죽음을 제후의 죽음을 뜻하는 흥(薨)이 아니라 황제의 죽음을 뜻하는 붕(崩)이라고 썼다. 또한 《삼국사기》 〈백제 동성왕 본기 20년(498)〉 조는 “왕이 탐라(耽羅)에서 공납과 세금을 바치지 않아서 무진주(武珍州)에 이르니 탐라에서 이 소식을 듣고 사신을 보내서 빌므로 그만두었다”<sup>66)</sup>고 말하고 있다. 무진주는 《삼국사기》 〈지리지〉 무주(武州)조에 따르면 지금의 광주다.<sup>67)</sup> 《삼국사기》는 498년 이전에 이미 광주는 물론 제주도까지 모두 백제의 강역임을 말해주고 있는데, 《일본서기》의 이 기사를 한반도 남부라고 본다면

백제는 제주도는커녕 한반도 남부도 차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니 거짓 기사다.

백제국왕의 요청에 대해 다리국수(哆唎國守)인 혜적신압산(穗積臣押山)은 “이 사현은 백제와 가깝게 연결해 있고, 일본과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백제와는) 아침저녁으로 통하기 쉽고 닭과 개의 소리도 어느 쪽의 것인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백제에게 하사하셔서 같은 나라로 합치게 하신다면 굳게 보존하는 계획으로 이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sup>68)</sup>라고 말했다. 그래서 일부 신하의 반대가 있었지만 왜왕 계체가 감읍스럽게도 임나 4현을 백제에게 하사했다는 것이다. 이 임나 4현의 위치에 대한 한일 학자들의 비정에 대해서 《한겨레신문》의 보도를 보자.

「이동희 인제대 교수는 공격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영호남에 걸친 가야의 서쪽 경계를 논할 때 임나 4현 위치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국내 학계는 전라도 동쪽 섬진강 기슭의 순천·광양·여수 일대를 실제의 임나 4현이자 가야의 서쪽 끝 가야 4현으로 봅니다. 그런데 일본 쪽 연구자들은 임나 4현을 여전히 구체적 근거도 없이 전라도 서쪽 영산강 일대에 있었다고 봅니다. 식민사학자 스에마쓰 야스카즈가 이런 설을 낸 이래 100년 이상 고집하고 있어요.”<sup>69)</sup>

이 기사의 요체는 야마토왜가 감읍스럽게도 백제에게 하사했다는 임나 4현의 위치에 대해 일본인 학자들은 영산강 유역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동희를 비롯한 한국 학자들은 섬진강 일대로 본다는 것이다. 둘 다 임나 4현이 한반도 남부에 있었다는 대동소이한 주장인데, 기사 제목은 〈‘가야영역=임나일본부?...한일학자들의 ’ 고대사 배틀‘〉이라고 달아서 마치 양국 학자들이 싸운 것처럼 독자들을 호도한 것이다. 이 행사는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가 ‘호남과 영남 경계의 가야’란 제목으로 연 학술 심포지엄에 관한 기사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피땀 어린 세금을 가지고 일본 극우파 학자들의 비행기 값, 고급호텔 숙박비를 대줘 가면서 조선총독부 직속 조선사편수회의 주장을 반복하게 한 것이고, 이들과 대동소이하게 임나 4현은 한반도 남부의 섬진강 유역에 있었다는 한국 학자들과 감격스런 해후를 하게 해 준 것이다. 〈한겨레신문〉 노형석 기자의 기사 마무리는 현재 대한민국 국민세금이 얼마나 반국가적이고 반민족적인 행사에 쓰여지는지를 잘 고백해주었다.

「좌장으로 토론을 지켜본 이영식 인제대 교수가 총평을 말했다. “임나 명칭을 갖고 한일 학자들이 왈가왈부하게 된 것만 해도 큰 전전입니다. 과거엔 <일본서기> 자체를 거짓말 사서라고 해서 인용하는 것조차 꺼렸는데, 이제 가야 지역 고고 발굴 조사가 진행되면서 일본 쪽 임나 자료들도 비판적으로 활용하고 공유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오는 자리는 한일 학계의 관심이 새롭게 모아지면 가야사도 알찬 내실을 갖출 수 있음을 나름 보여주는 자리가 아닐까 합니다.”<sup>70)</sup>

신라·고구려·백제가 모두 야마토왜의 식민지라고 호도한 《일본서기》를 사실이라고 주장하게 된 것이 큰 성과라는 것이다. 사사카와 재단을 비롯한 일본 극우파들이 국내 역사

62) 《日本書紀》〈神功紀 50년〉“夏五月 千熊長彥久氐等 至自百濟 於是皇太后 歡之問久氐曰 海西諸韓 既賜汝國 今何事以煩復來也 久氐等奏曰 天朝鴻澤 遠及弊邑 吾王歡喜踊躍 不任于心 故因遣使 以致至誠 雖建萬世 何年非朝”

63) 《日本書紀》〈神功紀 50년〉, “皇太后勅云 善哉汝言 是朕懷也 增賜多沙城 爲往還路驛”

64) 《日本書紀》〈繼體紀 23년〉, “廿三年春三月 百濟王謂下嗚响國守穗積押山臣曰 夫朝貢使者 恆避嶋曲[謂海中嶋曲崎岸也 俗云 美佐那] 每苦風波 因茲濕所齋 全壞无色 請以加羅多沙津 爲臣朝貢津路 是以 押山臣爲請聞奏”

65) 《日本書紀》〈繼體紀〉6년, “冬十二月 百濟遣使貢調 別表請任那國上嗚响下嗚响娑陀牟婁 四縣”

66) 《삼국사기》〈백제본기〉 동성왕 20년, “八月 王以耽羅不修貢賦親征 至武珍州 耽羅聞之 遣使乞罪 乃止[耽羅即耽牟羅]”

67) 《삼국사기》〈지리지〉, “武州本百濟地 神文王六年 爲武珍州 景德王改爲武州 今光州”

68) 《日本書紀》〈繼體紀〉6년, “哆唎國守穗積臣押山奏曰 此四縣 近連百濟 遠隔日本 旦暮易通 鷄犬難別 今賜百濟舍爲 同國 固存之策 無以過此 然縱賜舍國 後世猶危 況爲異場 幾年能守 大伴大連金村 具得是言 同謀而奏 廼以物部大連 鹿鹿火 宛宣勅使”

69) 노형석 기자, 〈‘가야영역=임나일본부?...한일학자들의 ’ 고대사 배틀〉, 《한겨레신문》 2019. 07. 21. 수정 2020. 2. 16

70) 노형석 기자, 〈‘가야영역=임나일본부?...한일학자들의 ’ 고대사 배틀〉, 《한겨레신문》 2019. 07. 21. 수정 2020. 2. 16

학계에 수많은 돈을 뿌린 것은 이제 비밀도 아니다.<sup>71)</sup> 이런 과정에서 일본 극우파의 자금으로 일본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국내대학과 국책 연구기관에 자리 잡은 국적은 한국인 학자들이 노골적으로 《일본서기》를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연대부터 맞지 않는 《일본서기》를 버젓이 인용해 고대 한국을 야마토왜의 식민지로 조작해놓는 일이 공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일본인 식민사학자들은 임나 4현을 영산강 유역이라고 비정하고 한국인 식민사학자들은 임나 4현을 섬진강 유역이라고 비정한다. 맹자의 50보 100보가 절로 떠오르는 이 사례를 두고 《한겨레신문》의 노형석은 마치 큰 견해 차이가 있는 것처럼 독자들을 호도한다.

이에 대해서 1963년 분국설을 제창해 일본 학계에 큰 충격을 던졌던 김석형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일본학자들은 미마나(임나) 4개현을 모두 전라남도 일대에서 찾고 있으며 이 4개 현이 전라남도의 거의 전역에 걸쳤다고 한다. 전라남도 일대의 고지명 가운데서 읍이 이 4개 현 이름과 좀 비슷하다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비정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비정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레컨대 《다리》와 비슷한 읍을 가진 《다리》, 《도리》, 《도라》, 《다르》와 같은 글자라도 비슷한 지명은 조선 도처, 아니 세계 도처에 있을 것이다...어처구니없는 고증에 매달리지 말고, 그 비슷한 이름을 기비임나의 서부, 기비 서쪽 백제와 접경지대에서나 찾을 일이다(김석형, 《초기조일관계사》)<sup>72)</sup>

북한 학계는 현 오카야마(岡山)현 길비(吉備:기비)일대의 옛 왕국을 가야계가 진출해서 세운 임나라고 본다. 백제, 신라도 모두 그 부근에 있었다는 것이다. 이른바 임나 4현이 영산강 유역이든, 섬진강 유역이든 한반도 남부는 아니라는 기록은 다름 아닌 《일본서기》〈흙명기〉 원년 9월조에 등장한다.

「천황이 여러 신하들에게 “얼마의 군졸이 있으면 신라를 얻을 수 있는가?”라고 묻자 물부대련미여 등이 상주해서 “적은 군졸로는 쉽게 정벌할 수 없습니다. 예전 남대적천황(男大迹天皇:민달) 6년에 백제에서 사신을 보내 상다리·하다리·사다·모루의 4현을 청했는데, 대반대련금촌연이 문득 그 청하는 것을 허락해서 요구한 것을 하사해주었습니다. 이 때문에 신라의 원망이 오랫동안 분명했으니 가볍게 정벌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일본서기》〈흙명기〉 원년 9월)<sup>73)</sup>

임나 4현이 영산강 유역이든 섬진강 유역이든 이곳을 백제에게 주었다고 해서 신라가 불만을 가질 것은 없다. 임나 4현이 영산강, 혹은 섬진강 유역을 뜻한다면 《일본서기》가 거짓말 한 것이고, 역사적 사실의 반영이라면 일본 열도 내 분국들 사이에서의 일이다.

마지막으로 기문에 대해서 살펴보자. 기문은 《일본서기》〈계체기〉 7년조에 등장한다.

“계체 7년 여름 6월, 백제에서 저미문귀(組彌文貴) 장군, 주리족이(洲利即爾) 장군을 파견하고, 수직신압산(穗積臣押山)[《백제본기》는 위(委)의 의사이마기미(意斯麻麻岐彌)라고 하였다]을 딸려 보내어 오경박사 단양이(段楊爾)를 바쳤다. 백제에서 따로 임금께 주(奏)를 올려서 “반파국이 신의 나라인 기문의 땅을 약탈해갔습니다. 얼드러 원하옵건대 하늘의 은혜로 판단하셔서 본래대로 환속하게 해 주소서”라고 빌었다. 가을 8월 계미삭무신에 백제 태자 순타(淳陀)가 세상을 떠났다(《일본서기》〈계체기〉 7년)<sup>74)</sup>

백제 무령왕이 오경박사 단양이를 공물로 바치면서 반파국이 “신의 나라 기문의 땅”을 약탈해갔으니 황제께서 하늘의 은혜로 판단해서 돌려달라고 빌었다는 것이다. 이 기문이 남원이고, 반파가 고령이라는 것이 이마니시 류(今西龍)의 주장인데<sup>75)</sup>, 근래 남한에서 기문은 남원이 맞지만 반파는 전북 장수라는 새로운 설들이 등장했다. 전북 장수에 봉화가 많다는 것이 유일한 근거다. 《일본서기》는 야마토왜에서 이 문제를 11월에 해결했다고 말하고 있다.

“겨울 11월 신축삭음료, 조정에서 백제 저리문귀 장군, 사라(斯羅)의 문득지(汶得至), 안라(安羅)의 신이해(辛已奚) 및 분파위좌(賁巴委佐), 반파(伴跋)의 기전해(既殿奚) 및 죽문지(竹汶至)를 죽 늘어 세워놓고 은혜로운 조칙을 선포해서 “기문과 대사(帶沙)를 백제국에 하사했다. 이달에 반파국에서 집지(戢支)를 보내서 진귀한 보물을 바치면서 기문의 땅을 달라고 빌었지만 끝내 하사하지 않았더라.”<sup>76)</sup>

이마니시 류는 기문은 남원, 반파는 고령이라고 비정했고,<sup>77)</sup> 스에마쓰 야스카즈는 경북 성주(星州)에 비정하면서도 이는 백제국이 기문 할여(割與)를 청구하는 것이지 “반파 운운은 문헌상의 조작에 지나지 않는다.”<sup>78)</sup>라면서 반파는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질 식민사학자 스에마쓰 야스카즈가 보더라도 이 기사는 말이 안 되는 것이었다. 북한 학자 김석형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백제국이 요구한 것은 고몽(기문)땅인데 야마토는 이에 덧붙여 《다사》 땅까지 주었다는 것이다...아무튼 《일본서기》의 서술이 사실대로라고 하면 흥미있는 것은 백제사신이 야마토로부터 자기나라로 떠나갈 때 신라로부터 즉, 신라를 통해 갔다는 서술이다. 이 서술은 일본학자들이 말하는 것과는 달리 여기 조선의 나라들은 조선본국이 아니라 기비지방에 있는 조선소국들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조선본국의 백제라면 그 사신이 야마토로부터 돌아올 때 신라를 거칠 수 없는 것이다. 기비시라기<sup>79)</sup> 서쪽에 있는 구다라(백제)라고 해야 말이 맞는다. 기비백제는 기비시라기의 서쪽, 기비미마나(임나)의 서쪽에서 남쪽 바다 건너 시고꾸의 북부에 걸쳐 있었다고 보아왔다.”<sup>80)</sup>

《일본서기》는 백제사신이 야마토왜에서 본국으로 귀국할 때 신라를 통해서 갔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도 김석형은 여기에 나오는 백제나 신라가 본국들이 아니라 일본 열도에 있던 분국인데, 그 위치는 현재의 오카야마현 길비(吉備)라는 것이다.

또한 김석형은 기문을 둘러싼 《일본서기》의 기록을 이렇게 해석한다.

“하허(반파)와 고몽(기문)은 어디겠는가? 일본학자들은 하허를 경상북도 성주의 본 이름이 본파(本彼)라고 해서 이곳으로 잡고 고몽은 섬진강 유역으로 잡는다. 야마토세력이 남부조선 깊숙이 뺏겼다고 보는 데서 그렇게 잡는다. 그러나 하허, 고몽이 다 조선반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여기의 하허, 고몽은 기비지방으로, 소자시<sup>81)</sup>의 미나나 중심지의 북쪽으로 하허를 잡아야 하고, 고몽은 기비 서

71) 사사카와 재단을 비롯한 일본 극우파 단체들의 국내 자금 살포에 대해서는 박정우, <일본극우재단의 종류와 국내·외 후원사례연구>(신한대학교 신한문화학과 석사학위 논문, 2020)을 참조할 수 있다.

72) 김석형 『초기조일관계사(하)』 사회과학출판사, 1988. 227쪽. 기비는 오카야마(岡山)현의 길비(吉備)로서 북한 학계에는 이 길비를 임나국이 있던 곳으로 비정하고, 백제, 신라도 모두 그 부근에 있는 것으로 비정하고 있다.

73) 《日本書紀》〈欽明紀〉元年, “天皇問諸臣曰 幾許軍卒 伐得新羅 物部大連尾興等奏曰 少許軍卒 不可易征 曩者 男大迹天皇六年 百濟遣使表請 任那上叻鳴下叻唵娑陀牟婁四縣 大伴大連金村 輒依表請許賜所求 由是 新羅忽曠積年 不可輕爾而伐”

74) 《日本書紀》〈繼體紀〉7年, “七年夏六月 百濟遣祖彌文貴將軍洲利即爾將軍 副穗積臣押山[百濟本記云 委意斯移麻岐彌]賈五經博士段楊爾 別奏云 伴跋國 略奪臣國己汶之地 伏願 天恩判還本屬 秋八月癸未朔戊申 百濟太子淳陀薨”

75) 今西龍, <己汶伴跋考>《史林》제7권 제4호, 大正 11년(1922).

76) 《日本書紀》〈繼體紀〉7年, “冬十一月辛亥朔乙卯 於朝廷 引列百濟祖彌文貴將軍斯羅汶得至 安羅辛已奚及賁巴委佐 伴跋既殿奚及汶汶至等 奉宣恩勅 以己汶帶沙賜百濟國 是月 伴跋國 遣獻支獻珍寶 乞己汶之地 而終不賜”

77) 今西龍, <己汶伴跋考>《史林》제7권 제4호, 大正 11년(1922), 12(520)쪽.

78) 末松保和, 《任那興亡史》, 吉川弘文館, 125쪽.

79) 기비시라기는 길비신라(吉備新羅)로서 오카야마현에 있던 고대 신라 분국을 뜻한다.

80) 김석형 『초기조일관계사(하)』 사회과학출판사, 1988. 228-230쪽.

81) 오카야마(岡山)현 소자(總社)시이다.



쪽 백제와 그곳 사이를 잡아야 할 것이다. 다사 또는 다사강은 여기에 하허가 성을 쌓고 야마토로부터의 위협을 막았다고 하고 수군 500여명을 거느리고 다사강에 이르렀다고 한 것으로 미루어서는 아사히강(오까야마현)의 하구 같기도 하다...백제-하허(반포) 소국들 사이의 고몽땅을 둘러싼 분쟁사건은 열도통합문제와 어떻게 관련되는가. 《일본서기》의 글발을 통해서도 내용을 잘 알 수 없으나 이 분쟁 사건에 야마토가 간섭했다는 사실 자체와 그리고 6세기라는 시기자체가 야마토에 의한 열도통합과 관련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게 한다. 이 사건을 통해서도 야마토는 그 권력을 이 지방에 침투시켰고 이렇게 침투시키는 자체가 통합사업추진의 한 고리였을 것이다.<sup>82)</sup>

이 사건을 야마토왜의 열도통합 사건의 하나로 보는 북한 학계의 견해가, 아무런 맥락도 없이 야마토왜가 백제에게 준 땅이라는 전제로 남원이니, 고령이니 성주니 장수니 하는 남한 학계의 주장보다 설득력이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 Ⅶ. 나가는 글

“임나일본부설”은 물론 임나일본부설의 핵심인 “임나=가야설”은 학문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 《삼국사기》·《삼국유사》의 시각으로 보면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일본서기》 자체의 시각으로 분석해도 “임나=가야설”은 성립할 수 없다.

첫째 “임나일본부설”의 수립 근거인 《일본서기》 신공 49년조는 야마토왜에서 신라를 공격했다는 기사이지 가야를 공격했다는 기사가 아니다. 신라를 공격했는데 망한 것은 가야라는 기사다. 이른바 임나 7국의 위치는 일본 열도에서 찾아야지 한반도 남부에서 찾을 수 없다. 《일본서기》 신공 49년의 기사가 가야 멸망기사면 이때 금관가야의 왕통이 바뀌었어야 하는데, 《삼국유사》 〈가락국기〉는 이시품왕이 346년에 즉위해서 407년까지 재위에 있다가 사망하고 아들 좌지가 즉위했다고 말하고 있다.<sup>83)</sup> 369년에 한반도 남부에 야마토왜가 이른바 임나 7국을 정벌한 사건 따위는 없었다.

둘째 임나와 가야는 건국연대, 건국 및 망국군주, 망국연대 및 위치가 모두 다르므로 “임나=가야설”은 학문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 임나와 가야라는 두 나라를 같은 나라라고 주장하려면 위의 사항들이 일치해야 하는데 모두가 불일치하는 두 나라를 같은 나라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㉗라는 사람과 ㉘라는 사람을 같은 사람이라고 주장하려면 생물연대와 부모 성함, 주소 등이 일치해야 하는데 모두가 다른 두 사람을 같은 사람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셋째 호남가야, 즉 호남임나의 논리를 만든 것은 이마니시 류, 아유카이 후사노신 등의 악질 일본인 식민사학자들이다. 《일본서기》에 나오는 지명은 일본 열도에서 찾아야 하는데, 이들은 고대 야마토왜가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그릇된 결론을 가지고 한반도 남부

에서 찾았다. 해방 후 북한학계는 1963년에 이미 이런 침략주의적 논리를 극복한 분국설을 제창했지만 이병도·신석호라는 두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거의 100% 장악한 남한 강단사학계는 아직도 한반도 남부를 고대 야마토왜의 식민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 논리를 가지고 유네스코에 등재까지 하려고 하고 있다. 청말민국초의 사상가였던 양계초(梁啓超)는 “사학은 가장 반대하고 가장 중요한 학문으로 국민의 밝은 거울이며 애국심의 원천”이라고 말했지만 남한 강단사학계를 역사를 “국민의 밝은 거울” 또는 “애국심의 원천”이라고 보는 국민들은 아마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적 각성과 대대적인 개조작업이 필요한 이유다.

82) 김석형 『초기조일관계사(하)』 사회과학출판사, 1988. 230~231쪽.

83) 《삼국유사》〈가락국기〉“伊尸品王 金氏 永和二年即位 治六十二年 義熙三年丁未四月十日崩 王妃司農卿克忠女貞信 生王子坐知”

## 기문가야, 학문적으로 성립 가능한 개념인지에 대한 소고(小考)

박찬화 ((사)대한사랑 연구위원)

### <제목 차례>

들어가며 .....	85
임나일본부설 지도의 중심에 <기문>이 들어 있다. ....	86
남원=기문설을 주장한 이마니시류(今西龍) .....	87
남원의 고대 지명은 고룡(古龍)이다. 기문이 아니다. ....	89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기문(己汶)은 충남 예산이다. ....	91
『삼국사기』, 『양직공도』의 원문을 모두 '기문'으로 바꾼 국사편찬위원회 .....	93
이에 대해서 문화재청은 이런 해명글을 내놓았다. ....	94
쓰에마쓰 야스카즈(末松保和)의 섬진강 비정 .....	95
학계는 쓰에마쓰를 극복했다? .....	96
한원(翰苑) 백제전'기문하(基汶河) .....	98
기문의 위치를 명시한 『신찬성씨록』 .....	99
임나의 동북에 기문이 있나? 신라와 다투는 위치에 있나? .....	99
신찬성씨록 속의 임나 관련 성씨 위치는 모두 일본열도 .....	100
일본서기 기문국에 대한 해석의 모순점 .....	101
양직공도의 백제 방소국 9국은 한반도 남부가 될 수 없다. ....	102
양직공도 백제 방소국 안라(전라) 지명은 일본열도에 많다. ....	105
양직공도의 백제 방소국 '다라' 지명도 일본열도에 많다. ....	108
백제에게 기문과 대사를 준 계체천왕은 무령왕의 동생 .....	110
[인물화상경] 503년 무령왕 사마가 동생 남제왕(계체천왕)에게 보낸 거울 .....	110
[칠지도] 후왕에게 나눠주니 후세에 전하라 .....	111
우륵 12곡이 모두 지명이다? .....	112
기문 주변 <임나 4현>은 일본 열도에 있다 .....	113
임나 4촌의 위치와 임나 4현 .....	114
일본서기에 나오는 임나의 위치 (송신 65년조 기사) .....	115
나가며 .....	116

## 들어가며

임나일본부설 강화하는 가야 고분군 유네스코 등재 중단하고 재검토해야한다. 가야 고분군의 유네스코 등재로 일제 침략이론 임나일본부설은 전 세계에 인정받게 생겼다. 왜 고대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였더라는 거짓역사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주려 하는가? 왜 임나일본부 부활을 우리 스스로 꿈꾸는 것인가?

지역	유네스코 등재 대상유산	국내문헌	일본서기	임나일본부설
**일본학계와 주류강단사학계는 <일본서기>에 나오는 국명을 모두 한반도 남부에 비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비교표이며 <일본서기> 국명은 실제로 대마도,큐슈 등 일본열도에 비정된다.				
경북	고령 지산동 고분군	대가야	가라	임나7국,임나10국
경남	김해 대성동 고분군	금관가야	남가야	임나7국
	함안 말아산 고분군	아라가야	안라	임나7국,임나10국
	고성 송학동 고분군	소가야	고차국	임나10국
	창녕 교동,송현동 고분군	비화가야	비자발	임나7국
합천 옥전 고분군			다라국	임나7국,임나10국
전북	남원 유곡리,두락리 고분군		기문국	임나4현 주변

임나일본부설은 메이지 시대 일본군 참모본부가 만든 학설로서 그 핵심은 고대 야마토왜(大和倭)가 369년 한반도의 가야를 점령해서 임나일본부를 설치하고 562년까지 지배했다는 것이다. 그 핵심 논리는 야마토 왜가 한반도 남쪽을 정복했고 정벌한 7국이 한반도 남부에 있다는 것이고 임나10국, 임나4현, 기문, 대사 등 임나가 들어가거나 그와 관련있는 모든 국명이 한반도 남부에 있다는 것이다. 당시 조선을 정벌하려는 정한론(征韓論)의 배경이자 침략이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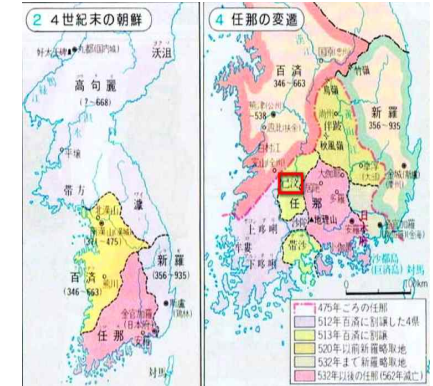
임나일본부설의 중심에 가야=임나설이 있다. 현재 주류 강단역사학계는 남원이 기문이라며 ‘기문가야’로 유네스코에 등재하겠다고 적극 나서고 있다. 『일본서기』는 임나에 ‘기문(己汶)’과 ‘다라(多羅)’가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남원과 합천을 ‘기문’과 ‘다라’로 등재한다면 전 세계인에게 남원과 합천은 『일본서기』 임나국으로 공인받는 것이다.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며 국민들이 분노할 매국적인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참고: 이 글은 학술논문의 성격보다는 이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보다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대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소제목을 달았으며 이미지 활용과 글의 볼드 처리, 줄긋기 등 자료의 성격으로 작성했음을 양해를 바랍니다.

## 임나일본부설 지도의 중심에 <기문>이 들어 있다.



일본 소학관에서 발행하는 '일본대백과전서'에 실린 임나지도



임나의 변천 지도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나일본부설을 주장하는 일본의 역사지도에는 기문이 포함되어 있다. 기문이 임나일본부와 관련 없다고 주장할 수는 있다. 그러나 기문국의 한반도 남부 배치 주장은 임나일본부설에 큰 힘을 실어줄 것이 분명하다.



**남원=기문설을 주장한 이마니시류(今西龍)**

‘남원=기문’ 설의 시작은 한국사외국에 앞장섰던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수회 이마니시 류(今西龍)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기문을 남원으로 비정하면서 개령과 남원 모두 기문으로 불렀으며, 『일본서기』에서 말하는 기문은 남원이라고 주장했다. 해방 후에도 이마니시 류의 주장은 비판 없이 받아들여졌다.



南原は百濟時代に於て古龍と書ける事、三國史記地理志に見ゆ。古龍は、Ko-mil(u)にして、大水の義と語音を同うし、己汶の語と同語なり。己汶は古龍と書かれ、次には古に代ふるに蛟(kyo)の字を以てし、今南原の山城を蛟龍山城と書き、其舊名の名残りを止めたり。(註三)己汶即ち基汶の南原なる事疑を容れず。基汶の基は大の義にして、汶は水とも村里とも解せらるれば、河名よりして基汶の地名起りしか、地名より河名起りしか明ならざれども、恐くは河名よりして地名を生せしなる可し。

南原の地方は全羅北道の東南隅に、鎭津江の上流の地を占めて一區劃を成し、雲峰街道によりて慶尙南道北部及同北道南部と交通至便の地にあり。麗洛(麗)の北部より日本に交通するには、南原に出で鎭津江を下るの路は一主要なる路なりしなり。況して洛東江の交通路が新羅の爲に妨さるゝ場合

第七卷 研究 己汶伴跋考

이마니시 류는 「기문·반파고己汶伴跋考」(1922)에서 『일본서기』에 나오는 기문(己汶)을 전라도 남원이라는 논리를 만들었다. 이것이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무비판적으로 검토되어 정설로 되었다.

일제 식민사학자 이마니시 류는 기문이 왜 남원이라고 했을까? 그의 논문 「기문반파고己汶伴跋考」의 한 부분을 살펴보자.

“이 강 (주:기문하) 이름에 의거하여 일본서기의 기문은 이 강의 유역에 있는 것이 명료하다.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汶을 빌려서 표시하는 말은 ‘水’의 방언과 말하는 소리가 같고 그 변이가 동일하므로 汶은 mil로도 될 수 있다. 조선에서 용을 mil(u)라고 부르는데 일본어의 ‘미츠치[ミツチ]’와 같은 말이다.

섬진강의 상류인 남원은 백제 시대에 고훝(古龍)으로 쓰였던 것이 삼국사기 지리지에 보인다. 고훝은 ko-mil(u)로 큰 물이라는 뜻과 말하는 소리를 같이 하고 기문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다. 기문은 고훝으로 쓰여졌고 다음에는古를 대신해서 蛟(kyo)자를 썼다. 지금 남원의

산성을 고훝산성(蛟龍山城)이라고 써서 그 옛 이름의 자취를 남겼다. 기문己汶 즉 基汶이 남원인 것은 의심할 것 없다. 기문(基汶)의 기(基)는 크다는 뜻이고 문(汶)은 물로도 마을로도 해석할 수 있으므로 강의 이름으로부터 지명이 생겨났는지 지명으로부터 강의 이름이 생겨났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아마도 강의 이름으로부터 지명이 생겨났을 것이다.”<sup>1)</sup>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명료하다” “ 의심할 것 없다. “라고 분명하다는 듯한 표현을 남발하면 논리가 없는 경우가 많고 불명료하며 의심을 해보아야 하는 부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마니시류 역시 이런 표현을 논문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고룡(古龍) → 고밀 ko-mil(u) → 큰 물 ← 기물(基는 크다,汶은 물) ← 기문(基汶)

이마니시가 주장한 것을 정리하면 위와 같다. 언어학적으로 근거가 없다. 남원이 옛 지명이 ‘고룡’이니 이를 ‘기문’과 어떻게든 맞추려는 억지 논리다. 국내 문헌에는 어디에도 남원이 기문이라는 기록이 없다. 『일본서기』에도 기문만 등장할 뿐 그곳이 남원이라는 기록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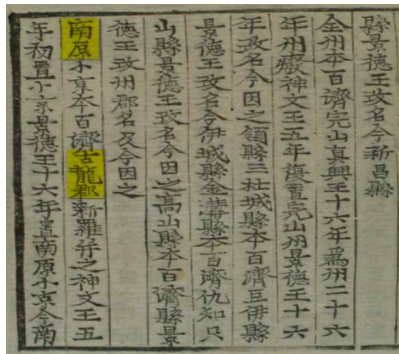
1) 이마니시 류(今西龍), 「己汶伴跋考」史林 第7卷 第4號, 1922-위가야 譯

남원의 고대 지명은 고룡(古龍)이다. 기문이 아니다.

남원의 고대 지명은 삼국사기, 고려사,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람 등을 보건데 기문이 아니라 고룡(古龍)이다. 기문이라는 명칭을 남원에 비정하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 이를 언어 유희로 기문국, 기문가야가 남원이라는 등식을 만들어버렸다. 해방 이후 일제가 왜곡한 부분을 다시 돌려놔야 하는 우리 학계는 100년 전의 논문에 모든 것을 맞추기로 한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남원에 대한 역사와 지명이 문헌 기록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삼국시대부터로 백제 때 ‘고룡군(古龍郡)’이 최초의 이름이다. 신라 문무왕이 삼국을 통일한 뒤 신문왕 5년(685) 전국을 9주 5소경으로 나눌 때 현재의 남원 땅에 소경(小京)을 설치했다. 그리고 경덕왕 16년(757)에 ‘남원(南原)’이라 고쳤는데, 이때부터 남원이란 지명을 처음 썼다. 경덕왕 때이니 남원도 1200년이 넘는 아주 오래된 지명이다.



### 삼국사기

“남원소경(南原小京)은 본래 백제(百濟)의 고룡군(古龍郡)이었다. 신라(新羅)는 이를 병합하여 신문왕(神文王) 5년(685)에 처음으로 소경(小京)을 설치했다. 경덕왕(景德王) 16년(757)에 남원소경(南原小京)을 설치했다. 지금은 남원부(南原府)이다.” (『三國史記』 권 제36 잡지 제 5)

“남원(南原) 한편 고룡군(古龍郡)이라고도 이른다” (『三國史記』 권 제37 잡지 제6)

### 고려사

“南原府本百濟古龍郡，後漢建安中，爲帶方郡。曹魏時，爲南帶方郡。新羅并百濟，唐高宗，詔劉仁軌，檢校帶方州刺史。神文王四年，置小京，景德王十六年，改南原小京。

남원부(南原府)는 본래 백제(百濟)의 고룡군(古龍郡)으로, 후한(後漢) 건안(建安) 연간(196~220)에 대방군(帶方郡)이 되었다. 조위(曹魏) 때는 남대방군(南帶方郡)이 되었다. 신라(新羅)가 백제를 병합하자, 당(唐) 고종(高宗)이 유인궤(劉仁軌)에게 조서(詔書)를 내려 검교대방주자사(檢校帶方州刺史)로 삼았다. 신문왕(神文王) 4년(684)에 소경(小京)을 두었으며, 경덕왕(景德王) 16년(757)에 남원소경(南原小京)으로 고쳤다.” 2) (『고려사』)

### 세종실록

“본래 백제의 고룡군(古龍郡)이었는데, 후한(後漢) 건안(建安) 때 대방군(帶方郡)이 되었다고, 조위(曹魏) 때에 남대방군(南帶方郡)이 되었다.” 3) (『세종실록』)

### 「동국여지승람(東國與地勝覽)」과 「용성지(龍城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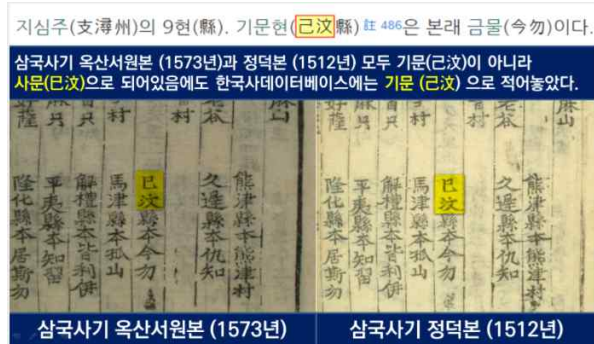
“본래 백제의 고룡군이다. 후한의 건안년 사이에 대방군이라 하였다. 조위시대에는 남대방군이라 하고, 뒤에 당나라 고종이 소정방을 보내 백제를 멸망시키고 유인궤에게 조서를 내려 대방주 자사를 겸임토록 하였다. 신라 문무왕이 그 땅을 병합한지 얼마되지 않아 신문왕 5년 소경을 설치하였으며, 경덕왕은 남원으로 고쳤다.(本百濟古龍郡 後漢建安中 爲帶方郡 曹魏時爲南帶方郡 後唐高宗 遣蘇定方 滅百濟 詔劉仁軌檢校帶方州刺史 末幾新羅文武王 并基地 神文王 五年 直小京 景德王 改令名)”

남원은 문헌상으로 보면 어디에도 기문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남원의 옛 지명이 고룡이었는데 고룡이 기문이라는 것은 아무리 보아도 억지다. 남원이 기문이어야만 한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고룡을 꺼맞추어 본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까지 해서 억지로 맞춘 것을 우리 학계는 기문이 당연히 맞다고 하고 있으니 일반 국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기에 분노하는 것이다.

2) 고려사 志 卷第十一

3) 세종실록 151권, 지리지 전라도 남원 도호부(南原都護府)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기문(己汶)은 충남 예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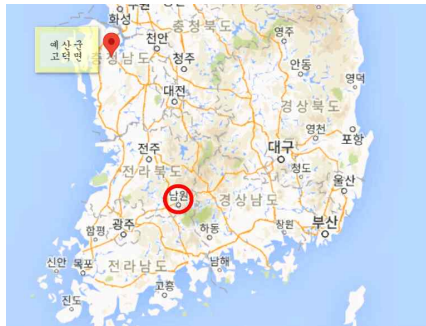
지심주(支溍州)의 9현(縣). 기문현(己汶縣)註 486은 본래 금물(今勿)이다.

삼국사기 옥산서원본 (1573년)과 정덕본 (1512년) 모두 기문(己汶)이 아니라 사문(巳汶)으로 되어있음에도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는 기문(己汶)으로 적어놓았다.

삼국사기 옥산서원본 (1573년)

삼국사기 정덕본 (1512년)

『삼국사기』에서 등장하는 ‘기문’은 어디인가? 충남 예산이다.



“지심주(支溍州)의 9현(縣). 기문현(己汶縣)은 본래 금물(今勿)이다. 지심현(支溍縣)은 본래 지삼촌(只多村)이다. 마진현(馬津縣)은 본래 고산(孤山)이다...증락...융화현(隆化縣)은 본래 거사물(居斯勿)이다.” 4(『삼국사기』)

국사편찬위원회 주석에는 “지금의 충청남도 예산군(禮山郡) 고덕면(古德面)이다”라고 되어있다.<sup>5)</sup>

백제 기문현(己汶縣)은 본래 금물현(今勿縣)에서 비롯한 곳으로 『일본서기』에서의 임나 기문국(己汶國)과 전혀 관련이 없다. 기문은 남원이 아니라 예산이다. 만약 기문현이 조금 더 아래쪽이었다면, 일본인 학자들은 의심의 여지없이 기문으로 비정했을 것이다.

더구나 '내 이름 汶'자는 백제 당대에 쓰지 않았다. 당나라가 설치한 지방 행정구역이다.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기문'현은 실제로는 '사문'현으로 충남 예산군 고덕면(덕산면)이며, 당나라 침략군이 백제를 멸망시키고 도독부를 두고 행정구역을 재편할때 '금물'에서 '사문己汶'으로 바꿨던 지명이다. '기문己汶'이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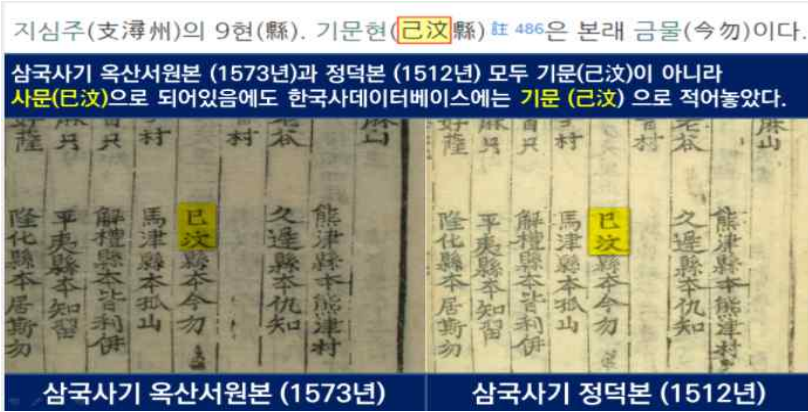
중국어에는 'ㄱ' (기역) 발음이 없는데<sup>6)</sup> '사문'은 7세기 당나라가 백제를 침략하면서 우리 지명 '금물'을 자신을 발음으로 바꾼 것이다. 따라서 '금물'이 '사문己汶'이 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문'이든 '기문'이든 7세기 이전 백제에는 없던 지명이며 '내 이름 汶'자는 백제에서 쓰지 않은 지명이다.

4) 『삼국사기』 권 제37 잡지 제6

5) (정구복 외, 《역주 삼국사기》 4 주석편 (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436쪽).

6) 'ㄱ'(기역) 발음이 없기 때문에 '김치'를 중국어 표기로 '신치'로 바꾼 것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삼국사기』, 『양직공도』의 원문을 모두 '기문'으로 바꾼 국사편찬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 원문이 조작된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사료원문을 해석할 때 한글자 차이로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올수 있는 역사연구에서 대단히 큰 문제를 일으킨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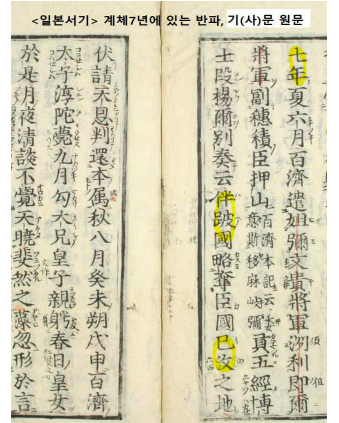
『삼국사기』 옥산서원본(1573년)과 정덕본(1512년)에는 모두 사문(巳汶)이 원문인데도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는 아무 설명도 없이 기문으로 바꿔 놓았다. 이는 원문 조작의 행태다.

『양직공도』 원문에는 상사문(上巳文)이라고 되어있는 것을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는 상기문(上己文)으로 원글을 바꾸어놓았다. 윤용구의 논문에도 상사문(上巳文)으로 되어있다.

만약 학자가 '기문'이 맞다고 주장하려면 일단 원문 그대로 '사문'으로 적은 뒤에 각주나 설명 글에서 "이것은 어떠한 이유로 사문이 아니라 기문이다. 원문은 사문이지만 기문이라고 읽어야 된다"라고 적는 방식을 취했어야 맞다.

이에 대해서 문화재청은 이런 해명글을 내놓았다.

“한·중·일 역사서에 등장하는 ‘사문’, ‘기문’, ‘파문’은 동일한 정치체를 가리키는 단어로 보이지만 각각 표기 방법이 다름.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자표기가 고정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현상으로 파악하고 있음. 한국 고대사학계 연구자들이 ‘기문’으로 파악하는 이유는 ‘사문’은 단 한차례 등장하지만, ‘기문’은 다수의 역사서에 등장하는 용어이므로 ‘사문’, ‘파문’보다는 ‘기문’이 사실에 가까울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하여 사용함. 역사서에 표기된 한자를 그대로 받아들여 사용하는 역사학자는 없음. 여러 사서의 내용을 교차검증하여 최상의 내용을 선택함” (청와대청원, 국민신문고 문제 제기 에 대한 문화재청의 답변중에서)



일본서기도 사문으로 되어있다

“사문巳汶은 단 한차례 등장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말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앞에 언급했듯이 『삼국사기』에는 ‘사문(巳汶)’, 『양직공도』에는 ‘상사문上巳汶’, 『신찬성씨록』에는 ‘삼파문三巴汶’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학계가 주장하는 『일본서기』에서도 원문은 사문巳汶으로 쓰였고 ‘이문’으로 읽고 있다.

사료	원문	비고
삼국사기	사문巳汶	현재 충남 예산
양직공도	상사문上巳汶	
신찬성씨록	삼파문三巴汶	
일본서기	사문巳汶	‘이[i]’로 읽음

쓰에마쓰 야스카즈(末松保和)의 섬진강 비정

“일본의 한반도 영유(임나)는 그 자체만으로도 일본의 자랑이다” (末松保和)

쓰에마쓰 야스카즈(末松保和)는 『임나홍망사』(1949)에서 임나의 위치를 한반도 남부에 비정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의 연구는 치밀한 고증이나 연구가 아니라 뜻 가는대로 임나 지명을 갖다 붙였다. 이렇게 해서 그는 한반도 남부를 야마토왜의 식민지로 만들어 놓았다. 쓰에마쓰는 다라를 합천에 비정하고 기문을 남원에 비정했다.



학계는 쓰에마쓰를 극복했다?

서울대 교수 김용섭의 자서전 『역사의 오솔길을 가면서』(지식산업사 2011)에는 쓰에마쓰 야스카즈가 일제 패망후에도 서울대를 들락날락하면서 경성제국대(서울대) 출신 교수들을 관리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회고록에서 놀라운 점은 식민주의 역사학의 당사자인 일본 학자들이 김용섭 교수에게 압박을 가했다는 사실이다. “너덧 명의 중년·노년 교수가 내방하였다. 노크를 하기에 문을 열었더니, 김원룡 교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제 때 경성제대에서 내가 배운 쓰에마쓰 선생님인데, 김 선생 강의를 참관코자 하시기에 모시고 왔어요. 김 선생 되겠지?’ 하는 것이었다.” 쓰에마쓰 야스카즈는 조선총독부 관리이자 경성제국대학 교수로서 임나일본부설을 체계화하는 등 식민주의 역사학을 수립한 중심인물이다. 당시 서울대 고고인류학과 교수인 김원룡은 경성제국대학 시절 쓰에마쓰의 제자였다.

한국 사학계는 한쪽으로는 임나일본부설을 부인한다면에서도 다른 한쪽으로는 쓰에마쓰 야스카즈의 식민사학을 정설로 수용하고 있다.



쓰에마쓰 야스카즈는 임나일본부설을 총 정리한 『임나홍망사』에서 이렇게 썼다

“일본의 한반도 영유(임나)는 그 자체만으로도 일본의 자랑이며 구한말 일본에 의한 조선 병합은 고대의 복현이다. 이는 앞으로도 영원히 일본이 한국에 대한 예속을 주장할 수 있는 정신을 인도해준다”

**[신공황후] 49년(249—369년) 봄 3**  
**월에 황전별과 녹야벌을 장군으로 삼아 구저 등과 함께 군대를 거느리고 바다를 건너가 탁순국에 이르러 장차 신라를 습격하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함께 탁순국에 모여 신라를 격파하고, **비자발(比自狹)·남가라(南加羅)·녹국(喙國) 안라(安羅)·다라(多羅)·탁순(卓淳)·가라(加羅)의 7국을 평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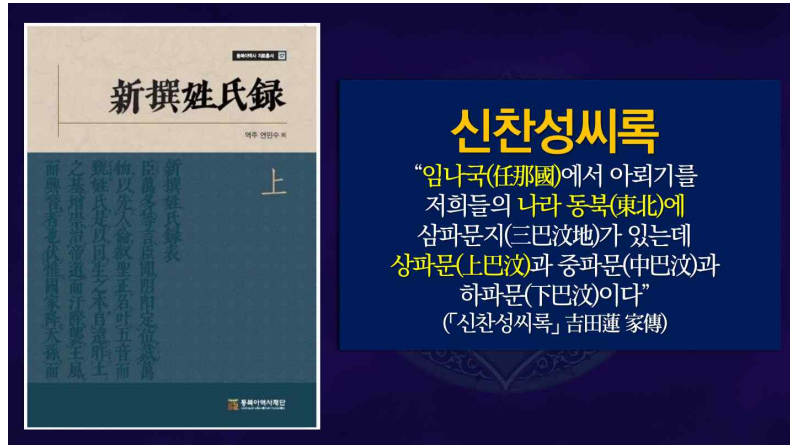
『일본서기』권9, 「신공황후」 49년

지금 우리 학계는 합천을 다라라 하고 함안을 안라라고 하고 고령을 가라라고 하고 대구를 탁순이라 하고 경산을 탁국이라고 하고 창녕을 비자발이라고 하고 김해를 남가라라고 하고 있다. 무엇을 극복했다는 말인가?





기문의 위치를 명시한 『신찬성씨록』



임나의 동북에 기문이 있나? 신라와 다투는 위치에 있나?

일본의 성씨 유래를 기록한 『신찬성씨록』에서 ‘임나국의 동북에 있던 상파문’을 학계는 ‘상기문’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마니시 류도 파문과 기문 중에 어느 것이 맞다고 확신할 수 없으며, 『신찬성씨록』에서 ‘임나의 동북에 있다’고 나오기 때문에 “이때의 기문은 임나(가야)의 동북쪽에 있는 김천 개령이 맞다”고 주장하였다. 즉, 신찬성씨록 ‘임나 동북방’과 한원 ‘동남으로 흐른다’는 문구에 정합하는 기문은 한반도에 없다.

“신찬성씨록에서 기문은 임나의 동북에 있으면서 신라와 서로 다투는 위치에 있음을 보여 준다. 이것의 기문의 위치를 명시하는 거의 유일한 사료인데, 임나를 어디로 비정하든 기문은 임나와 신라 사이에 있으므로 낙동강 유역이지 섬진강 유역이 될 수는 없다.”<sup>8)</sup>

8) 『일본서기 한국관계기사 연구』, 김현구·박현숙·우재병·이계석 공저, 일지사 출판

신찬성씨록 속의 임나 관련 성씨 위치는 모두 일본열도



신찬성씨록(新撰姓氏錄)은 헤이안 시대 초기인 815년(고닌 6년)에 사가 천황의 명으로 편찬된 일본 고대 씨족의 일람서이다 여기에 임나 관련 성씨들이 있는데 모두 일본열도에 있다. 그렇다면 임나의 동북쪽에 있다는 기문도 여기서 찾아야 하는 것 아닌가?

“오오토모노미야즈코(大伴造)는 임나국(任那国) 임금(主) 용주왕(龍主王)의 손자 좌리왕(佐利王)의 후손이다.(大伴造 出自任那国主龍主王孫佐利王也.)” (『新撰姓氏錄』 第三 大和國 諸蕃 任那)

“토요즈노미야즈코(豊津造)는 임나국(任那国) 사람 사리키무[좌리금(左李金)](또는 이름이 사리키무(佐利己牟)이다)의 후손이다.(豊津造 出自任那国人左李金<亦名佐羅利支己牟>也.)” (『新撰姓氏錄』 第三 攝津國 諸蕃 任那)

“카라히토(韓人)는 토요즈미야히코(豊津造)와 조상이 같다. 사리키무[좌리금(左李金)](또는 이름이 사리키무[좌리기모(佐利己牟)]이다)의 후손이다.(韓人 豊津造同祖. 左李金<亦名佐羅利己牟>之後也.)” (『新撰姓氏錄』 第三 攝津國 諸蕃 任那)



“아라라노키미(荒荒公)는 임나국(任那国) 호우키왕[풍귀왕(豊貴王)]의 후손이다.(荒荒公 任那国豊貴王之後也.)” (『新撰姓氏錄』 第三 攝津國 諸蕃 任那)

“오호치노오비토(大市首) 씨족은 임나국인(任那國人) 츠누가아라시토에서 나왔다.(大市首 出自任那國人都怒賀阿羅斯止也.)” (『新撰姓氏錄』 第三 左京 諸蕃 下 任那)

신찬성씨록의 임나 성씨들이 있는 곳

**일본서기 기문국에 대한 해석의 모순점**

“백제가.. “반과국(伴陂國)이 신의 나라의 기문(己汶)이라는 땅을 약탈하였습니다. 없드려 바라옵건대 바르게 판단하여 원래 속한 곳에 돌려 주십시오” (『일본서기』 계체 7년 6월 기사)

학계는 반과국을 대가야의 비칭(卑稱)으로 추정하고, 계체 7년 기사는 대가야에 속했던 기문국을 백제가 빼앗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기록만 봐도 『일본서기』에는 많은 모순점들이 있다.

- ①백제가 왜의 속국처럼 묘사되어 있는데 역사적 사실과 전혀 다르며
- ②반과가 대가야의 비칭이라는 근거도 없고
- ③대가야(반과)가 자신의 소국(기문)을 약탈했을 리도 없으며
- ④백제가 왜에게 반과의 기문을 돌려달라고 할 이유도 없다. 계체 9년조에 보면 왜는 반과를 공격했다가 오히려 참패했다.

이에 대해서 이병선 교수는 당시 대마도에 있던 백제의 분국과 고구려의 분국이었던 반과간의 패권 다툼을 일왕의 시각에서 재구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백제의 저미문국 장군, 사라(斯羅)의 문득지, 안라(安羅)의 신이해 및 분과위자, 반과의 기전해와 죽문지 등을 불러 칙명을 알리고, 기문과 대사를 백제국에 주었다.” (『일본서기』 계체 7년 11월 기사)

▶ 야마토 왜가 백제, 사라(신라), 안라(아라가야) 장군들을 불러 모아서 공식적으로 기문(남원)과 대사(하동)를 백제에 주겠다고 천명했다는 것이다. 임나일본부설에서 야마토 왜는 임나(가야)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백제에게 임나의 기문, 대사를 넘겼다는 것인데 역시나 모순이 많다.

학계에서는 백제가 왜와 교통하는 교역로인 섬진강 유역을 차지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그런데, 백제가 신라, 아라가야, 대가야를 불러 모아 놓고 ‘남원과 하동을 백제가 차지하겠다’고 선언했다는 뜻이다. **상식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일본서기』에서 기문에 대한 서술은 계체 7년에 보이는 기록이 전부다. 그 어디에도 기문이 남원이라거나, 백제 기록을 인용했다는 근거는 없다. 그럼에도 학계는 ‘기문이 남원’이라고 우기는 것이다.** 기문 대사가 나오는 유일한 전거인 『일본서기』의 야마토 왜의 한반도 남부 지역 영향력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서 허구의 임나일본부설을 인정하는 역사왜곡과 연계된다.

**양직공도의 백제 방소국 9국은 한반도 남부가 될 수 없다.**



현전하는 「양직공도」는 양나라 시대의 진본이 아니라, 11세기 초에 제작된 모본이다. “양직공도에 백제의 방소국으로 상기문(上己文)이 있는데 기문을 말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직공도에는 ‘상기문’이 아니라 ‘상사문(上巳文)’으로 되어 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아무 설명도 없이 원문의 ‘상사문’을 ‘상기문’으로 바꿔서 표기했다. 이는 상사문이라고 쓰고 이는 ‘상기문’이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다.

양직공도(梁職貢圖 530년대 제작)는 다라국, 기문국 명칭이 담겨 있는 가장 오래된 기록이라며 양직공도를 앞세우고 있다. 또한, 양직공도에 서술된 백제의 방소국으로 ‘반과(叛波), 탁(卓), 다라(多羅), 전라(全羅), 사라(斯羅), 지미(止迷), 마련(麻連), 상사문(上巳汶), 하침라(下枕羅)’ 등 9국이 있는데 이를 한반도에 배치하여 임나일본부설에 악용하고 있다.

그러나, 양직공도의 전체 내용을 본다면 9국은 한반도에 배치할 수 없다. 양직공도의 내용에서 앞부분은 요서, 진평으로 시작하는 대륙 백제를 서술하고, 이후에 치소성 고마위

지방 통치제도인 담로제를 설명하면서 백제의 방소국을 서술하고 있다. **양직공도의 방소국은 문맥상 백제가 해외에 두었던 담로의 주변 소국(방소국)이다.**

『구당서』에는 백제의 영토를 서술하고 있는데

“(백제의 영토는) 서로는 월주(양쯔강 연안)에 이르고 북으로는 바다(발해)를 건너 고구려에 이르고, **남으로는 바다를 건너 왜에 이른다.**”(『구당서』 「백제전」)

라고하여 서쪽으로는 중국, 남쪽으로는 바다를 건너 일본열도에 이른 것으로 서술했다. 양직공도의 백제 소개글은 이와 같은 맥락으로 서술되어있다. 처음에 요서진평 백제를 얘기하고 이후 담로제도를 기술하는 부분은 일본열도를 포함한 담로로 보아야 한다.



실제로 일본열도 기내지역 앞에는 백제의 ‘담로’가 있었다. 정확히 발음이 일치하는 명칭이 있는데 이를 두고 다른 곳을 찾아서는 안된다. 담로(淡路)에 대해서는 『일본서기』 신대기에 그 표현이 있다.

“음양의 두 신인 이자나기와 이자나미가 처음 결합하여 부부가 됐다. 자식을 낳을 때가 이르니 맨 처음 담로를 모태(胞)로하여 여러 땅(열도)을 낳았다. 그런데 기분이 나빠 담로의 이름을 바꿔 아와지시마로 했다.(威於是陰陽始遵合爲夫婦及至產時 先以淡路洲爲胞意所不快故名之曰淡路洲)”

『일본서기』를 편찬할 당시까지 ‘담로淡路’라고 쓰고, ‘담로’라고 읽었다. 백제의 담로를 모태로 하여 일본이라는 국가가 수립되었다는 내용이란 것을 상식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것은 천황중심으로 국가를 재편하고자 했던 일본에게는 필히 숨겨야 하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담로’를 ‘아와지’로 말하라 했을 것이다.

“22 담로가 있어 (왕의) 자제종족이 나누어 다스렸다.(所治城曰固麻，謂邑檐魯 於中國郡縣 有二十二檐魯，分子弟宗族爲之)” (양직공도)



이노우에 미쓰사다 井上光貞 도쿄대 사학과 교수는 『일본국가의 기원』에서 큐슈(九州)에는 7개의 담로(대마對馬, 일기壹岐, 이도노伊都奴, 투마投馬, 사마대邪馬臺)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큐슈에 7개의 담로가 있다면 일본열도에는 담로도 포함하여 최소 8곳 이상의 담로가 있다고 봐야 한다.

담로와 더불어 나오는 고마가 있다. 고마는 꿈이다. 고마에 해당하는 지명은 일본열도에도 산재해 있다. 하나 예를 들자면 구마모토의 ‘구마’를 들 수 있다. 구마 주변에 담로에 해당하는 지역명이 있다. 이런 곳을 살펴보면 담이 나온다. 공주가 고마라고 한다면 담로가 있다면 정답이 된다. 그렇지만 담로라는 지명이 안나온다면 다른 고마(혹은 구마)에서 주변 담로를 찾아보면 해답이 나온다. 일본열도에는 그런 지명이 여러군데 발견된다.

다시 양직공도의 문구로 들어가보자.

“22담로가 있어 자제종족이 나누어 다스렸다. 주변 소국으로 반파, 탁, 다라, 전라, 사라, 지미, 마런, 상사문(上巳文), 하침라 등이 있어 부용한다.”

▶ 旁小國有 ①叛波, ②卓, ③多羅, ④前羅, ⑤斯羅, ⑥止迷, ⑦麻連, ⑧上巳文, ⑨下枕羅等附之.

양직공도의 백제 설명글은 이렇듯 “우리 백제는 서로는 요서 진평, 남으로는 바다건너 왜에 담로를 두었다. 왜의 담로 방소국(주변 백제 부역 소국)은 9국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서술 방식으로 볼 때 백제의 방소국은 한반도 내에 있지 않다.

또한 방소국 9국의 위치 중 몇 곳을 보면 일본열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지명이 많다. 전라, 다라 등이 그 예다

양직공도 백제 방소국 안라(전라) 지명은 일본열도에 많다.



교토시 부근에 안라 신사가 있다.

《삼국사기》 함안군조를 보자.

咸安郡, 法興王以大兵, 滅阿尸良國 一云阿郡加耶., 以其地爲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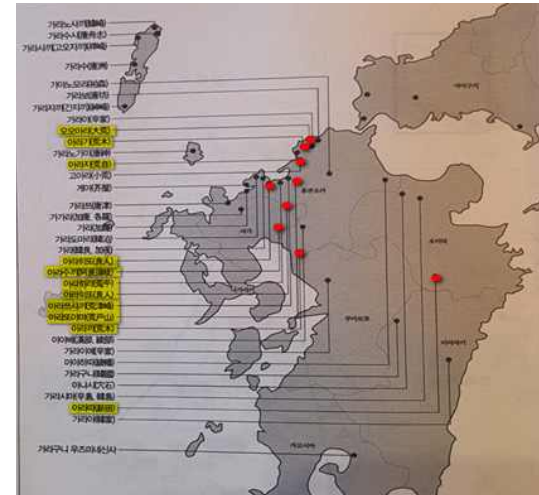
함안군(咸安郡)은 법흥왕(法興王)이 많은 병사를 동원하여 **아시랑국(阿尸良國)** (**한편 아나가야(阿那加耶)**라고도 이른다)를 멸하고, 그 땅을 군으로 삼은 곳이다. 9)

《삼국사기》로 보면 아시랑국(阿良國) [아나가야(阿那加耶)]은 멸망한 연도는 법흥왕(法興王)이 재위한 514-540년 사이이다.

아시랑국 (아나가야) 멸망	안라(安羅)는 여전히 등장
《삼국사기》 법흥왕 재위 기간(514 ~ 540)	일본서기 흠명천황 2년 (541년)
《대동지지》, 법흥왕 24년 (537년)	

그런데 《일본서기》 흠명천황(欽明天皇) 2년(541) 4월에, “**안라(安羅)**, 가라(加羅), 줄(牟), 산반(半), 다라(多羅), 사이기(斯二岐), 자타(子)의 한기 등과 임나(任那) 일본(日本府)의 길비신(吉備臣)이 백제(百濟)에 가서 조칙(詔勅)을 들었다는 기록은 541년으로 이때는 신라로 보면 법흥왕 이후의 사건이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타난 **안라(安羅)는 함안의 아라가야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안라(安羅)의 지리적인 위치는 한반도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

《대동지지(大東地志)》에 고대 아나가야국(아시랑국)이 **신라 법흥왕 24년(537년)**에 멸망한 사실에 입각하면, 쓰에마쓰가 함안으로 비정했던 안라는 야마토왜국에 소재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안라 기사는 537년 이후에 일본서기에 나오기 때문이다.



일본 내 가야계통 지명 분포도 (큐슈 지역) 중에서 노란색, 빨간점은 아라(야,아나) 지명

인하대 남창희 교수는 “**안라가 한반도 남부에 있었다는 명확한 사료적 근거는 없다. ...큐슈에도 신라성이 있었다는 가능성을 열면 안라의 위치 비정의 새로운 탐구도 가능해진다.**” 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북한학계의 연구와 윤내현 교수의 제 확인에 의하면 안라,아라,아나 지명이 일본열도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안라가 열도에 있다면 나열된 9국의 맥락상 상사문도 일본 열도에서 찾아야 한다.



**안량(安良), 안량산(安良山)이라는 지명과 산이 있다. 옛 문헌에는 이 산을 안라산(安羅山)이라고 명문을 밝히고 있다 (북한학계의 가야사연구, 27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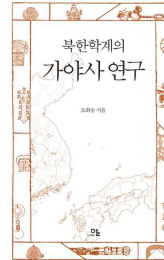
9) 삼국사기 잡지 제3 지리(地理) 신라(新羅) 함안군

일본	No.	지명	지명 소재지	비고
규슈지구	1	아라기	후쿠오카현 무라카마군	향 이름
	2	아라지		향 이름
	3	오오아라		향 이름
	4	아라쓰사끼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나루 이름
	5	아라토야마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산 이름
	6	아라히라	후쿠오카현 소오라군	마을 이름
	7	아라히토	후쿠오카현 이토군	향 이름
	8	아라히토	후쿠오카현 나가군	향 이름
	9	아라끼	후쿠오카현 미즈마군	마을 이름
	10	아야히타	후쿠오카현 쩌꾸쨌군	마을 이름
	11	아야베	사가현 미야끼군	마을 이름
	12	아나시	오오이타현 시모케군	향 이름
	13	아라타	오오이타현 오오노군	마을 이름
	14	아라스끼	사가현 기시마군	향 이름
세토내해지구	15	아야	야마구찌현 미네군	
	16	아야라기	야마구찌현 도요우라군	
	17	아나도	야마구찌현 남부지역	
	18	아나	히로시마현 후카야수군	고을과 바다
	19	아나다	오카야마현 가와가미군	향 이름
	20	아라도	오카야마현 아베쓰군	마을 이름
	21	아야베	오카야마현 도마다군	향 이름
	22	아야	카가와현 아야우타군	고을 이름
	23	아나시	효고현 시카마군	향 이름
	24	아야베	효고현 시카마군	마을 이름
	25	아라이	효고현 가고군	마을 이름
	26	이라쯔	효고현 다카군	형과 신사 이름
	27	아나가	효고현 아와지섬	마을 이름
	28	아나노우라	효고현 아와지섬	나루 이름
	29	아나시	효고현 시소군	마을 이름
강끼지구	30	아나시	오사카부 세보꾸군	마을과 신사
	31	아라	오사카부 니시나라군	향 이름
	32	아라하카	오사카부 니시나라군	마을 이름
	33	아라라 마쯔바라	교토부 교토시 우지군	마을 이름
	34	아라	시가현 구리타군	향 이름
	35	아라	시가현 구리타군	향 이름
	36	아나	시가현 사가타군	신사 이름
	37	아야도	시가현 히가시야사히군	마을 이름
	38	아나	오오쯔시 가모군	
	39	아라가와	와카야마현 나가군	향 이름
40	아라다	와카야마현 아리다군	향 이름	
조선 동해 연안지구	41	아라가야	시마네현 야쯔카군	향 이름
	42	아다가야	시마네현 야쯔카군	신사 이름
	43	야요(아야)	시마네현 오오하라군	마을 이름
	44	아라와이	시마네현 야쯔카군	마을 이름
	45	아라가야	시마네현 히카와군	마을 이름
	46	아라끼	시마네현 히카와군	마을 이름
	47	아라시마	시마네현 노기군	마을 이름
	48	아야베	교토부 아야베시	향 이름
	49	아라베	교토부 구와타군	향 이름
	50	아라끼	이시카와현 가호꾸군	마을과 고개
	51	아라끼	기후현 기요군의 옛 이름	고을 이름

출처 : 조희승, 『북한학계의 가야사 연구』, 도서출판 말, 2020년

## 양직공도의 백제 방소국 ‘다라’ 지명도 일본열도에 많다.

북한학계에서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라 지명은 일본열도에 수십군데 존재한다.** 최재석 교수, 이병선 교수, 오순제 교수, 남창희 교수 등 다라국이 일본열도에 있던 국명, 지명임을 주장하는 논문도 많다.



“일본열도에 전해오는 다라지명을 대략 들면, 쩌꾸젠(후쿠오카현 일대)의 **다다라(多多良)** 마을과 해변가 이름, 히젠(사가현)의 **다라산(多良岳, 託羅之峰)**, 후지쓰군 다라촌(多良村), 히고(구마모토현) 구마군의 다라기(多良木), 오오구마(나가사키현) 이시군 **다라(太良)**, 나가또(야마구찌 현) **다라마을과 다라강(多羅川)**, 빙고(히로시마현) 아시시나군 **다라(柞麻)**, 비젠(오카야마현) **다다라(多多羅)**, 야마시로(교토부) 쩌쯔끼군 **다다라(多多羅)**, 와카사(후쿠이현) 오뉴군 **다라(太良庄)**, 오오미(시가현) 고오가군 **다라(多羅尾)**, 이가(미에현) 아야마군 **다라노(刺菽野)**, 미노 (기후현) 요로군 다라의 이름을 가진 강과 고을 등이다. 이밖에도 《화명초》에는 가이(야마나시현) 쓰루군과 수와(야마구찌 현) 사하군에 **다라향(多良郷)**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다라 지명은 이 밖에도 많다. 이러한 다라지명이 가야의 다라와 직접 관련이 있다는 것은 논할 여지가 없다.**”(북한학계의 가야사연구, 조희승 저, 도서출판 말, 276쪽-277쪽)

다라산, 다라촌, 다라기, 다라, 다다라, 다라오, 다라노, 다라향 등 위에 언급된 지명들은 모두 지금도 구글 지도로 검색해서 확인해볼 수 있다.



김석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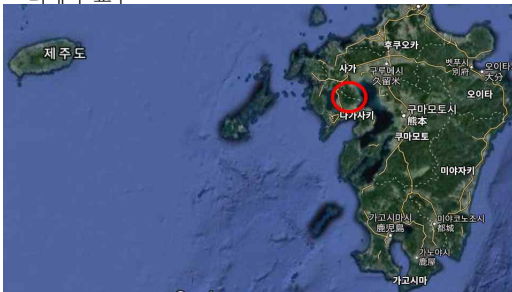
300권이 넘는 논문을 써서 “임나일본부는 일본열도에 있었다”고 논증한 **최재석 교수는 다라국의 위치를 규슈의 아리아케우미 연안의 多良村(다라 마을), 多良山(다라산) 일대에 비정했다.**

“우리는 한국국명을 본 딴 지명이 일본열도를 뒤덮고 있다는 사실을 표에서 알 수 있지만 백제 신라 고구려 가야 가라라는 국명 이외에도 아라, 다라 그 밖의 한반도의 지명이 일본열도에도 존재할 것이다. 한 예로 **다라라는 지명은 일본열도의 여러 곳에 존재해 있으며,**



최재석 교수

대마도 가까이로는 파견국 지금의 축자해(북구주)에 면해 있는 녹도에는 지금도 다라(다라촌)라는 마을과 다라산이라는 산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일인사학자와 한인사학자가 행한 아라,가야,탁순,남가라,반파 등의 지명 비정은 근거가 없으며 따라서 그러한 지명은 한반도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최재석, 「가야사 연구에서의 가야와 임나의 혼동」, 1993년)



現 일본 사가현만 보더라도 다라 지명의 흔적이 무수히 남아 있다. 인하대 남창희 교수는 일본 규슈의 아리아케해(有明海) 우측에는 ‘다라’ 라는 지명이 그대로 남아 있으며 같은 지명을 太良, 多良 등 여러 가지로 음차한 흔적은 원 지명이 한국 지명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일본 규슈의 아리아케해 우측에는 다라라는 지명이 그대로 남아있다. 같은 지명을 太良, 多良 등 여러 가지로 음차한 흔적은 원 지명이 한국 지명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규슈 대학 이토캠퍼스 인근 산 이름 자체가 가야산이다. 가야와 연관된 지명은 규슈 지역에 흘러넘친다. 규슈에서 찾아야 할 임나관련 지명을 왜 한반도에서 찾으려 고집하는지 그 집요함에 혀를 차게 된다.” (남창희 인하대 교수)

일본의 양심있는 역사가자는 가야가 규슈를 지배했다고 말한다. 영향력을 뻗었다고 주장한다. 한반도 남부에 있던 가야는 해상으로 진출했을 것이고, 대마도를 지나 그 아래쪽 규슈에 정착했을 것이다. 그런 기록과 유물, 유적도 있다. ‘다라’라는 지명이 전해지는 곳에서 가야 유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오히려 이를 연구해봐야 하지 않는가? 그리고 다라국이 일본열도에 있으니 상사문도 일본열도에서 찾아야 한다.

## 백제에게 기문과 대사를 준 계체천왕은 무령왕의 동생

“(513년)7년 여름 6월, 백제가 저미문귀(姐彌文貴) 장군(將軍)과 주리즉이(州利卽爾) 장군을 수적신압산에 팔려 보내어 오경박사(五經博士) 단양이(段楊爾)를 바쳤다. 그리고 따로 “반파국(伴跛國) 이 신의 나라의 기문(己汶)이라는 땅을 약탈하였습니다. 앞드려 바라옵건대 바르게 판단하여 원래 속한 곳에 돌려 주십시오.” 라고 아뢰었다. “(『일본서기』 권 17 男大迹天皇 繼體天皇)

### 513년 11월05일(음) 백제에게 己汶과 帶沙를 줌

“겨울 11월 신해(辛亥) 초하루 을묘(乙卯) 조정에서 백제의 저미문귀(姐彌文貴)장군과 斯羅의 汶得至와 안라(安羅)의 辛己奚와 賁巴委佐, 반파(伴跛)의 旣殿奚와 竹汶至 등을 불러놓고 恩勅을 선포하여 기문(己汶)과 대사(帶沙)를 백제국에 주었다.”

백제가 기문과 대사를 얻었다는 6세기 초 백제 왕은 무령왕이었다. 이때 야마토와의 천황은 계체였는데, 무령왕 사마가 503년 계체(남제왕)에게 전해준 선물이 바로 인물화상경이다.

### [인물화상경] 503년 무령왕 사마가 동생 남제왕(계체천황)에게 보낸 거울

무령왕은 끈지가 왜 열도로 가던 도중에 낳은 아들이고, 24대 동성왕은 무령왕의 동생이다. 아스카는 이 두 왕이 성장한 곳이다. 이것은 본국 백제와 담포가 하나의 정치체제 속에 통합되어 있었음을 말해준다.



“계미년(503년) 8월 10일, 남동생 왕이 오시사카 궁에 있을 때 사마게서 아우의 장수를 영원하여 보내주시는 것이 개중비직과 예인금주리, 두 사람을 파견하여 최고급 구리쇠 200환으로 이 거울을 만들었도다(癸未年八月十日大王年 男弟王在意柴沙加宮時斯麻念長壽遠開中費直穢人今州利二人等取自上銅二百早作此鏡)”

그렇다면, 『일본서기』에서 기문, 대사를 백제가 차지했다는 기록은 백제왕이 야마토의 왕에게 명을 내린 것으로, 기문, 대사가 한반도가 아니라 일본열도였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칠지도] 후왕에게 나눠주니 후세에 전하라



일본 학자들은 이소노카미신궁(石上神宮)의 칠지도(七支刀) 명문을 “번국(蕃國) 백제가 야마토 조정에 바친 것”이라 주장하는데, 명문을 살펴보면 모순이란 것을 확연히 알 수 있다.

앞면 “태○4년 5월16일 한낮에 백번이나 단련된 강철로 칠지도를 만들었다. 이 칼로 온갖 적병을 물리칠 수 있으니 **후왕에게 나눠줄만 하다.** ○○○○제작하다 泰○四年十一月十六日丙午正陽造百練鑊七支刀帶辟百兵宜供侯王○○○○作

뒷면 “지금까지 이런 칼이 없었는데, 백제왕세자 기생성음이 일부러 왜왕 지를 위해 만들었으니 **후세에 전하라**(뒤)先世以來未有此刀百濟王世○奇生聖音故爲倭王旨造傳示後世

**“백제 왕세자가 왜왕을 위해 만들었으니 후세에 전하라.”는 것이다.** 이런 주장의 **가장 유력한 증거는 바로 후왕(候王)이란 글자와 '후세에 전하여 보이라(傳示後世)'이다.**

교토대학의 한일고대사 연구의 거목 우에다 마사야키 교수는 1975년 이미 “**칠지도는 백제왕이 후왕인 왜왕에게 하사한 칼이다.** 이 칼에 새겨진 명문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내린 하행문 형식의 글이다.**”(上田 正昭, 『고대사의 초점』)라고 확언한 바 있다. 백제의 황제가 제후국인 왜왕에게 하사한 칼이라는 뜻이다.

또한, 『일본서기(日本書紀)』 신공기(神功紀) 52년조를 보면 “백제의 구저(久氏) 등이 천웅장언(千熊長彦)을 따라와서 **칠지도(七支刀) 하나와 칠자경(七子鏡) 하나, 그리고 여러 가지 귀중한 보물을 바쳤다**”라고 되어 있지만, 칠지도의 명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기년설에 따르면, 신공49년은 369년이므로 신공52년은 372년이 된다. 당시에 신공황후가 실존했다면 그는 백제 왕의 제후였다고 보면 된다. 임나일본부가 들어올 구석이 전혀 없다. 오히려 백제의 일본열도 지배로 역전되는 증거가 칠지도다. 백제는 왜왕을 후왕으로 두었던 후왕제도, 담로제도가 있었던 것이다.

칠지도의 372년에 있었던 후왕제도는 인물화상경에서 볼 수 있듯이 503년까지도 계속 된 것이다. 백제의 지방 행정구역이었던 담로. 왕의 명령을 받아 담로를 다스린 통치자들은 제후, 즉 후왕의 성격을 띄었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담로의 일부는 일본열도에서 찾아야 하고 그런 면에서 양직공도의 9국도 열도에서 찾아야 한다.

우륵 12곡이 모두 지명이다?

우륵이 가실왕의 명으로 작곡한 12곡은 하가라도(下加羅都), 상가라도(上加羅都), 보기(寶伎), 달기(達己), 사물(思勿), 물혜(勿慧), 하기물(下奇物), 사자기(獅子伎), 거열(居烈), 사팔헤(沙八兮), 이사(爾赦), 상기물(上奇物)이다.

일본인 학자 다나카 도시아키(田中俊明, 1952년 ~ )는 임나를 가야에 배치하기 위하여 우륵 12곡을 지명으로 주장했다. 특히, 다나카 도시아키는 우륵의 12곡을 인용하여 임나10국을 한반도 남부 지역에 무작위로 배치했다. **우륵 12곡에 기문이 있을까? 없다. 상기물, 하기물이 나올 뿐이다.**

『삼국사기』 권32 악지(樂志)에 보면

“사내악(思內樂)은 나해왕(奈解王)때 지은 것이다. ... 사내기물악(思內奇物樂)은 원랑도(原郎徒)가 지은 것이다.” 라는 구절이 나온다.

여기에도 기물(奇物)이 나온다. 사내기물악(思內奇物樂)은 원랑도가 지은 것이라고 하는데 **사내악(思內樂)과 기물악(奇物樂)을 합쳐진 향악으로 고증되었다. 그렇다면, 기물이라는 용어는 지명이 아니다.**



우륵 12곡을 지명에 배치한 지도 (매일신문 2012-11-08)

또한 우륵 12곡 중 **보기(寶伎)는 공놀이이고 사자기(獅子伎)는 사자춤이다. 이것으로 봐도 12곡은 지명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학자 다나카도시아키는 사자기는 합천군 대병면에 비정했고 보기는 사천시 곤양면에 비정했다. 12곡명 가운데 이사(爾赦) 곡명은 삼국사기에서 미상으로 처리하여 그 어느 학자가 비정해도 설득력이 결여된다.

다나카 도시아키는 한국 남부지역을 왜국의 식민지로 날조하기 위하여 임나와 무관한 우륵을 왜인으로 둔갑시켰다. 우륵의 12곡중 사기이국을 이사곡에 습합시켜 우륵을 왜의 사이기국의 왜인으로 날조했다.



기문 주변 <임나 4현>은 일본 열도에 있다

『일본서기(日本書紀)』의 6세기 초 기록에 나온 ‘임나사현을 백제에 할양했다’는 내용을 토대로 한 일본의 대표적인 역사 왜곡 중 하나다. (중앙일보 2012.04.21.)

百濟의 貢調. 任那 4縣을 百濟에게 줌 ( 5十二년 12월(음) )  
 512년 겨울12월, 백제가 사신을 보내어 조(調)를 바치고 따로 표를 올려 임나국(任那國)의 상치리(上哆唎), 하치리(下哆唎), 사타(婁陀), 모루(牟婁) 4현을 청하였다. 치리국수인 수적신산(穗積臣)이 아뢰기를, “이 4현은 백제에 근접해 있고, 일본과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백제와 4현은) 아침저녁으로 교통하기 용이하고 닭과 개의 소리도 어느 쪽의 것인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백제에 주어 같은 나라로 합치게 한다면, 굳게 지키는 대책이 이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일본서기』 「계체(繼體)」 6년 12월 조는 임나 4현이 “백제와 가깝게 연달아 있어서 아침저녁으로 통행하기 쉽고 닭과 개의 주인도 구별하기 어렵다” 라고 한다.

‘닭과 개의 주인도 구별하기 어렵다’는 말은 한 동네나 마차가지란 말이다. 경상도에 있는 임나의 닭과 개가 충청도나 전라도에 있는 백제의 닭과 개와 서로 헷갈릴 수 있겠는가?

이것만 봐도 『일본서기』에 나오는 백제, 임나 등은 동네국가, 성읍국가 수준이었다. 임나국(任那國)에 속한 4현(縣)은 부락 단위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지근거리에 임나국(任那國)이 분포한 것을 반영하여 한반도에 삼국이라 할 수 없다.

『삼국사기』의 가야, 백제가 아닌 것이다.

임나 4촌의 위치와 임나 4현

『일본서기』 계체기 23년의 기록

그러자 신라는 이번에는 상신(上臣) 이질부례지간기(伊叱夫禮智干岐)를 파견했는데, 무리 3천명을 이끌고 칙명을 듣기 위해 왔다. 모야신은 멀리 무장을 한 수천 명을 보고는 웅천으로부터 임나의 기질기리성으로 들어갔다. 이질부례는 다다라원(多多羅原)에 머물면서 귀복하지 않고 석 달을 기다리면서 계속 칙명 듣기를 청했다. (\*그러나 모야신은 칙명을 알려주지 않고 신라 병사들을 모욕하기까지 한다.) 그러자 상신은 ‘금관, 배벌, 안다, 위타’의 4개 마을을 초략하여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다른 책에서는 4개 마을을 ‘다다라, 수나라, 화다, 비지’라고 하였다. 어떤 사람은 “다다라 등 네 촌이 공격을 받은 것은 모야신의 잘못이다.”라고 하였다.

이질부례지간기(伊叱夫禮智干岐)는 이사부 장군이다. 이사부는 다다라원에 머물면서 석달을 기다리다가 임나 4촌을 초략한다. 초략(抄掠)은 폭력을 써서 강제로 빼앗았다는 뜻이다. 여기서 ‘다다라원’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학계에서는 ‘다다라’를 ‘다대포’에 비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다라’라는 명칭은 일본열도 지명에 명확하게 나온다. 명확한 지명을 놔두고 비슷한 음을 맞추는 것을 선행해서는 안된다.

- ☞ 찌구젠(후쿠오카현 일대)의 다다라 마을과 해변가 이름 (多多良)
- ☞ 비젠(오카야마현) 다다라 (多多羅)
- ☞ 야마시로(교토부) 찌찌끼군 다다라 (多多羅)

등 모든 지명 ‘다다라’는 일본 열도에 있다. 그러므로 임나 4촌은 일본열도에 있음이 명확하다 그렇다면 임나 4현은? 마찬가지로 다. 열도에서 찾아야 한다.



## 일본서기에 나오는 임나의 위치 (승신 65년조 기사)

“「임나국이 소나갈질지를 보내어 조공하였다. 임나는 축자국에서 2천여 리 떨어져 있고, 북은 바다로 막히고 계림의 서남에 있다.(任那國 遣蘇那曷叱知 令朝貢也 任那者 去筑紫國二千餘里 北阻海 以在鷄林之西南)” (승신기 65년)

### 임나의 위치는 어디일까?

“군으로부터 왜에 이르기까지는 해안을 돌아서 물길로 가는데, 한국을 지나서 조금 남으로 가다가 조금 동으로 가서 왜국의 북안에 위치한 구야한국에 도착하게 되니 7천여 리이다. 거기서 비로소 하나의 바다 천여리를 건너면 대마국에 이른다. 또 남쪽으로 한해라 하는 하나의 바다를 천여리 건너면 일지국에 이른다. 또 하나의 바다를 천여리 건너면 말로국에 이른다.(從郡至倭 循海岸水行 歷韓國 乍南乍東 到其北岸狗邪韓國 七千餘里 始渡一海千餘里至對馬國..中略..又南渡一海千餘里 名曰澣海至一支國..中略..又渡一海千餘里至末盧國)” (『삼국지』 왜인전)



“왜국은 백제와 신라의 동남쪽 수륙 삼천리의 대해 중에 있다.(倭國 在百濟新羅東南 水陸三千里 於大海中 衣山島而居)” (『수서』 왜국전)

『삼국지』 왜인전과 『수서』 왜국전, 『일본서기』 승신기에 따르면, 축자국(북구주)에서 2천여리 떨어져 있고 북쪽이 바다로 막혀 있는 곳은 대마도 밖에는 없다. 따라서, 임나의 위치에 대한 유일한 기록에서 알 수 있는 임나의 위치는 대마도다.

“임나는 신라의 서남쪽에 있다는 내용은 좀 애매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서남쪽에 있다고 하여도 첫 번째 내용(축자국에서 2천여리)이나 두 번째 내용(북쪽은 바다로 막혀있다)을 결정적으로 바꿀 조건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볼 때 승신 65년의 위의 기사는 대마도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sup>10)</sup>

‘임나=대마도’ 라는 주장은 문정창, 황순중, 최재석, 윤내현 교수 등도 논문과 저서를 통해 밝힌 내용이다.

일본서기에 나오는 임나의 위치 (승신 65년조 기사)를 보면 임나는 한반도 남부가 될 수 없다. 북조해北阻海 즉 북쪽은 바다로 막혀 있다. 이는 절대 한반도가 될 수 없다. 막힐 조(阻)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에 대해서 우리 학계의 주석을 대변하는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이스를 보면 “임나의 북쪽이 바다로 막혀 있다는 것은 『日本書紀』 찬자의 잘못된 듯하다.” 라고 써 놓았다. 동북아역사재단은 “북쪽을 사이에 두고” 라는 말도 안되는 오역을 행했다. 이는 북조해北阻海가 그들이 보는 임나의 위치와 맞지 않는 글이기 때문이다. 원문을 그대로 보면 답이 나오고 그 답은 임나일본부설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 나가며

임나일본부설을 포함하고 있는 일본 지도들에는 기문이 포함되어 있다. 기문이 임나일본부와 관련이 없다고 말하는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이런 기문국의 한반도 남부 배치 주장과 이를 남원이라고 대못박는 행위는 임나일본부설을 주장하는 일본에게 더 큰 힘을 실어줄 것이 분명하다. “너희 한국이 그렇게 주장하여 기본 베이스를 깔아주니 우리는 임나일본부를 언제든 마음껏 주장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얻게 되었으니 너무나도 감사하다” 라고 크게 기뻐할 일을 우리 스스로 해주는 것이다.

일제 관변학자 이마니시류(今西龍)는 남원=기문설을 주장했으나 그 근거는 미약하며 억지도 맞춘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남원의 고대지명인 고퉁(古龍)을 기문에 맞추어보려고 하였으나 설득력이 전혀 없다. 남원의 옛 지명은 모든 문헌을 살펴 보면 고퉁(古龍)이다. 기문이 아니다.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사문(巴汶)이 나오는데 이를 기문이라고 보더라도 이곳은 충남 예산이다. 지역이 너무 위쪽이라 말이 안된다고 생각했는지 이 巴汶은 기문을 증명하는데 활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삼국사기에 가장 근접한 巴汶은 충남 예산으로 명확히 기술되어 있다.

삼국사기 우륵 12곡에 기문이 있을까? 없다. 상기물, 하기물이 나올 뿐이다. 기물이라는 용어는 지명이 아니다. 우륵 12곡 중 보기(寶伎)는 공놀이이고 사자기(獅子伎)는 사자춤이다. 이사(爾叻) 곡명은 삼국사기에서 미상으로 처리하였다. . 이것으로 봐도 12곡은 지명이 될 수 없다. 기물악이 있어 기물도 지명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한원(翰苑) 백제전 기문하(基汶河)가 있다고 기문이 맞다고 할 수 없다. 기문已汶과 기문하基汶河가 같은 강이라는 확증도 없으며 같은 강이라고 해도 섬진강을 양분해서 상류를 基汶河, 하류를 帶沙江이라고 한다면 기문하가 “동남으로 흐른다” 는 내용과 배치된다.

10) 최재석 교수, 가야사연구에서의 가야와 임나의 혼동 25쪽

『신찬성씨록』에는 임나의 동북쪽에 상파문이 있다고 하여 이를 기문으로 한다고 해도 위치가 남원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 이 신찬성씨록의 '임나 동북방'과 한원 '동남으로 흐른다'는 문구에 정합하는 기문은 한반도에 없다. 신찬성씨록 속의 임나 관련 성씨 위치는 모두 일본열도에 있다. 임나는 일본열도에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일본서기 기문국에 대한 해석의 모순점이 많다. 일본서기 기문에 대한 서술은 계체 7년에 보이는 기록이 전부다. 그 어디에도 기문이 남원이라거나, 백제 기록을 인용했다는 근거는 없다. 그럼에도 학계는 '기문이 남원' 이라고 우기는 것이다.

양직공도의 백제 방소국 9국은 한반도 남부가 될 수 없다. 이는 180여자의 양직공도 원문의 맥락을 보면 알 수 있다. 방소국의 사라는 신라라 하는데 신라는 소국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소국 사라는 일본열도에 있는 사라로 볼 수 있다. 열도에 신라계 지명과 유물을 찾아보면 된다. 거기에 양직공도 백제 방소국 전라는 전라를 앞전자여서 앞라,안라라 본다고 해도 그 안라의 지명은 오히려 일본열도에 많다. 정확히 한자가 같은 안라(安羅) 지명은 일본밖에 없다. 安羅를 아라라고 읽지만 아라,아나 등의 지명도 일본열도에 50 군데 이상이 나온다.

양직공도의 백제 방소국 '다라' 지명도 일본열도에 많다. 이는 무시할 수 없는 수치이며 다라 지명 옆에 가라, 안라 지명도 있으므로 이러한 일본열도의 지명을 연구해야 하는 것이 학자의 책무라 생각한다. .

“후왕에게 나눠주니 후세에 전하라” 는 칠지도는 백제의 후왕제도를 명확히 알려준다. 왜왕은 후왕이다. 일본서기 등 문헌은 왜곡해 적을 수 있어도 당대 503년 무령왕 사마가 동생 남제왕(계체천황)에게 보낸 거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런 관계에서 무령왕 재위 기간의 사건들을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신라 이사부 장군이 초략한 임나 4촌은 그가 3개월 대기한 다다라촌의 다다라(多多良, 多多羅) 지명을 볼 때 일본열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대포에서 찾은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지 않은가. 그런면에 임나 4촌과 더불어 임나 4현도 열도에서 찾아봐야 한다.

기문,대사,임나4현 6세기의 이 기록이 한반도 남부로 고착화되는 순간 임나일본부설은 더욱 확고하게 되고 만다.

지금 2021년 일본 중고등학교 교과서는 임나일본부설의 바탕이 되는 임나=가야로 동일시하며 '임나(가야)' 혹은 '가야(임나)' 로 한반도 남부의 가야 강역에 크게 써붙이며 임나

일본부설을 선전하고 있다. 임나일본부설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이를 방관하고 오히려 부추킨 것은 임나=가야로 동일시하며 수십년간 한땀한땀 한반도 남부에 신공49년조 7국 4읍 , 임나10국,임나4현,기문,대사 등을 비정하고 있는 학계에 큰 책임이 있다고 본다. 유네스코 등재를 계기로 하여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바래본다.